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samsung.com

양지성 Economist
jisung.yang@samsung.com

김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구민정 Economist
mj.gu@samsung.com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Week Ahead: 9월 셋째 주

FOMC preview: Credibility hike 성격의 일회성 인상 예상

- 9월 FOMC에 대한 전망을 동결에서 25bp 인상으로 수정. 이는 Fed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와 미 국채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credibility hike 성격으로 판단
- 그러나 향후 총 4회의 인상을 기대하는 시장과는 달리, 당사는 9월 인상을 일회성 인상으로 판단하며, 여전히 내년 상반기 말까지 2회 인하(3월, 6월) 전망을 유지

9월 FOMC의 핵심 변수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미국 8월 CPI에서 headline 물가는 예상(+0.40%)에 부합한 가운데, 핵심 물가가 전월 대비 0.29%로 예상을 다소 상회하였다. 다만, 월간 핵심 물가 상승의 약 1/3이 단일 항목인 무선 통신 요금의 급등(+5.9%)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주거비, 의료비 등 전반적인 핵심 서비스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8월 CPI, PPI를 바탕으로 추정한 8월 핵심 PCE 물가 상승률(30일 발표 예정)은 전월 대비 0.25%이며, 핵심 PCE 물가의 최근 12개월, 6개월, 3개월 상승률(연율화)은 각각 3.2%, 3.0%, 2.5%로 disinflation 추세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음을 확인시켜 줄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 8월 CPI 결과는 내년 3월까지 관세 및 유가의 물가 충격이 추세적으로 약화되면서, 내년 2Q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이 2.5%미만으로 대부분 정상화될 것이라는 당사의 기존 전망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9월 FOMC에 대한 기본 전망을 동결에서 25bp 인상으로 수정하는데, 이는 FOMC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워시의 매파적 잭슨 홀 연설과 8월 CPI를 거치면서 선물시장에 반영된 9월 인상 확률이 약 90%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동결 결정은 Fed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와 미 국채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워시 의장은 잭슨 홀 연설에서 "6~7월 물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조적 물가 추세가 의미 있게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조적인 물가 추세가 명확하게, 그리고 충분한 속도로 물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워시와 함께 Fed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월러 이사와 윌리엄스 총재도 최근 발언에서 전월 대비 0.2%내외를 기준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Fed 지도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종합할 때, 8월 핵심 CPI 결과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기대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결이라는 서프라이즈를 줄 경우, 물가 안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통화정책 반응 함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장기 금리의 추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즉, 9월 금리 인상은 credibility hike의 성격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내년까지 약 4회, 100bp의 인상을 기대하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당사는 이번 9월 금리 인상을 일회성 인상으로 판단하며, 여전히 내년 상반기 말까지 2회 인하(3월과 6월) 전망을 유지한다. 먼저 10월 back-to-back 인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다음 페이지에 계속)

판단하는 이유는, 1) 10월 FOMC(27~28일 예정)가 11월 3일 중간선거 바로 직전에 있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고, 2) 8월 핵심 CPI의 특이성(무선 통신요금 급등)을 감안할 때, 연속 인상이 요구될 만큼 미국의 기초적 물가가 재과열되는 증거는 미미하며, 3) 관세/유가 등 공급 측 물가 충격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선물시장도 10월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 45%로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사가 올 12월 추가 인상을 예상하지 않는 이유는 1) 관세의 물가 충격이 3Q~4Q를 거치면서 빠르게 약화되면서 12월까지의 직전 3~6개월 시권설 핵심 물가 상승률이 의미 있게 둔화(연율화 기준 2.5%내외)되기 시작할 전망이고, 2) 현재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에 근접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및 노동시장이 선물시장이 기대하는 약 4회의 인상이 정당화될 정도로 과열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9월 FOMC에서 함께 제시되는 Fed의 경제 전망에서는 성장률과 실업률, 그리고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거의 6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 FOMC 경제 전망에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또한 '26년 말 dot-plot의 경우, 9월 인상 이후 연내 동결(3.875%) 혹은 추가 1회 인상(4.125%)이 될 가능성이 50:50으로 예상한다. 당초 3개월 전 제시됐던 dot-plot에서는 연내 1회 인상이 3명, 동결이 8명, 1회 인하가 1명으로 전체 18명 중 12명에 달했다. 따라서, 연내 1회 인상 3명이 모두가 2회 인상으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median은 3.875%로 동결이 될 것이다. 반면, 3명 모두가 2회 인상으로 이동하고, 동결을 지지했던 의견이 2회 이상의 인상으로 변화했을 경우, 연내 추가 1회 인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선물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약 4회(9월 인상 포함)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26년 말 dot-plot이 추가 1회 인상이 되더라도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허진욱)

Preview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 지표 Preview

미국: 다음 주에는 8월 소매판매(16일), 9월 FOMC(16~17일)가 예정 되어있다. 8월 전체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0.4% 증가하여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전망이다. 9월 FOMC에 대해 당사는 기본 전망을 동결에서 25bp 인상으로 수정한다. 이는 FOMC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까지 약 4회, 100bp의 인상을 기대하는 시장 예상과는 달리, 당사는 이번 9월 인상을 일회성 인상으로 판단하며, 여전히 내년 상반기 말까지 2회 인하(3월과 6월) 전망을 유지한다. 당사가 10월 back-to-back 인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1) 10월 FOMC(27~28일)가 11월 3일 중간선거 바로 직전에 있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고, 2) 8월 핵심 CPI의 특이성(무선 통신요금 급등)을 감안할 때, 연속 인상이 요구될 만큼 미국의 기초적 물가가 재과열되는 증거는 미미하며, 3) 관세/유가 등 공급 측 물가 충격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선물시장도 10월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 45%로 반영하고 있다.

중국: 다음 주에는 8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15일)가 예정되어 있다.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4.8%를 예상한다(7월 4.5%). 8월 PMI에서 국가통계국과 RatingDog 모두 생산지수가 개선되었고, 7월 보다는 자연 재해의 빈도가 줄었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명목, 누적)는 주택투자가 전년 대비 -20.1%로 부진이 지속되고, 인프라 투자도 부진하면서 -7.1%로 예상된다(6월 -6.7%). 아울러, 소매판매도 지난해 자동차, 가전 등 이구환신의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0.8%로 부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일본: 다음 주에는 BOJ 금융정책 결정회의(18일)가 예정되어 있다. 당사는 시장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1.00 → 1.25%)을 전망한다. 지난 금리 인상과 마찬가지로 BOJ 관계자들은 결정 회의에 앞서, 자국 언론을 통해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교도 통신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일본은행이 9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1.25%로 인상해 정상화 속도를 가속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금리 인상의 배경은 엔화 약세와 그로 인한 물가 상승압력 가중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통화정책 정상화 요구이다. 경제 지표도 양호하여, 2Q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고, 7월 임금 상승률도 예상을 크게 상회한 전년 대비 4.7%(6월 3.4%)를 기록했다. 노동력 부족과 기업 이익 증가의 결과이다.

금융시장 Preview

글로벌 금융시장: 9월 FOMC의 핵심 변수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미국 8월 CPI에서 headline 물가는 예상 (+0.40%)에 부합한 가운데, 핵심 물가가 전월 대비 0.29%로 예상을 다소 상회하였다. 다만, 월간 핵심 물가 상승의 약 1/3이 단일 항목인 무선 통신 요금의 급등(+5.8%)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주 거비, 의료비 등 전반적인 핵심 서비스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8월 CPI, PPI를 바탕으로 추정한 8월 핵심 PCE 물가 상승률(30일 발표 예정)은 전월 대비 0.25%이며, 핵심 PCE 물가의 최근 12개월, 6개월, 3개월 상승률(연율화)은 각각 3.2%, 3.0%, 2.5%로 disinflation 추세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음을 확인시켜 줄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 8월 CPI 결과는 내년 3월까지 관세 및 유가의 물가 충격이 추세적으로 약화 되면서, 내년 2Q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이 2.5%미만으로 대부분 정상화될 것이라는 당사의 기존 전망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9월 FOMC에 대한 기본 전망을 동결에서 25bp 인상으로 수정하는데, 이는 FOMC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워시의 매파적 잭슨 홀 연설과 8월 CPI를 거치면서 선물시장에 반영된 9월 인상 확률이 약 90%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동결 결정은 Fed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와 미 국채시장의 혼란을 가 중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최근 Fed 지도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종합할 때, 8월 핵심 CPI 결과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기대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결이 라는 서프라이즈를 줄 경우, 물가 안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통화정책 반응 함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 여, 장기 금리의 추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즉, 9월 금리 인상은 credibility hike의 성격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내년까지 약 4회, 100bp의 인상을 기대하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당사는 이번 9월 금리 인상을 일회성 인상으로 판단하며, 여전히 내년 상반기 말까지 2회 인하(3월과 6월) 전망을 유지한다. 한편, 이 미 선물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예상 횟수가 약 4회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26년 말 dot-plot이 추 가 1회 인상이 되더라도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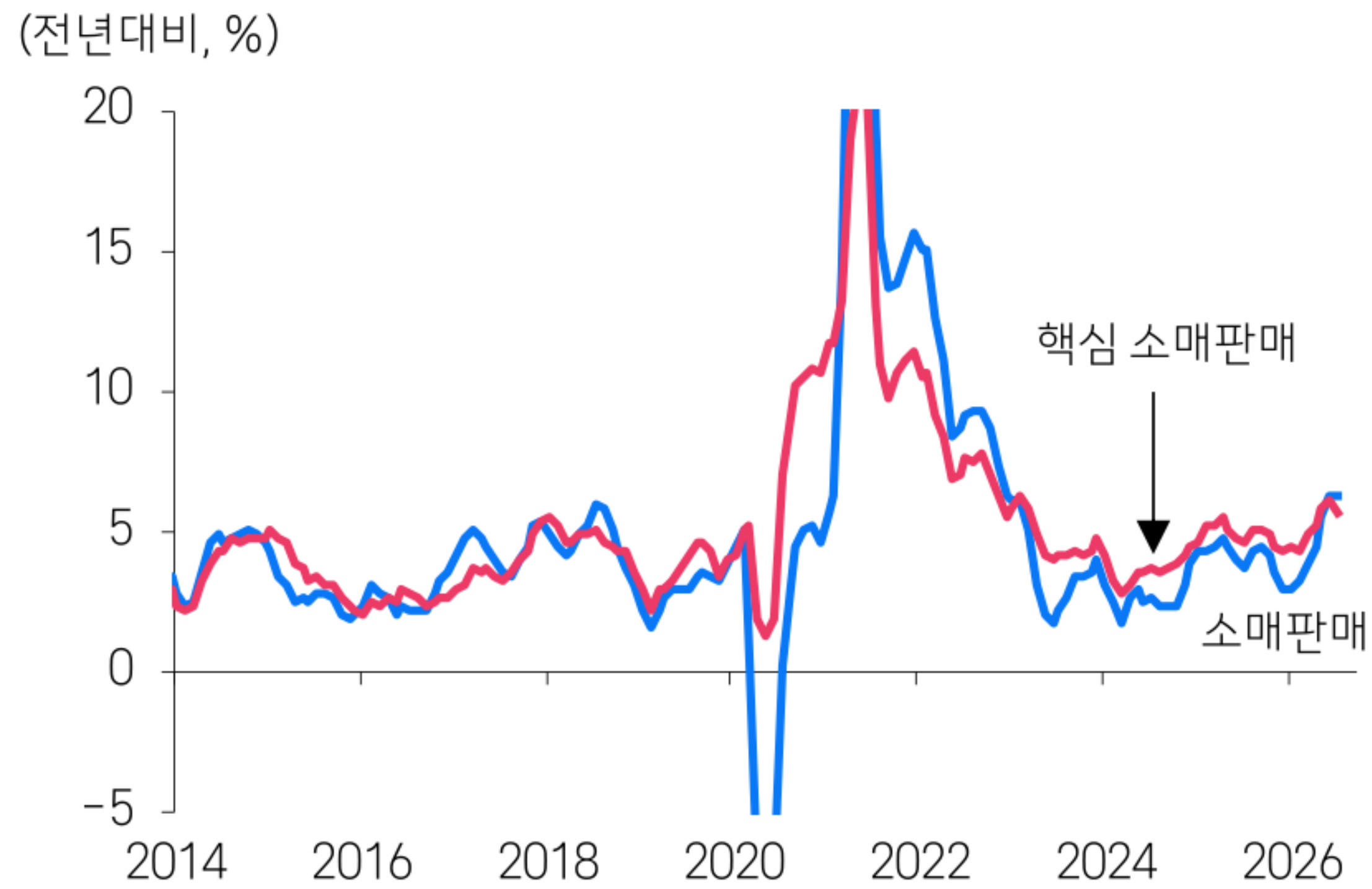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Ahead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전기	영향	비고
정책 지표							
미국	9월 17일	9월 FOMC	-	-	- -	.	
영국	9월 17일	9월 BOE 통화정책회의	-	-	- -	.	
일본	9월 18일	9월 BOJ 금융정책결정위	-	-	- -	.	
경제 지표							
미국	9월 16일	8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9%	-0.6%	상	
	9월 17일	8월 주택 착공	전월 대비	6.9%	-12.4%	상	
		8월 건축허가	전월 대비	-0.9%	4.3%	상	
유로존	9월 16일	7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9%	0.0%	상	
독일	9월 15일	9월 ZEW 전망 지수	지수	40.2	34.2	중	
		9월 ZEW 동향 지수	지수	-52.2	-61.1	중	
중국	9월 15일	8월 신규 위안화대출(누적)	십억 위안	10783.5	10380.0	중	
		8월 총 사회용자 규모(누적)	십억 위안	24372.0	22250.0	중	
		8월 M2	전년 대비	7.6%	7.7%	상	
		8월 소매판매	전년 대비	0.8%	0.6%	상	
		8월 산업생산	전년 대비	4.8%	4.5%	상	
		8월 부동산 투자(누적)	전년 대비	-20.1%	-19.2%	상	
일본	9월 18일	8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2.0%	1.9%	상	
		8월 핵심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8%	1.8%	상	
한국	9월 18일	8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	7.7%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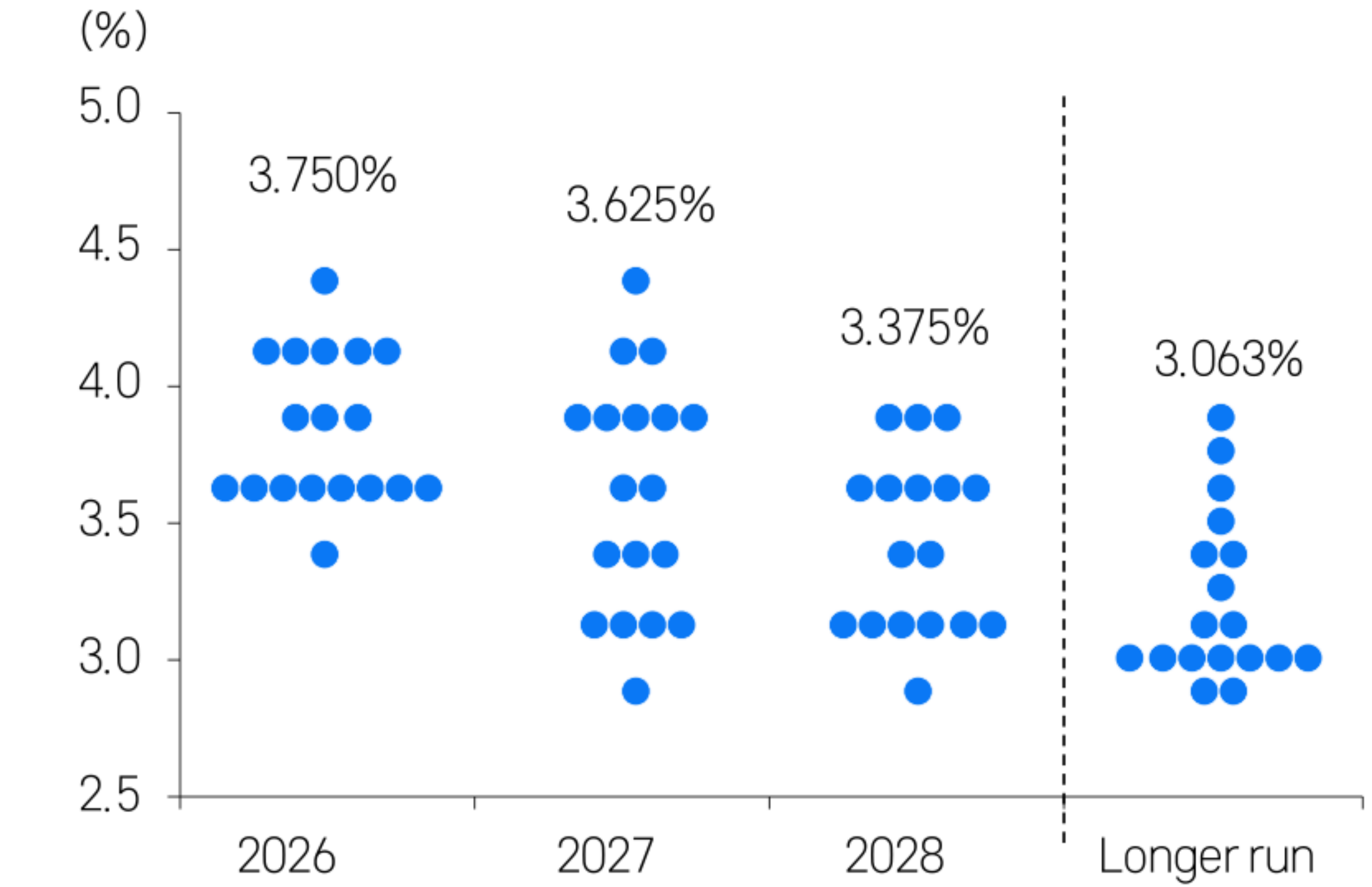
>> 차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미국 전체 및 핵심 소매판매 추이



자료: U.S. 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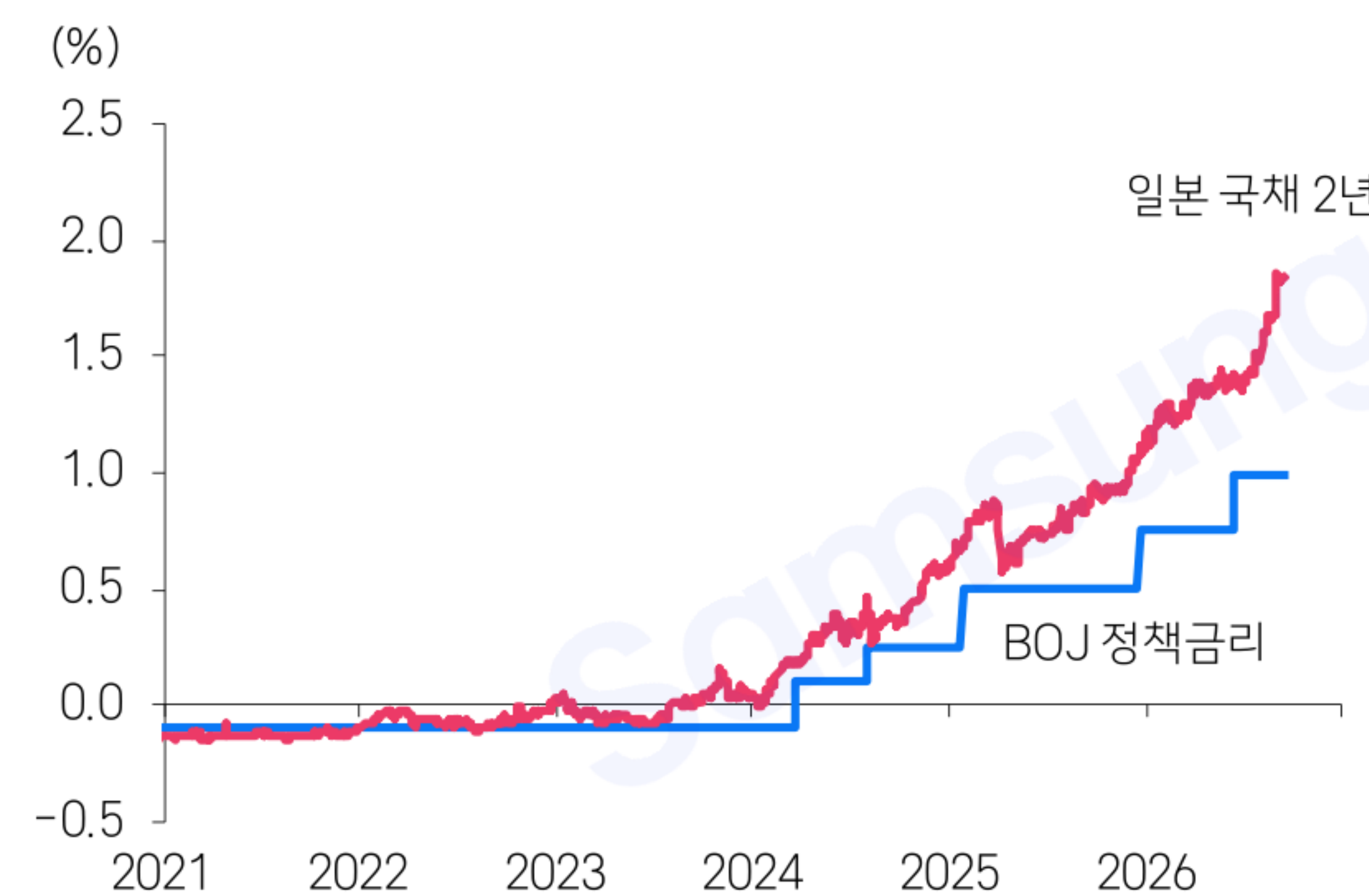
6월 FOMC dot-plot



참고: 숫자는 해당 연도 말의 median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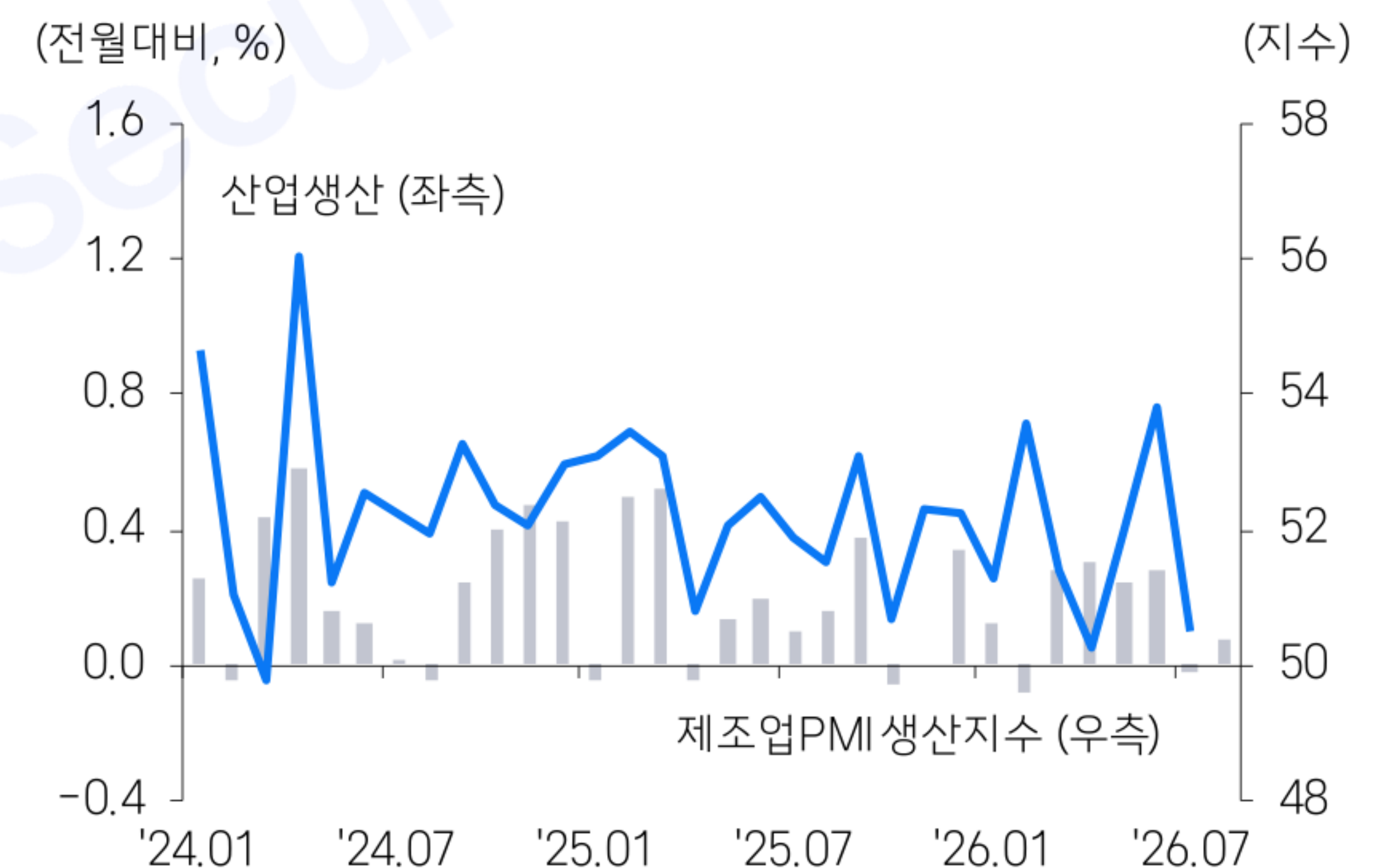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BOJ 정책금리 및 주요 국채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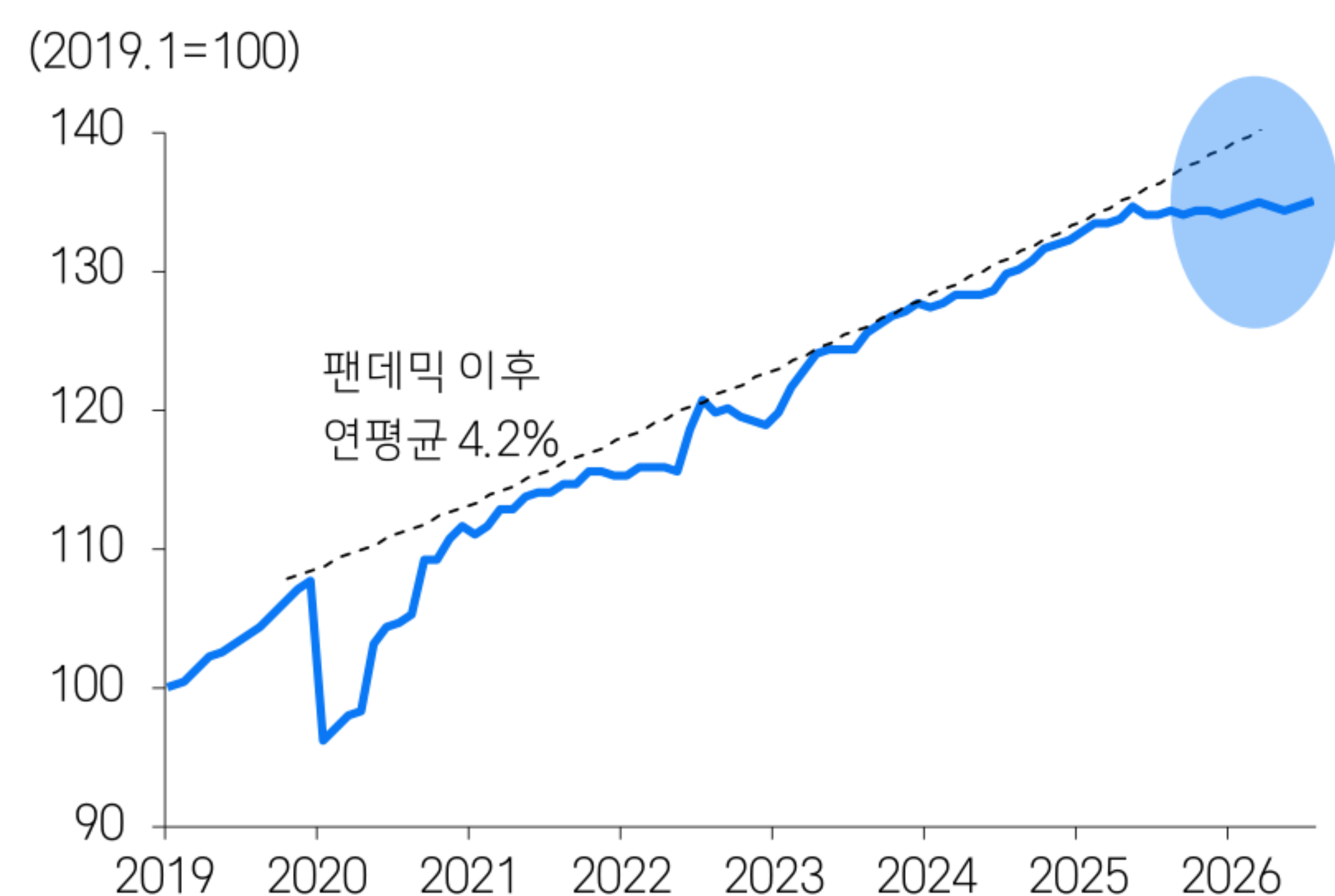
자료: BOJ, Bloomberg

중국 산업생산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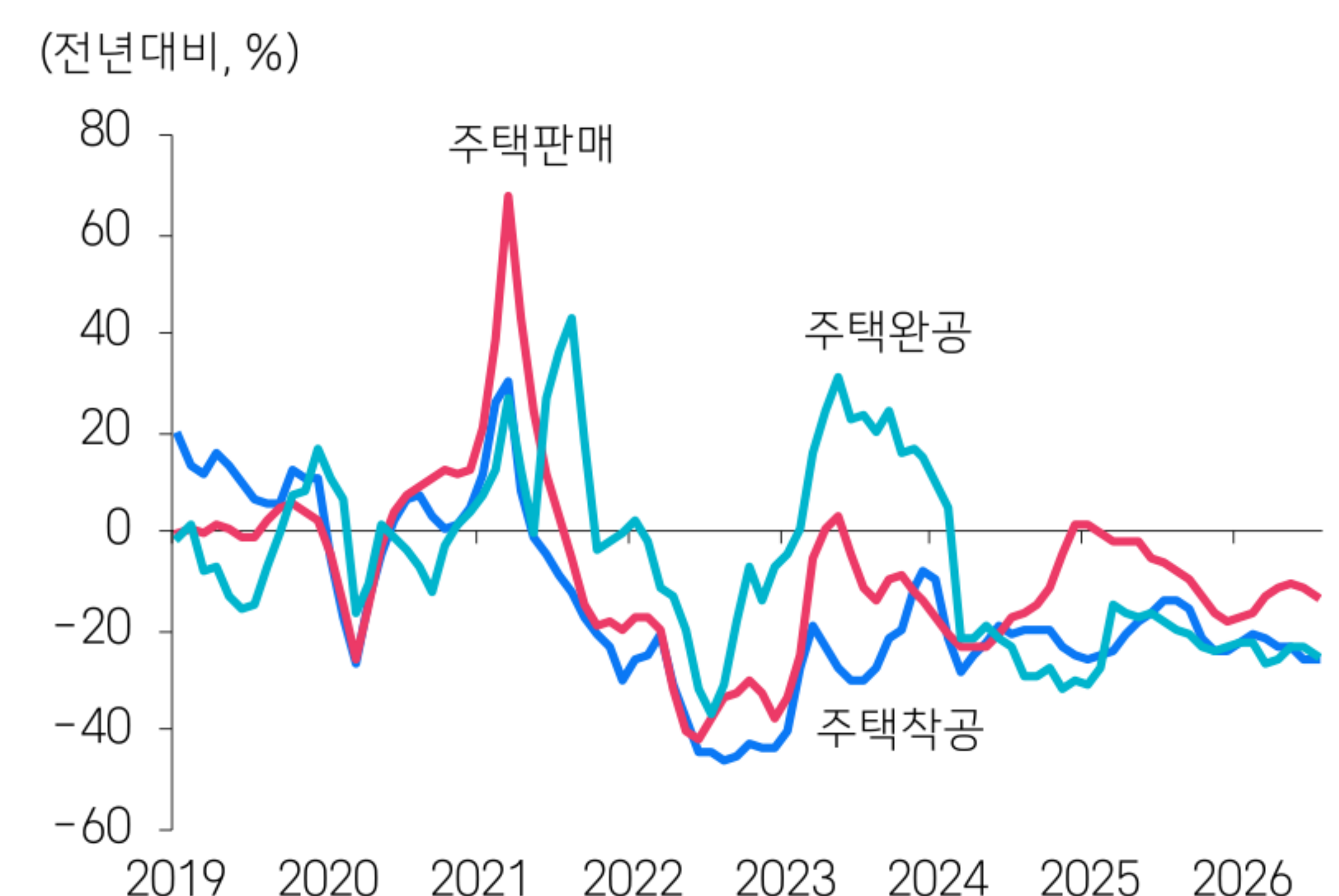
중국 소매판매 증가세는 기존 추세를 하회



참고: 계절 조정 전월 대비로 추정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주택 건설 지표 감소세 지속



참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중국 인민은행

Review

주요 Event 와 시사점

미국: 이번 주에는 8월 PPI(10일), 8월 CPI(11일)가 발표되었다. 8월 P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시장예상에 부합했다. 다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반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률이 5.4%로 7월(4.8%) 대비 확대되면서, 이것이 금융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이하 모두 전년 대비). 품목별로 보면, 최종수요 기준 상품이 1.1% 상승한 가운데, 이 중 에너지 가격이 6월 -6.8%, 7월 -1.8% 이후 8월 4.2%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 전환된 점이 PPI 상승을 주도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 가격 상승은 0.1%에 그쳤다. 한편, 그에 따라 식품과 에너지 제외 Core PPI는 전월 대비 0.2%로 전월 수준에 그치면서 시장예상(0.3%, Bloomberg)을 소폭 하회했다.

8월 headline C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하여 시장예상에 부합했다. 반면, core CPI는 전년 대비 2.4%로 전월(2.5%)보다 낮았으나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하여 시장예상(0.2%, Bloomberg)을 상회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로 에너지(16.3%), 특히 휘발유(+27.4%)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주거비(+3.0%)와 함께 항공운임(23.4%), 숙박(3.2%) 등 에너지 제외 서비스(3.0%)도 상방 압력을 가했다(모두 전년 대비). 종합하면, 이번 CPI 결과는 core 물가가 전년 대비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시장예상을 상회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부 서비스 물가 항목으로 파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을 높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그에 따라 금융시장의 9월 FOMC 25bp 인상확률은 CPI 발표 전 약 70%에서 현재 90%까지 상승했다.

유럽: 이번 주 ECB는 9월 통화정책회의(10일)에서 당사 및 시장 예상대로 정책 금리를 25bp 인상했다(정책금리 2.5%). ECB는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가이드언스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목표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되는 등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에 대한 확신이 7월 대비 강화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물가와 성장 전망이 동반 상향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도 높아지고 있어 금리 인상 중단 근거는 약하다. 당사는 ECB 기본 전망을 12월 인상 후 동결로 수정한다.

중국: 이번 주에는 8월 수출입(8일)과 8월 물가지표(9일)가 발표되었다.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25.0%로 7월 실적(23.9%)을 상회하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글로벌 AI 투자에 따라 반도체(129.8%, 이하 전년 대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76.5%)의 수출 호조가 이어졌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도 15.4%로 양호했다(7월 15.5%). 품목별로 보면, 휴대폰(29.6%)과 석유제품(80.5%)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자동차는 7월(60.4%)보다 둔화한 43.0%를 기록했다. 한편, 8월 수입은 전년 대비 28.2%로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7월 31.2%). 수출과 같이 AI 품목(반도체 83.6%, 컴퓨터 및 부품 209.1%)이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했으며, 구리광석(24.7%), 금(60.3%) 등 비철금속 수입 확대도 증가 요인이었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8%로 7월(0.5%)을 상회했다(시장 예상 0.8%, 이하 Bloomberg). 이는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된 영향이다. 미국과 이란의 공격 재개로 유가가 상승했으며(에너지 4.1%, 이하 전년 대비),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한 IT 제품 가격 인상(태블릿, 컴퓨터, 휴대폰 각각 21.5%, 19.6%, 11.0%)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다만, IT 제품과 금장식류(33.6%), 그리고 여행 관련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8월 핵심 소비자물가는 7월과 비슷한 1.0%에 그쳤다. 이는 내수 부진에 따른 물가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8월 생산자물가도 전년 대비 3.8%로 7월(3.5%)보다 높아지면서 시장 예상(3.6%)을 상회했다.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공급측 요인이 상승을 주도했다. 에너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 요인이었으며,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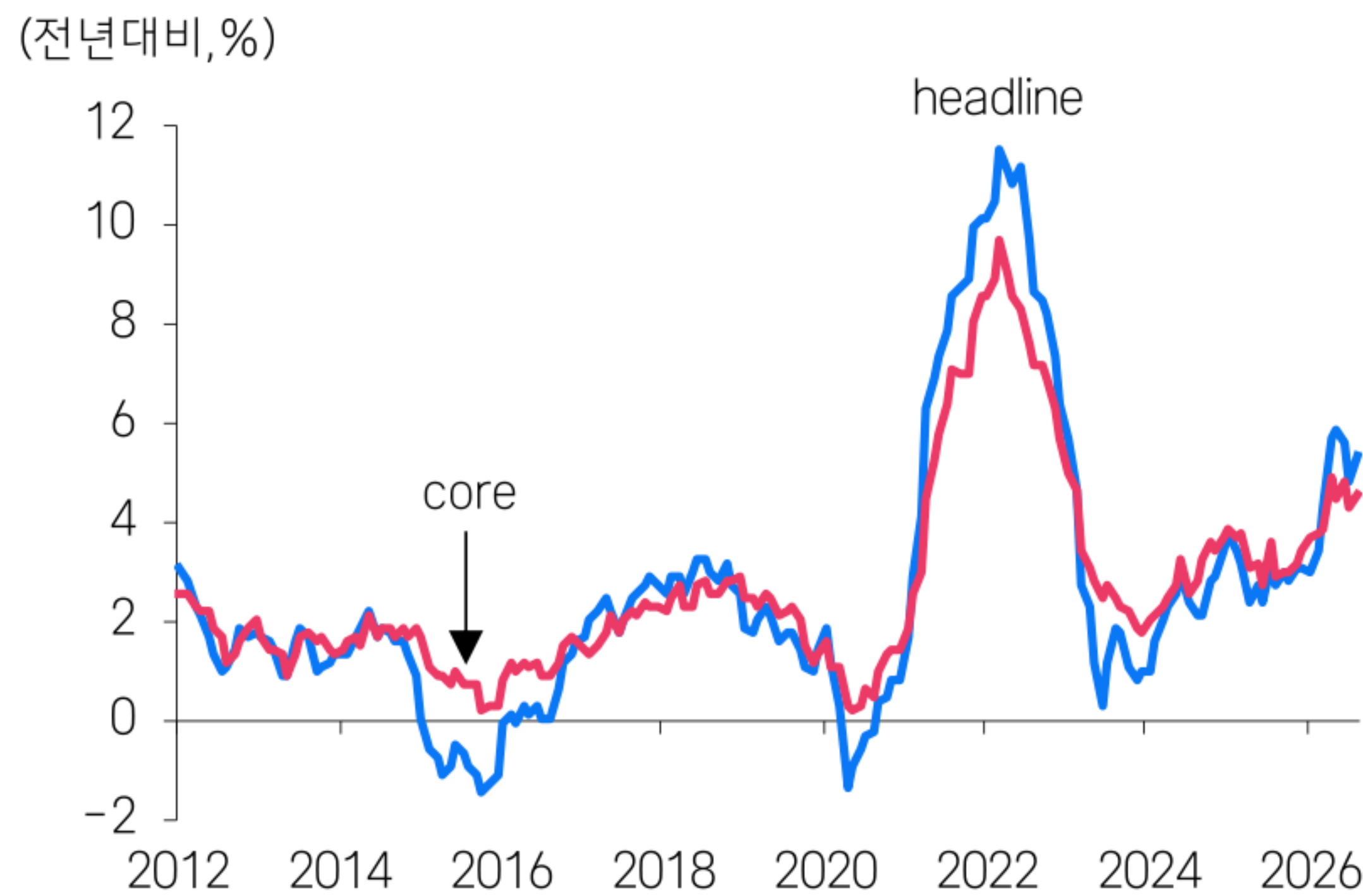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Review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실제치	전기	예상 대비 비교
정책 지표							
유로존	9월 10일	9월 ECB 통화정책회의		2.50%	2.50%	2.25%	In-line
경제 지표							
미국	9월 8일	8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지수	99.3	98.7	99.8	Below
	9월 10일	8월 PPI	전월 대비	0.4%	0.4%	0.1%	In-line
		8월 기존주택매매	전월 대비	-1.7%	-2.0%	-1.7%	Below
	9월 11일	8월 CPI	전월 대비	0.4%	0.4	0.1%	In-line
		8월 Core CPI	전월 대비	0.2%	0.3	0.2%	Above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지수	51.0	-	51.7	-
유로존	9월 7일	9월 Sentix 투자자신뢰지수	지수	1.7	5.1	0.9	Above
독일	9월 7일	7월 산업생산	전년 대비	0.2%	-1.1%	0.0%	Below
중국	9월 8일	8월 수입	전년 대비	31.0%	28.2%	27.6%	Below
		8월 수출	전년 대비	25.9%	25.0%	23.9%	Below
	9월 9일	8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3.6%	3.8%	3.5%	Above
		8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0.8%	0.8%	0.5%	In-line
	9월 10일	8월 신규 위안화대출(누적)	십억 위안	10783.5	-	10380.0	-
		8월 총 사회융자 규모(누적)	십억 위안	24372.0	-	22250.0	-
		8월 M2	전년 대비	7.6%	-	7.7%	-
일본	9월 8일	7월 명목 임금 상승률	전년 대비	3.8%	4.70%	4.0%	Above
	9월 11일	8월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7.4%	7.6%	7.2%	Abov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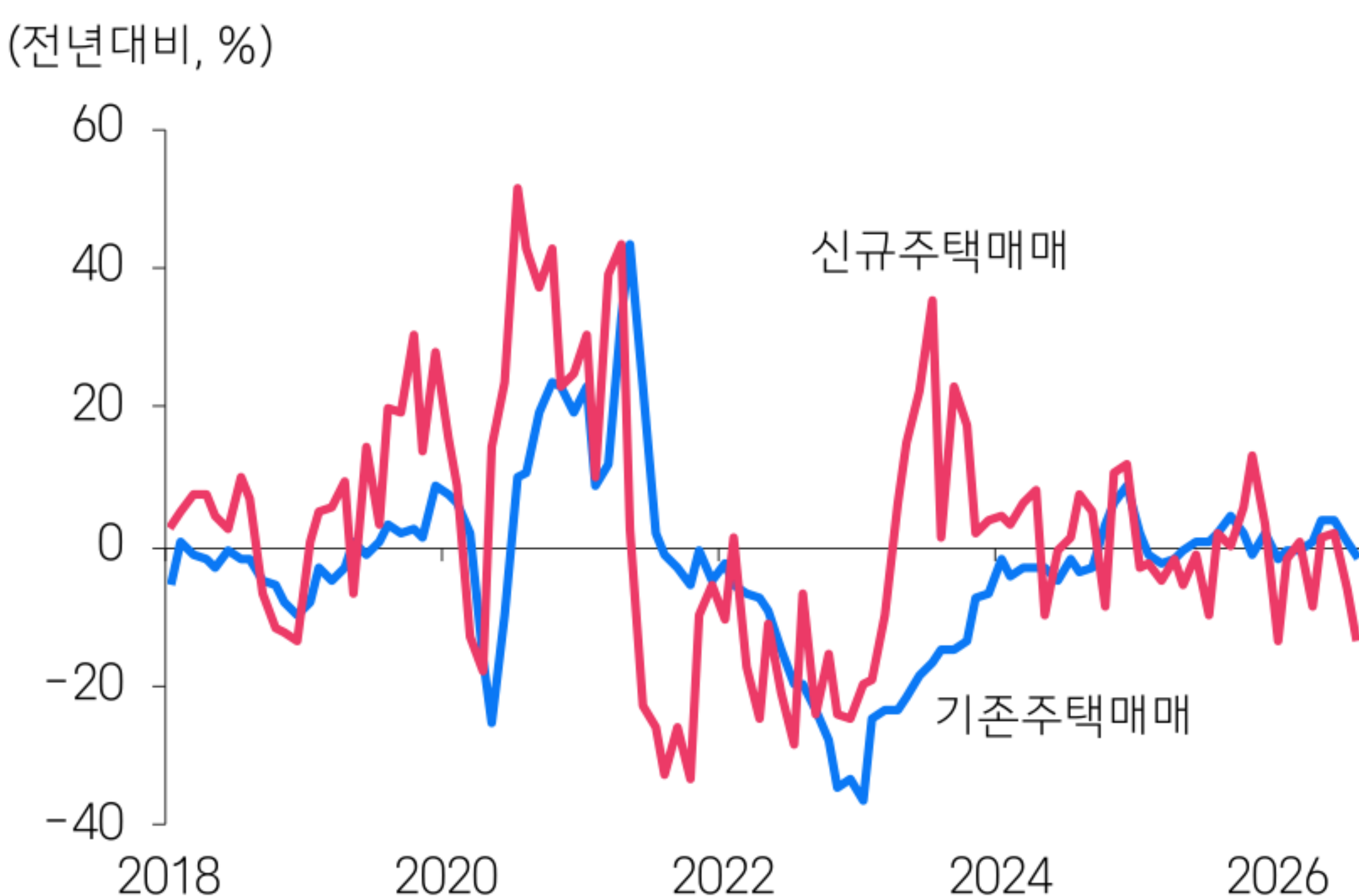
>> 금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미국 headline 및 core P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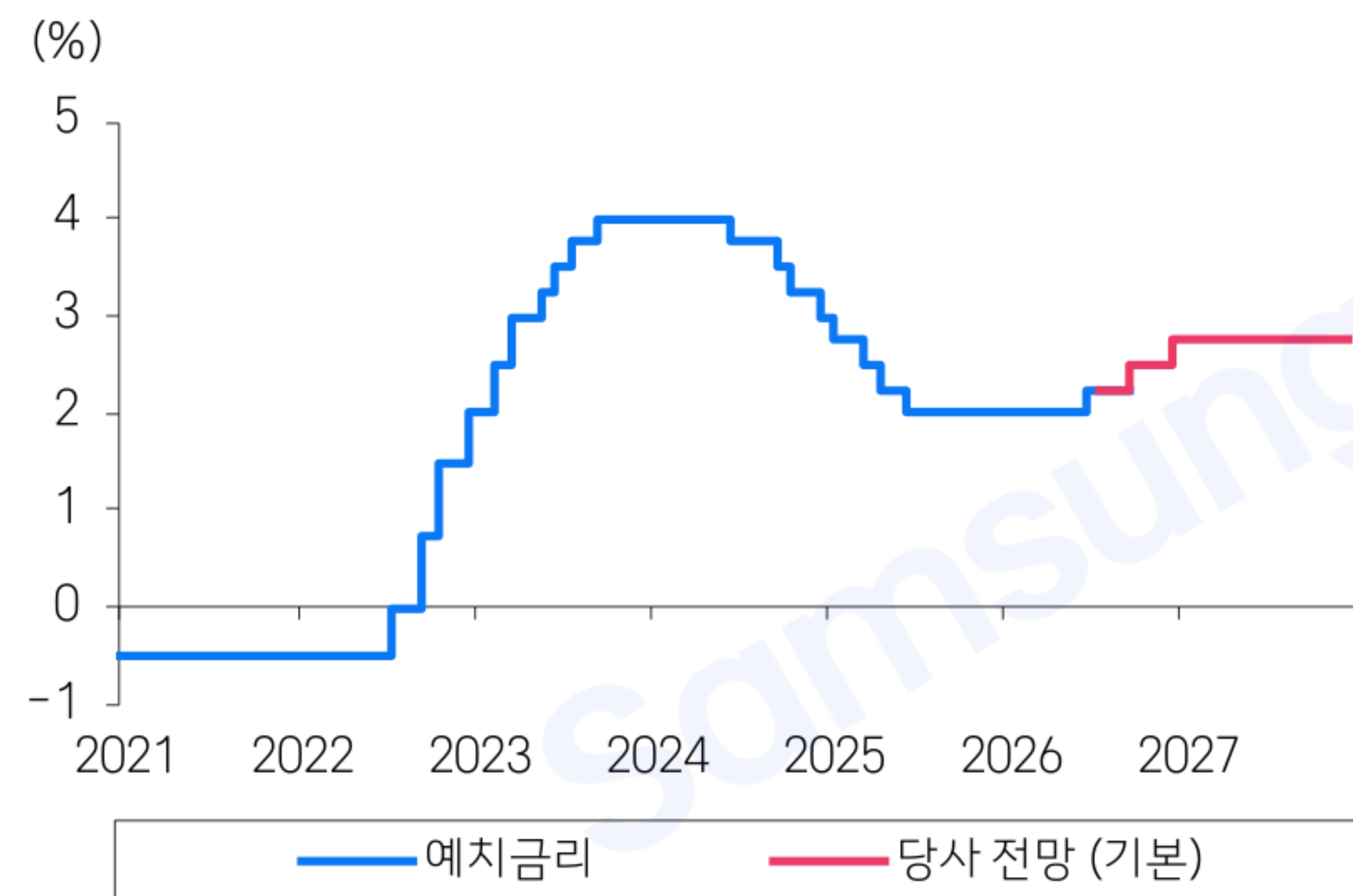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기존주택매매 vs. 신규주택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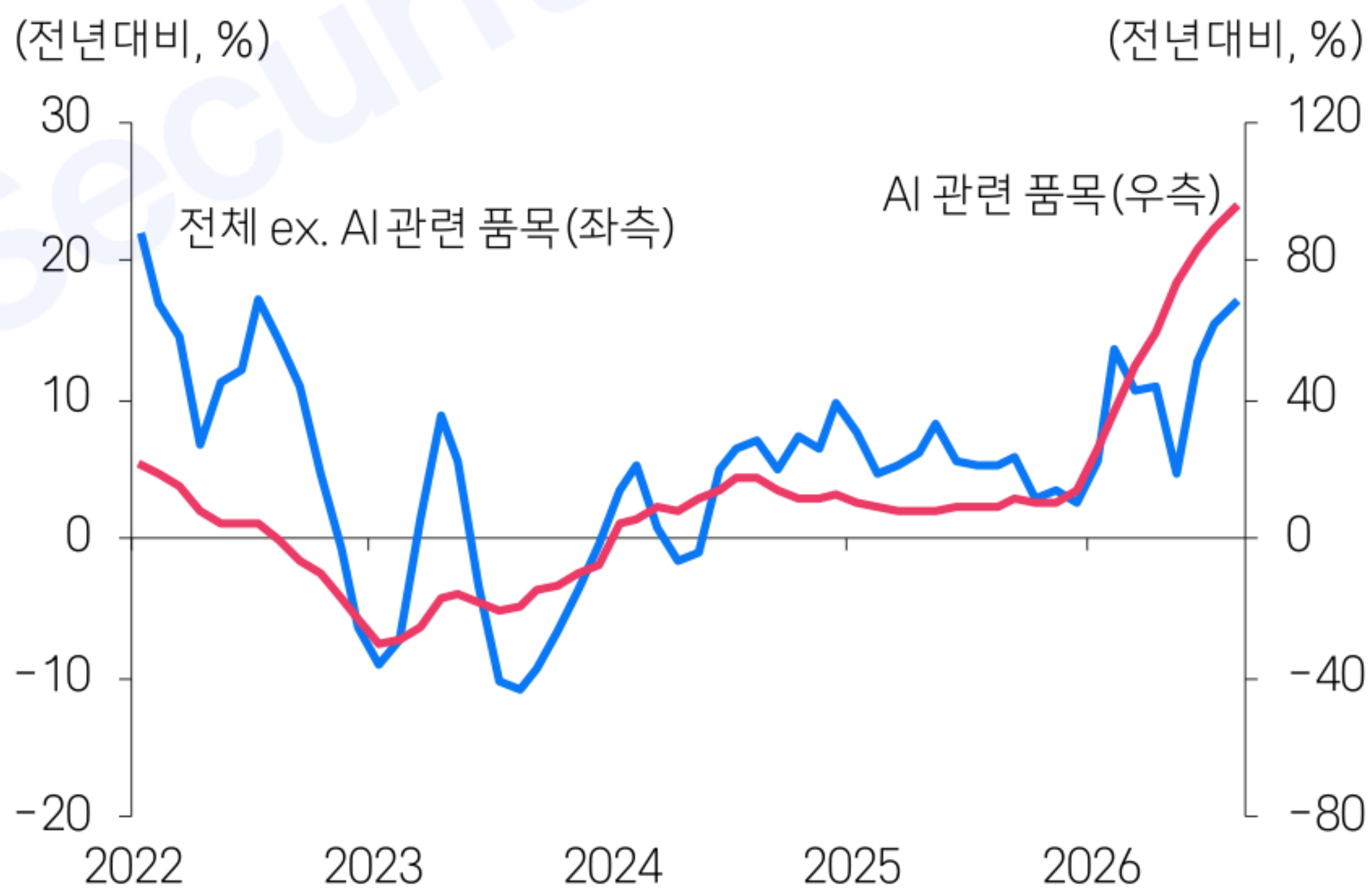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ECB 정책금리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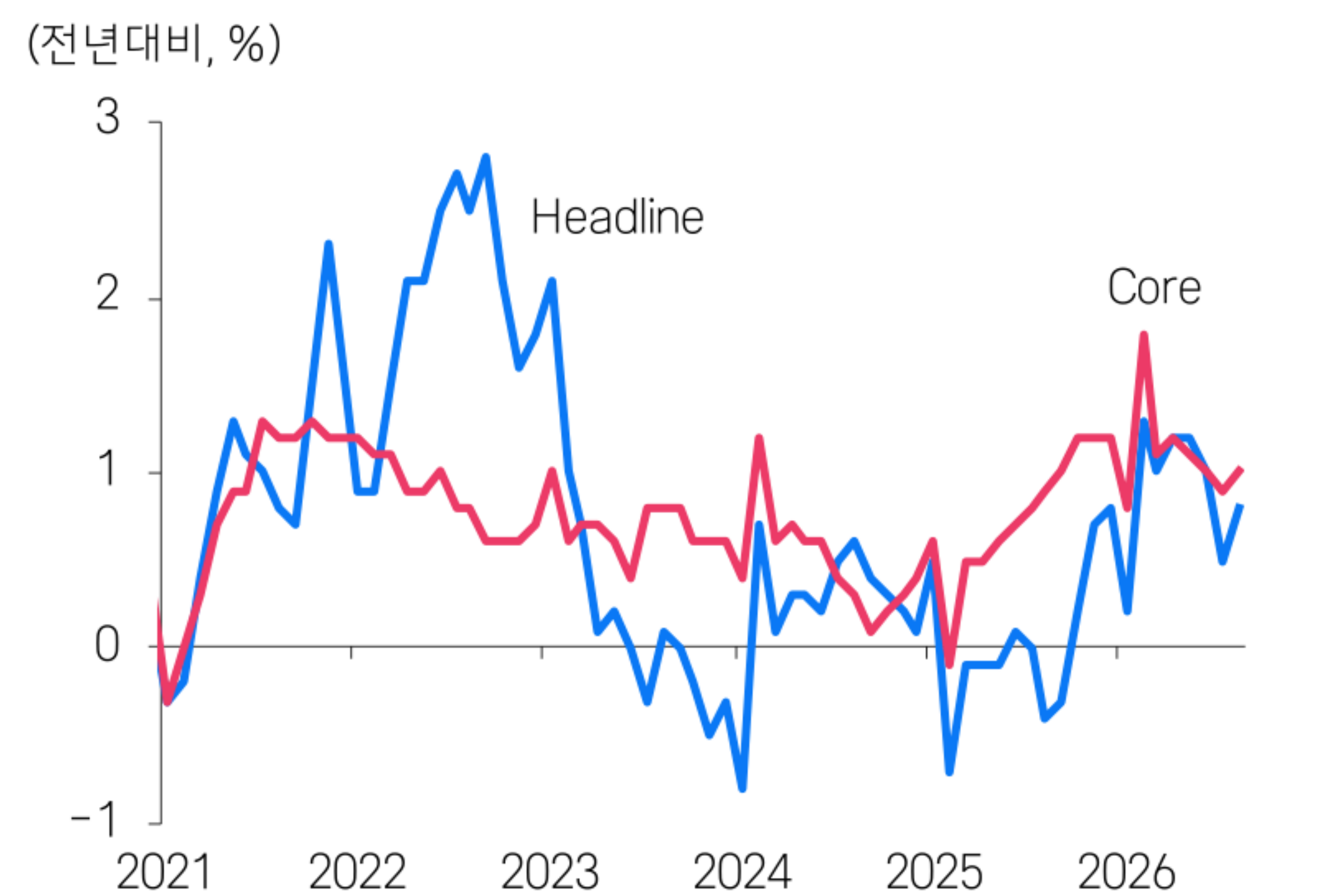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entral Bank, 삼성증권

중국 수출 증가 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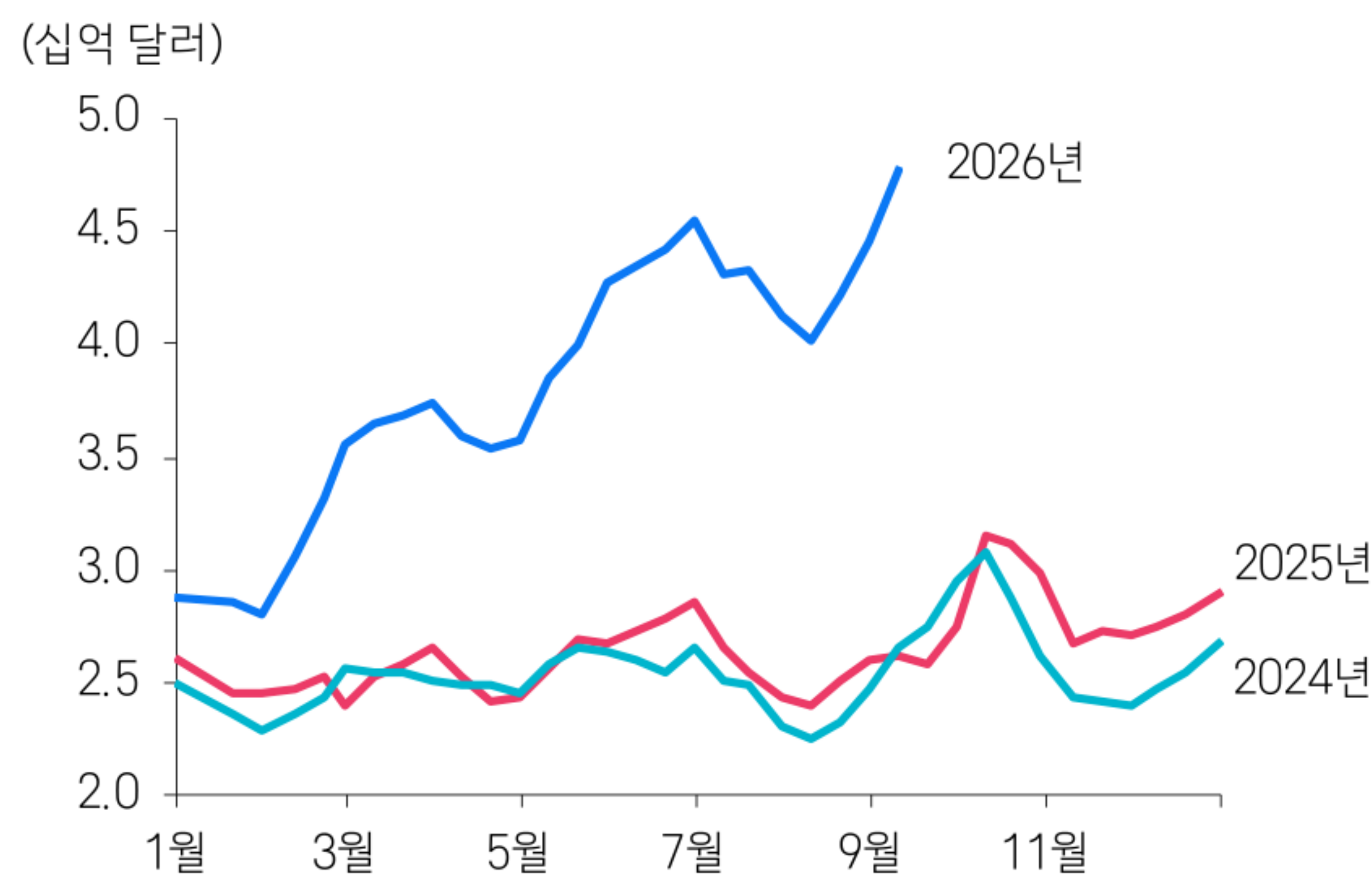
참고: AI 관련 품목은 반도체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의 합
자료: 중국 해관총서, 삼성증권

중국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상승세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한국 일평균 수출 추이



자료: 관세청, 삼성증권

금융시장 동향 (9월 14일 8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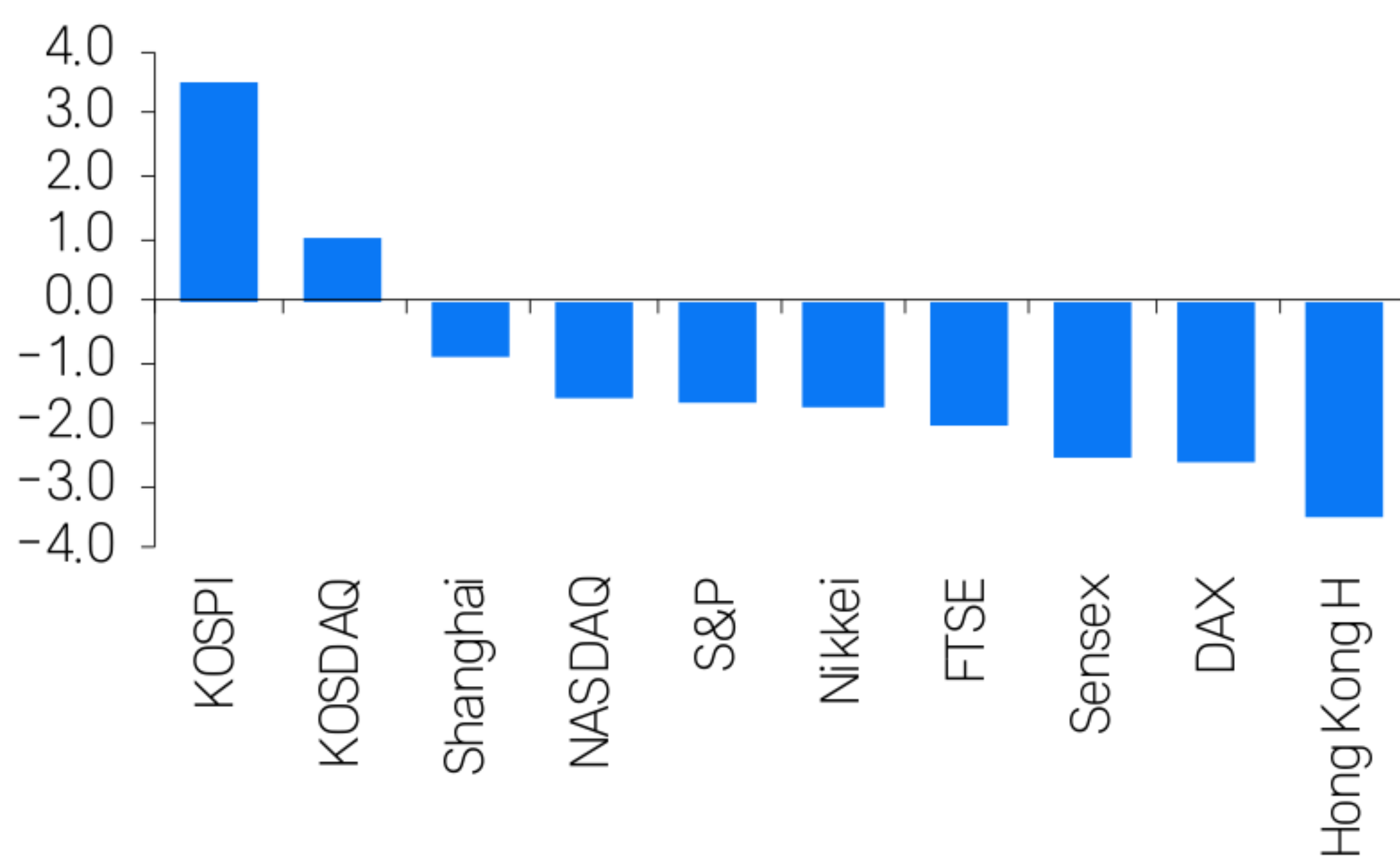
주식시장: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약세를 나타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간 영향이었다. S&P 500은 전주 대비 -0.8%, 나스닥은 -0.7%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는 주중에 계속 약세를 나타냈으나, 주 후반 미국 핵심 CPI 발표 이후 Fed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한국 증시는 오픈 AI의 Astra 발표 이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주 중반부터 고유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하방 압력이 강화되면서 약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주 대비 -1.2%, 코스닥은 -0.2%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 증시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미국 물가지표 경계감에 약세를 보였으며(상해종합 전주 대비 -1.1%, 홍콩 H 지수 -2.2%), 유럽 증시도 독일 DAX가 -1.7%, 프랑스 CAC40이 -1.5%를 기록하면서 부진했다.

외환시장: 이번 주 달러 인덱스는 99.2 부근에서 보합을 기록했다.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결과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재정 우려를 가중시킨 점이 달러 상방을 제한했으나, WTI 국제유가가 \$100를 상회하고 8월 미국 주요 물가지표가 잇따라 시장예상을 상회하면서 금융시장의 9월 FOMC 금리 인상 전망이 부각된 영향이었다. 한편, 이번 주 엔/달러 환율은 156.3엔에서 153.8엔으로 하락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강도 높은 개입성 발언 이후 BOJ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 베센트 장관은 "(엔화에 개입할 때) BOJ와 일본 정책당국이 무엇을 할지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다(...have pretty good insight into what the BOJ is going to do...)"고 언급했다. 이번 주 달러 대비 엔화는 +0.4%, 원화 +0.2%, 유로화 -0.3%, 위안화는 강보합, 파운드는 약보합을 기록했다.

원자재: 이번 주 글로벌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WTI: \$91.5 → \$100.0, 브렌트: \$96.3 → \$104.6).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통제권을 두고 교전을 이어가고, 미국이 이란의 유조선을 파괴하면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이란과 중동 지역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운항 관련 논의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한편,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9.1만 배럴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시장 예상(-155.4만 배럴, Refinitiv)은 상회했다.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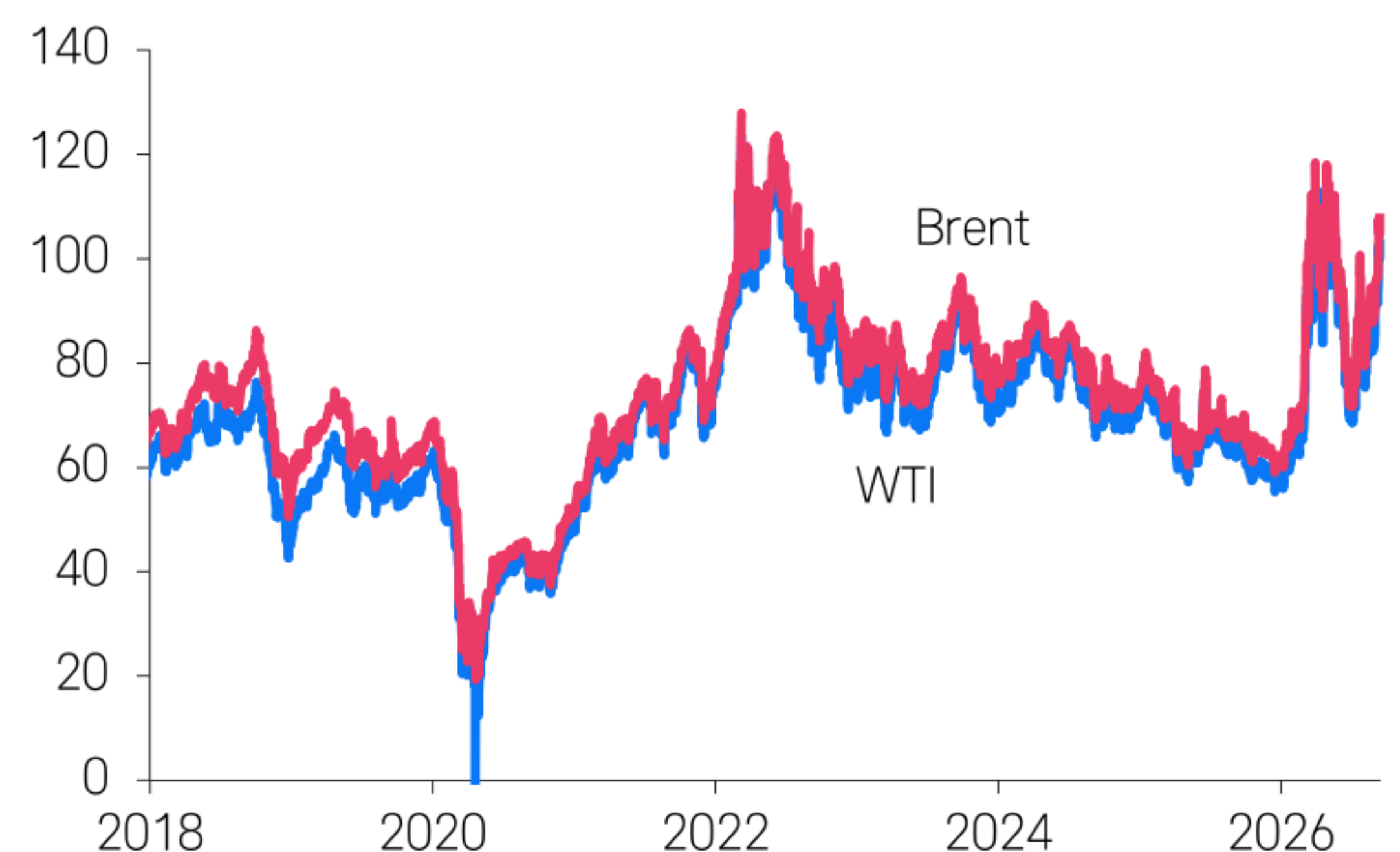
(전주대비, %)



참고: 9월 14일 7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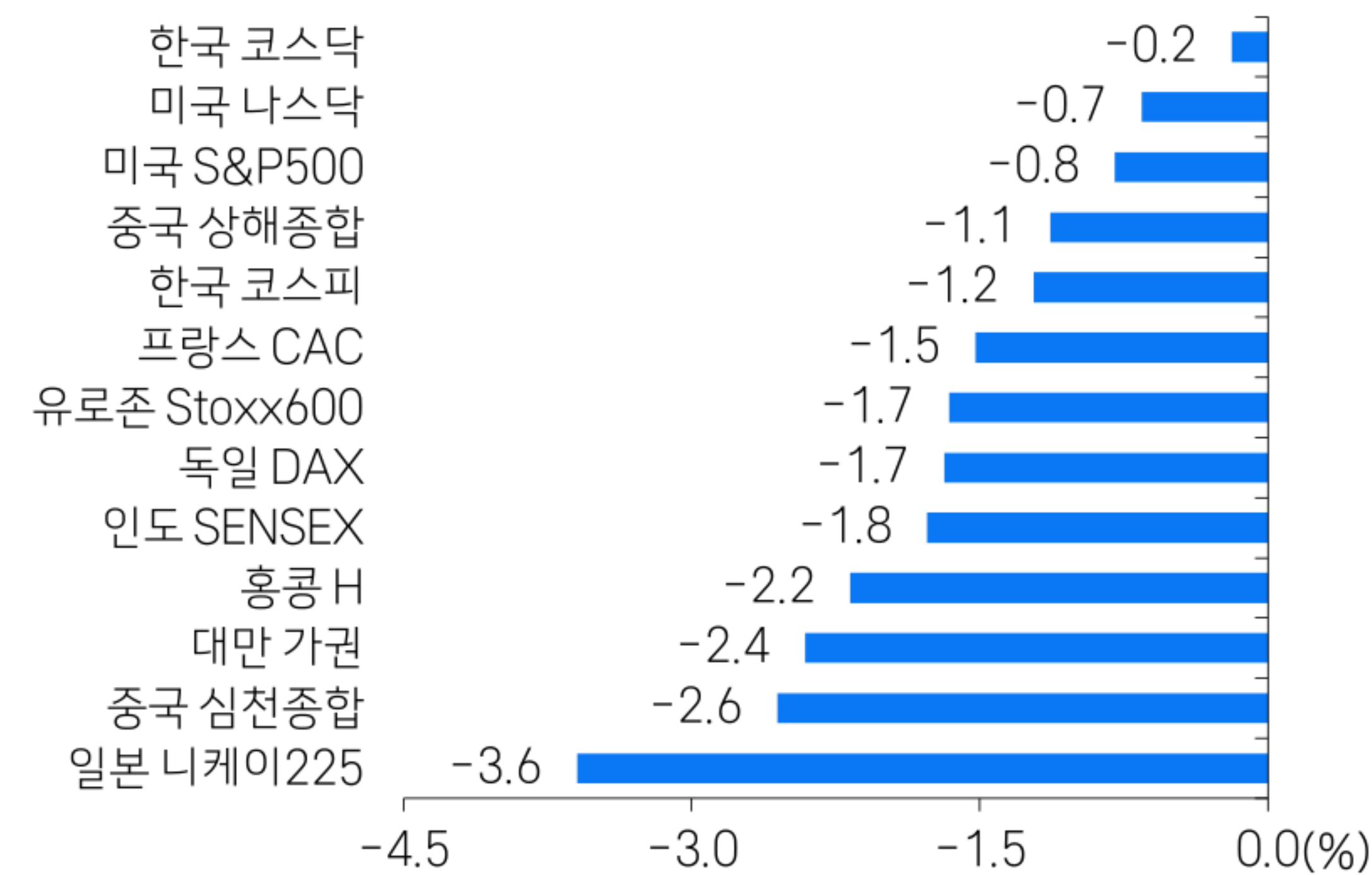
(달러/배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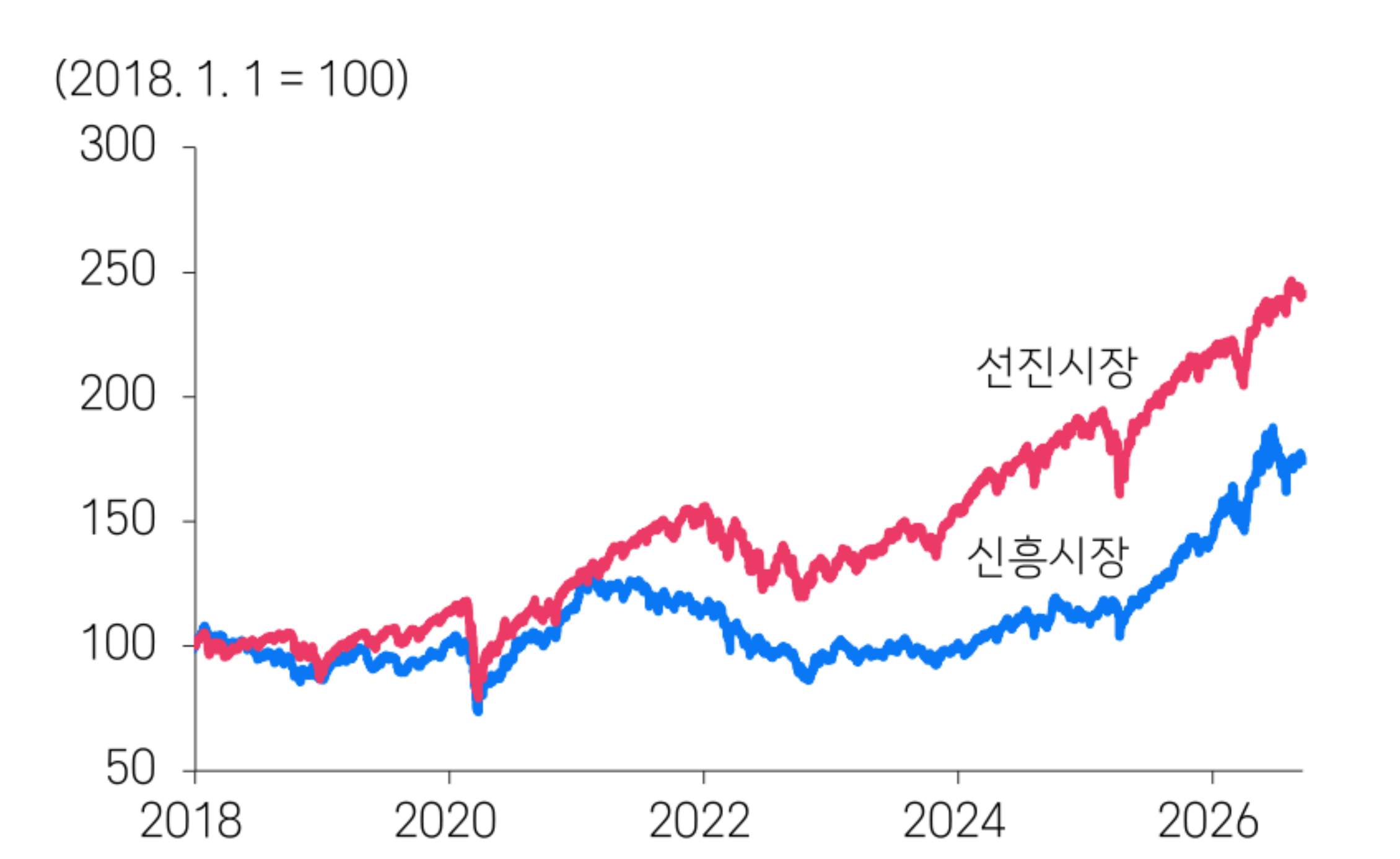
>>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증시 performance (전주 말 대비)



참고: 9월 14일 7시 기준
자료: Bloomberg

MSCI 선진 시장 vs. 신흥 시장 (Local Currency)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 수익률 변화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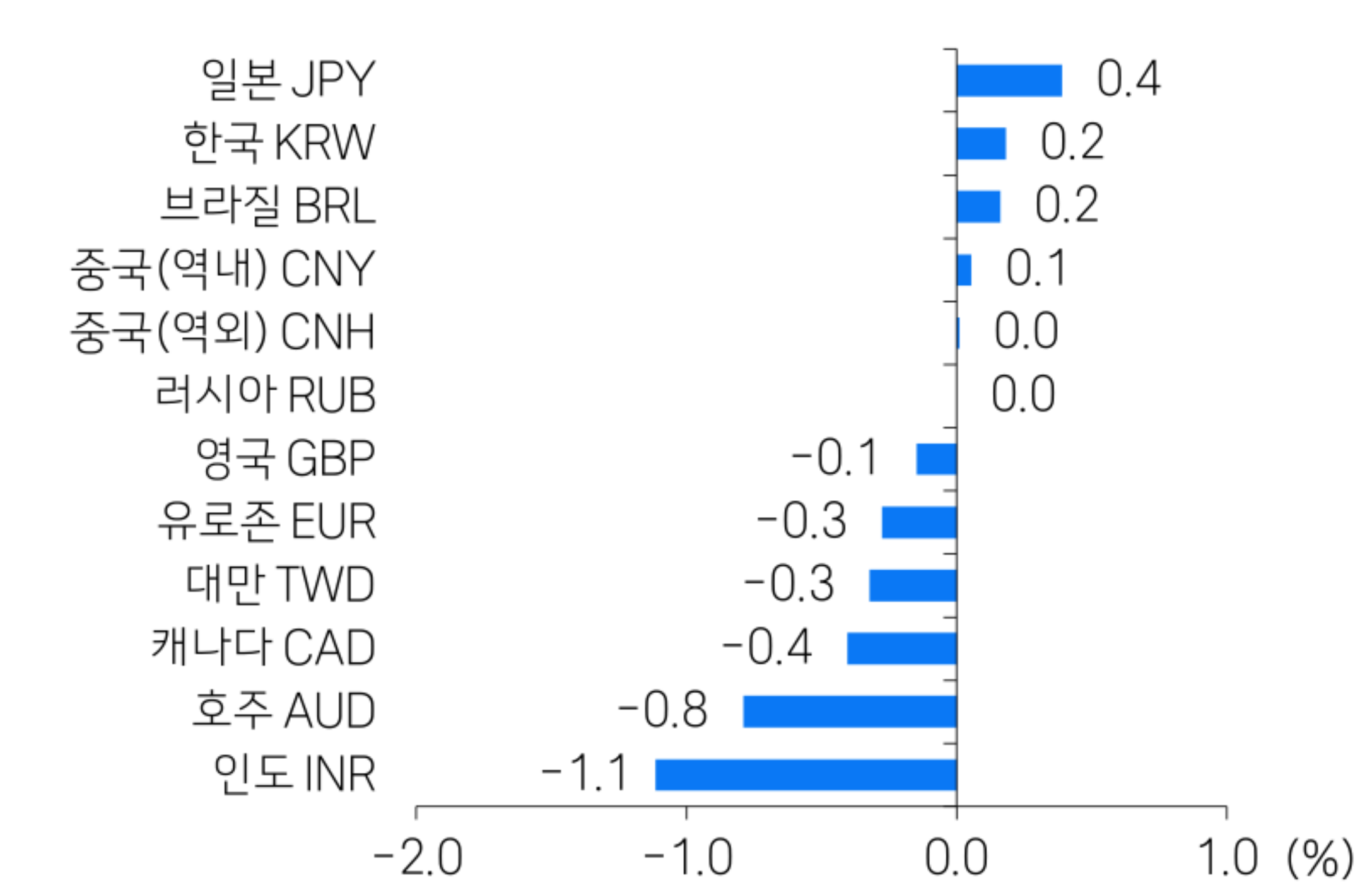
참고: 9월 14일 7시 기준
자료: Bloomberg

한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절상률 (전주 말 대비)



참고: 9월 14일 7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 유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정책 update

국가명	정책 금리 (%)	직전 (%)	통화정책 변화일	정책 금리 변화 (bps)		변화 내용
				3개월	1년	
주요국						
미국	3.50~3.75	3.75~4.00	25.12.10	0	(75)	7월 FOMC에서 Fed는 금리를 동결.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워시 의장이 “6월 FOMC 이후 지난 6주간 국채시장에서 명목과 실질 금리가 모든 커브 구간에 걸쳐 크게 상승하면서 금융 여건이 타이트해졌다. 이는 우리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준다”는 발언. 이는 이전 옐런-파월 의장도 반복해서 주장했던 “금융 여건의 악화(타이트닝)는 금리인상을 대체한다”는 Fed의 전통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현시점에서는 9월 금리인상의 시급성/필요성이 약화되었다는 dovish한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
유로존	2.50	2.25	26.09.10	25	50	ECB,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금리 25bp 인상.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린 결정임. ECB는 중동 분쟁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야기하고 있고,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힘.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위험이 있고, 경제 성장은 하락할 위험이 있다며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임을 강조함
한국	3.00	2.75	26.08.27	50	50	한국은행, 8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를 25bp 인상. 다만, 인상 사실과 경제전망 대폭 상향 조정을 제외하면 나머지 내용은 모두 dovish. 황건일 금통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냈고, 점도표가 암시하는 기준 금리 인상폭도 향후 6개월 내 한 차례 추가 인상. 신현송 총재는 선제 대응이 기대인플레를 조기에 안정시켜 향후 긴축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힘
일본	1.00	0.75	26.06.16	25	50	일본은행,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1.00% 동결.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총재는 '일본 경제가 BOJ의 전망에 부합한다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다만, 성장 전망은 상하방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물가 전망은 상방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 그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기초적인 물가가 2%를 상회할 경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임
영국	3.75	4.00	25.12.18	0	(25)	BOE, 7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 BOE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임금, 가격 전이가 아직 제한적이고 기초적 디스인플레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해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비둘기에 가까웠던 것으로 평가
중국	1.40	1.50	25.05.08	0	0	중국 인민은행은 3월 양회에서 “적절히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면서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또한, 정책 금리 및 기준율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힘. 다만, “사회의 종합적인 용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문구를 “...용자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변경
기타 지역						
멕시코	6.50	6.75	26.05.07	0	(125)	멕시코 중앙은행,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서, '27년 4분기에 인플레 목표치 3%에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
인도	5.25	5.50	25.12.05	0	(25)	인도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으며, FY27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9%에서 6.6%로 하향 조정
브라질	14.00	14.25	26.08.05	(50)	(100)	브라질 중앙은행, 8월 통화정책회의에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인플레이율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통화정책을 적절한 긴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제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나, 9월 회의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 신호를 내놓지 않음
튀르키예	37.00	38.00	26.01.22	0	(350)	튀르키예 중앙은행,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6월 물가 상승의 기저 추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며, 최근 데이터는 내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힘. 또한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임
인도네시아	5.75	5.50	26.06.18	25	7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이번 결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루피아화 안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호주	4.35	4.10	26.05.05	0	75	호주 중앙은행,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긴축적인 금융여건의 영향으로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
스웨덴	1.75	2.00	25.10.01	0	(25)	스웨덴 중앙은행,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시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2029년까지 2.2%로 점진적 인상 전망
스위스	0.00	0.25	25.06.19	0	0	스위스 중앙은행,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중동 분쟁으로 인해 원자재 및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나,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지 않았으며 1분기 GDP 역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가
러시아	14.00	14.25	26.07.24	(50)	(400)	러시아 중앙은행,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단행. 중앙은행 측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졌기 때문에 향후 기준 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뉴질랜드	2.75	2.50	26.09.02	50	(25)	뉴질랜드 중앙은행,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 중앙은행 측은 물가 상승률을 내년 하반기 목표치인 2%로 안착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상하며 통화부양책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힘
캐나다	2.25	2.50	25.10.29	0	(50)	캐나다 중앙은행,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성명서를 통해 성장세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은 최근 정점에서 점차 둔화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

	9월 4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변화율							
							1 week	1 month	3 months	6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주식시장 (지수)														
KOSPI	6,687	6,995	6,955	7,052	7,034	6,911	3.3	8.9	(11.0)	23.2	106.7	175.0	170.3	64.0
미국 S&P 500	7,719	7,719	7,674	7,636	7,592	7,592	(1.6)	(1.8)	2.7	12.0	15.2	36.7	69.2	10.9
일본 NIKKEI 225	65,021	66,400	65,269	65,143	65,271	63,972	(1.6)	(4.5)	(0.4)	16.3	44.2	79.6	97.0	27.1
영국 FTSE	10,831	10,822	10,812	10,670	10,609	10,609	(2.1)	(2.2)	3.0	2.5	14.1	29.5	41.5	6.8
독일 DAX	26,046	26,007	26,008	25,576	25,361	25,361	(2.6)	(3.9)	4.8	7.3	7.0	38.4	60.5	3.6
중국 상해종합	3,930	3,933	3,941	3,952	3,934	3,891	(1.0)	(1.1)	(2.4)	(5.9)	0.4	42.9	23.8	(2.0)
홍콩 H	8,555	8,430	8,397	8,369	8,275	8,253	(3.5)	(3.2)	0.4	(5.2)	(10.9)	38.0	31.0	(7.4)
인도 Sensex	76,515	76,133	75,578	74,764	74,903	74,561	(2.6)	(4.6)	1.0	(3.0)	(8.6)	(8.5)	11.1	(12.5)
인도네시아 JCI	6,636	6,620	6,686	6,678	6,589	6,491	(2.2)	3.6	10.3	(12.2)	(16.2)	(16.4)	(6.8)	(24.9)
브라질 iBovespa	185,147	185,147	187,367	185,629	188,269	188,269	1.7	12.1	9.8	2.3	31.5	39.8	61.1	16.8
MSCI World (USD)	4,987	4,995	4,966	4,938	4,906	4,906	(1.6)	(1.8)	3.4	10.8	15.3	37.1	65.2	10.7
MSCI EM (USD)	1,726	1,757	1,752	1,755	1,745	1,745	1.1	4.8	4.8	15.1	33.2	64.8	78.5	24.2
채권금리 (%)														
한국 국채 3년	3.89	3.90	3.90	3.91	3.93	3.93	4	13	2	68	152	111	7	98
한국 국채 10년	4.35	4.39	4.40	4.40	4.46	4.46	11	16	14	84	164	152	50	107
미국 국채 2년	4.37	4.37	4.39	4.43	4.59	4.56	20	35	50	91	102	92	(43)	109
미국 국채 10년	4.78	4.78	4.79	4.84	4.96	4.95	17	26	49	72	93	130	66	78
일본 국채 10년	2.92	2.93	2.90	2.89	2.92	2.99	7	16	30	81	140	213	228	92
독일 국채 10년	3.34	3.39	3.37	3.44	3.50	3.52	18	36	48	58	86	140	88	66
중국 국채 10년	1.68	1.68	1.69	1.68	1.68	1.69	0	(2)	(7)	(14)	(12)	(43)	(98)	(17)
인도 국채 10년	6.96	6.96	6.94	6.96	6.96	7.02	6	24	10	38	55	19	(23)	44
인도네시아 국채 10년	7.12	7.11	7.11	7.10	7.11	7.17	5	(7)	(28)	46	79	58	57	110
브라질 국채 10년	14.32	14.32	14.13	14.33	14.25	14.25	(8)	(37)	(22)	43	44	238	296	51
JPMEMBI Global	218.4	218.4	218.4	218.4	218.4	218.4	0	(1)	(3)	(12)	(46)	(133)	(134)	(13)
장단기 금리차 (%)														
미국 국채 10년-2년	0.42	0.42	0.39	0.41	0.38	0.39	(3)	(9)	(1)	(19)	(9)	37	109	(31)
일본 국채 10년-2년	1.07	1.08	1.05	1.04	1.09	1.14	7	(6)	(12)	23	43	68	47	26
독일 국채 10년-2년	0.39	0.38	0.37	0.37	0.27	0.28	(11)	(9)	(7)	(28)	(39)	32	74	(45)
중국 국채 10년-2년	0.42	0.43	0.43	0.41	0.43	0.43	1	(1)	(1)	(1)	8	(22)	13	(2)
한국 국채 10년-3년	0.47	0.49	0.50	0.49	0.53	0.53	6	3	12	17	13	41	43	9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 금융시장 동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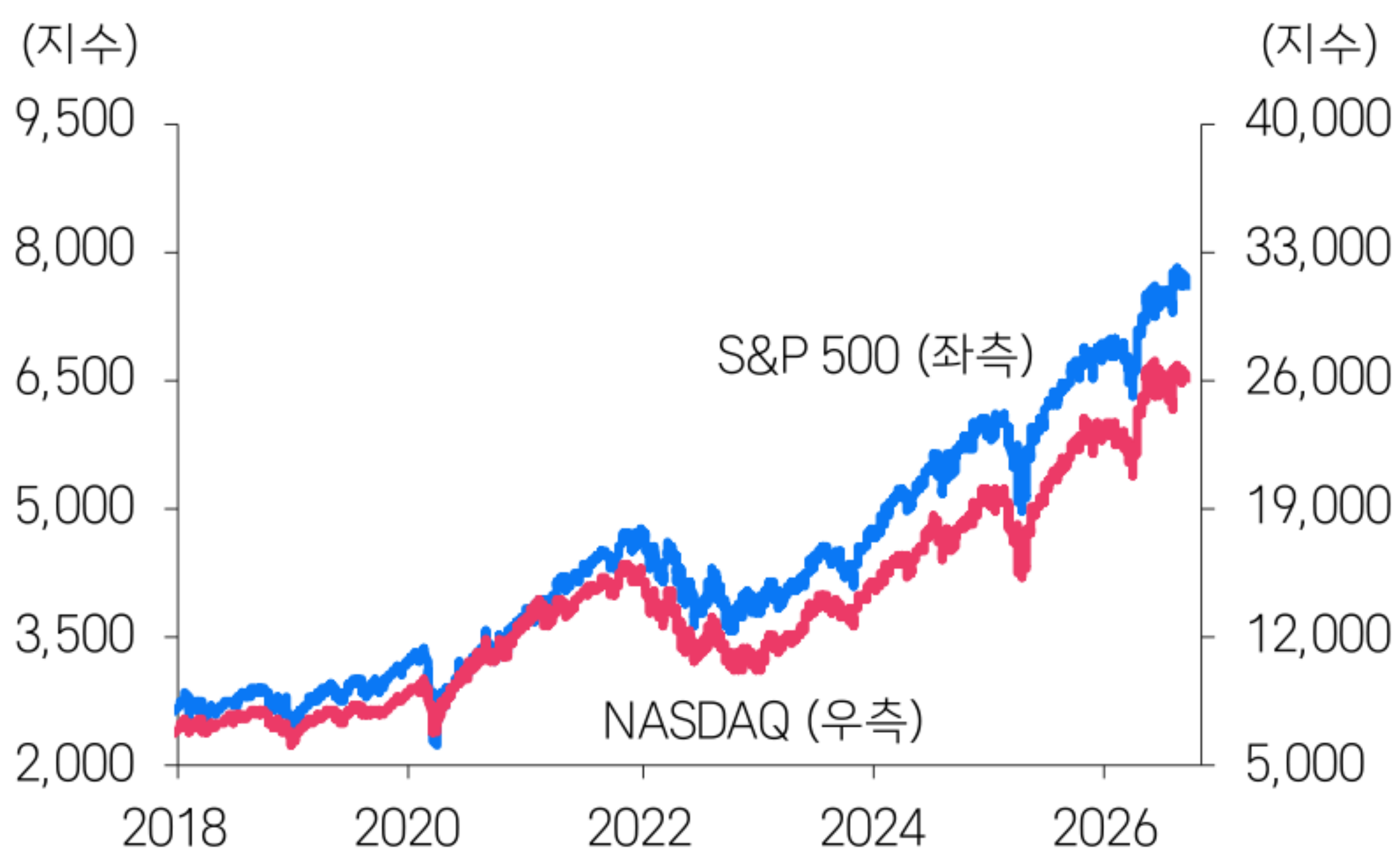
	9월 4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변화율 (% , bps)							YTD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CDS Premium (bps)														
미국 (5년)	36.5	36.5	36.5	36.5	36.5	36.5	0	(1)	(6)	(2)	(3)	1	(12)	7
일본 (5년)	16.0	16.0	16.0	16.0	16.0	16.0	0	(1)	(1)	1	4	3	3	1
독일 (5년)	21.6	21.6	21.6	21.6	21.6	21.6	0	(2)	(2)	(5)	3	(12)	(9)	(0)
중국 (5년)	3.5	3.5	3.5	3.5	3.5	3.5	0	(0)	(1)	0	(1)	(2)	(8)	(0)
한국 (5년)	35.0	35.0	35.0	35.0	35.0	35.0	0	(2)	(5)	(11)	(5)	(27)	(37)	(9)
인도네시아 (5년)	85.3	85.3	85.3	85.3	85.3	85.3	0	(4)	(12)	(3)	15	13	5	17
브라질 (5년)	118.9	118.9	118.9	118.9	118.9	118.9	0	(4)	(6)	(9)	(9)	(35)	(51)	(19)
멕시코 (5년)	79.9	79.9	79.9	79.9	79.9	79.9	0	(2)	(4)	(10)	(7)	(32)	(23)	(10)
상품가격														
CRB지수	416.4	416.4	419.6	423.1	429.2	429.2	3.1	9.9	16.1	20.9	42.9	59.3	49.9	43.6
WTI (달러/배럴)	91.5	91.5	93.0	96.1	102.5	100.9	10.3	21.3	15.1	15.7	61.8	50.0	15.6	75.8
두바이유 (달러/배럴)	100.2	100.2	105.1	109.7	116.4	116.4	16.2	37.7	31.2	2.5	66.7	61.9	27.4	87.7
LME 구리 (달러/톤)	14,416	14,510	14,709	14,768	14,234	14,234	(1.3)	0.5	5.6	9.1	41.6	56.6	69.4	14.6
금 (달러/oz)	4,430	4,404	4,356	4,399	4,318	4,352	(1.8)	(0.4)	3.3	(15.9)	19.8	73.3	126.4	0.8
은 (달러/oz)	66.21	66.16	65.75	67.29	63.60	64.04	(3.3)	(1.0)	(4.8)	(25.3)	54.1	123.3	177.5	(10.6)
옥수수 (센트/부셸)	512.0	512.0	511.0	507.8	514.0	514.0	0.4	17.7	24.8	15.7	28.8	35.1	9.1	16.8
소맥 (센트/부셸)	716.0	716.0	730.3	711.3	723.3	723.3	1.0	14.8	23.3	22.9	43.8	28.3	30.1	42.7
달러화 대비 환율														
한국 원화	1,352	1,347	1,343	1,340	1,348	1,346	0.4	5.0	13.8	9.7	3.2	(0.4)	(1.1)	7.0
일본 엔화	156.26	154.36	153.98	153.56	154.42	154.06	1.4	3.4	3.8	3.2	(4.4)	(7.6)	(4.8)	1.7
유로화	1.161	1.162	1.162	1.163	1.161	1.161	(0.0)	0.6	0.3	0.4	(1.0)	5.4	8.0	(1.1)
중국 위안화 (역내)	6.711	6.711	6.710	6.708	6.712	6.709	0.0	0.6	1.0	2.5	6.1	6.1	8.7	4.2
중국 위안화 (역외)	6.708	6.709	6.707	6.706	6.714	6.709	(0.0)	0.6	0.8	2.5	6.0	6.3	8.8	4.0
인도 루피화	94.50	94.49	94.83	95.10	95.45	95.72	(1.3)	(0.3)	0.0	(3.8)	(7.6)	(12.3)	(13.3)	(6.0)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7,637	17,640	17,630	17,513	17,539	17,614	0.1	1.3	2.2	(4.2)	(6.5)	(12.6)	(13.0)	(5.2)
브라질 헤알화	5.129	5.129	5.086	5.109	5.105	5.105	0.5	1.1	(0.2)	1.0	5.6	10.9	(3.4)	7.2
달러 인덱스	99.18	99.18	98.79	98.82	99.05	99.01	(0.2)	(0.8)	(0.8)	(0.2)	1.5	(2.6)	(5.3)	0.7
아시아 달러 인덱스	93.8	93.9	93.9	94.0	93.8	93.7	(0.2)	1.1	2.2	1.3	1.4	1.3	3.1	1.6
JPM 이머징 통화지수	46.63	46.56	46.67	46.65	46.47	46.51	(0.3)	(0.2)	(1.9)	(0.4)	1.4	2.1	(2.2)	(0.2)

참고: 9월 4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주요 금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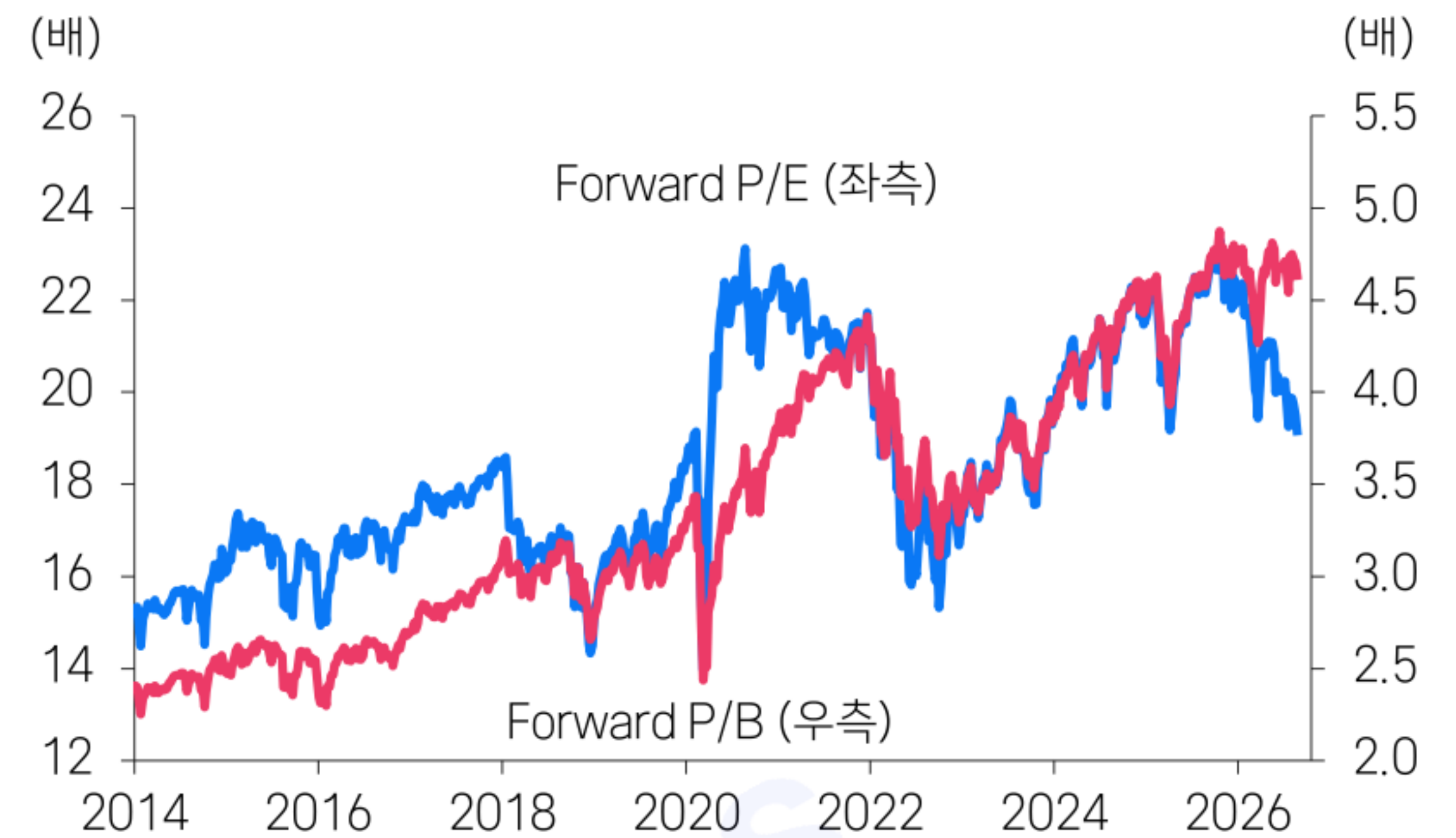
>> 미국

S&P 500과 NASDAQ 명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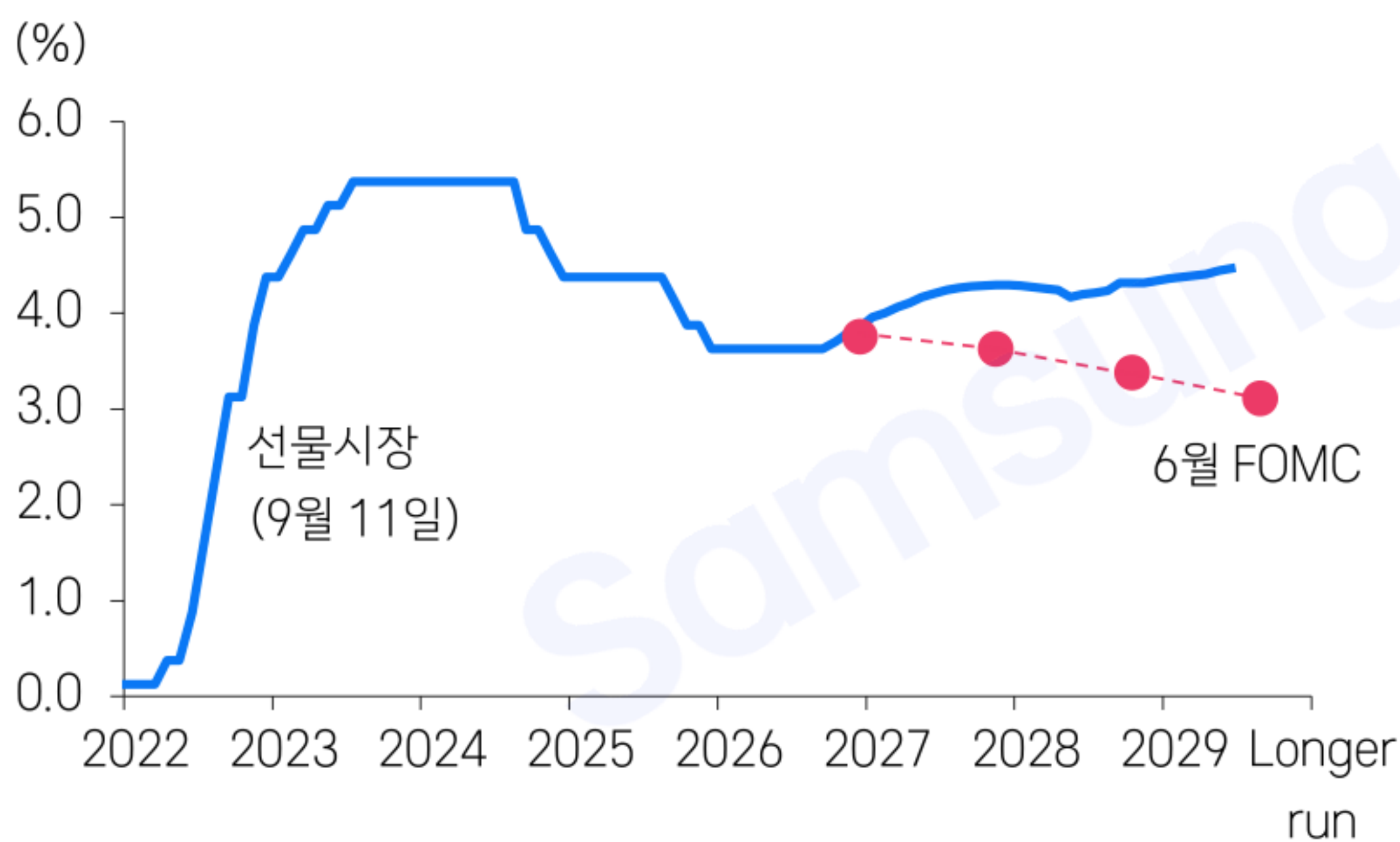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 500: Forward P/E와 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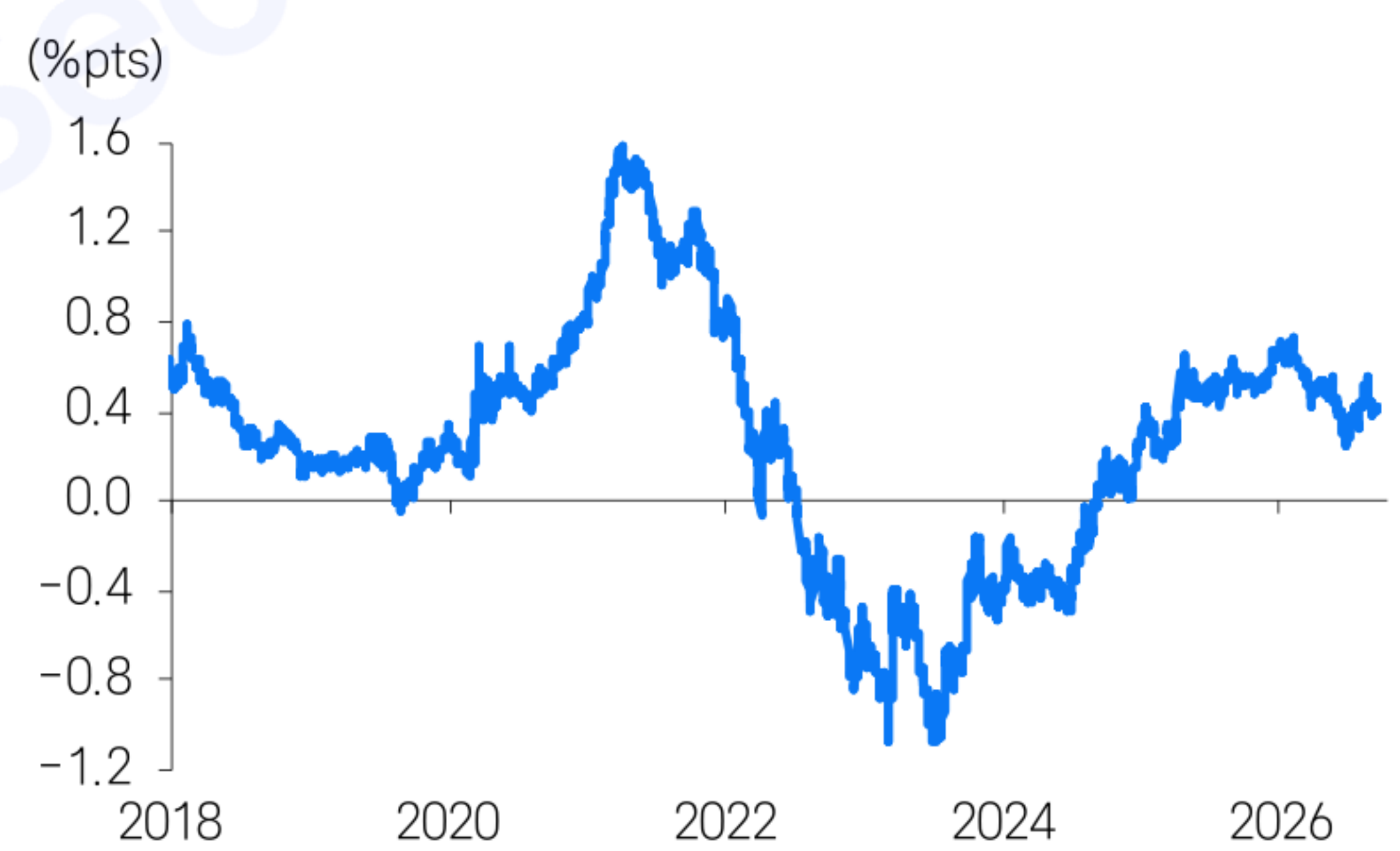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 금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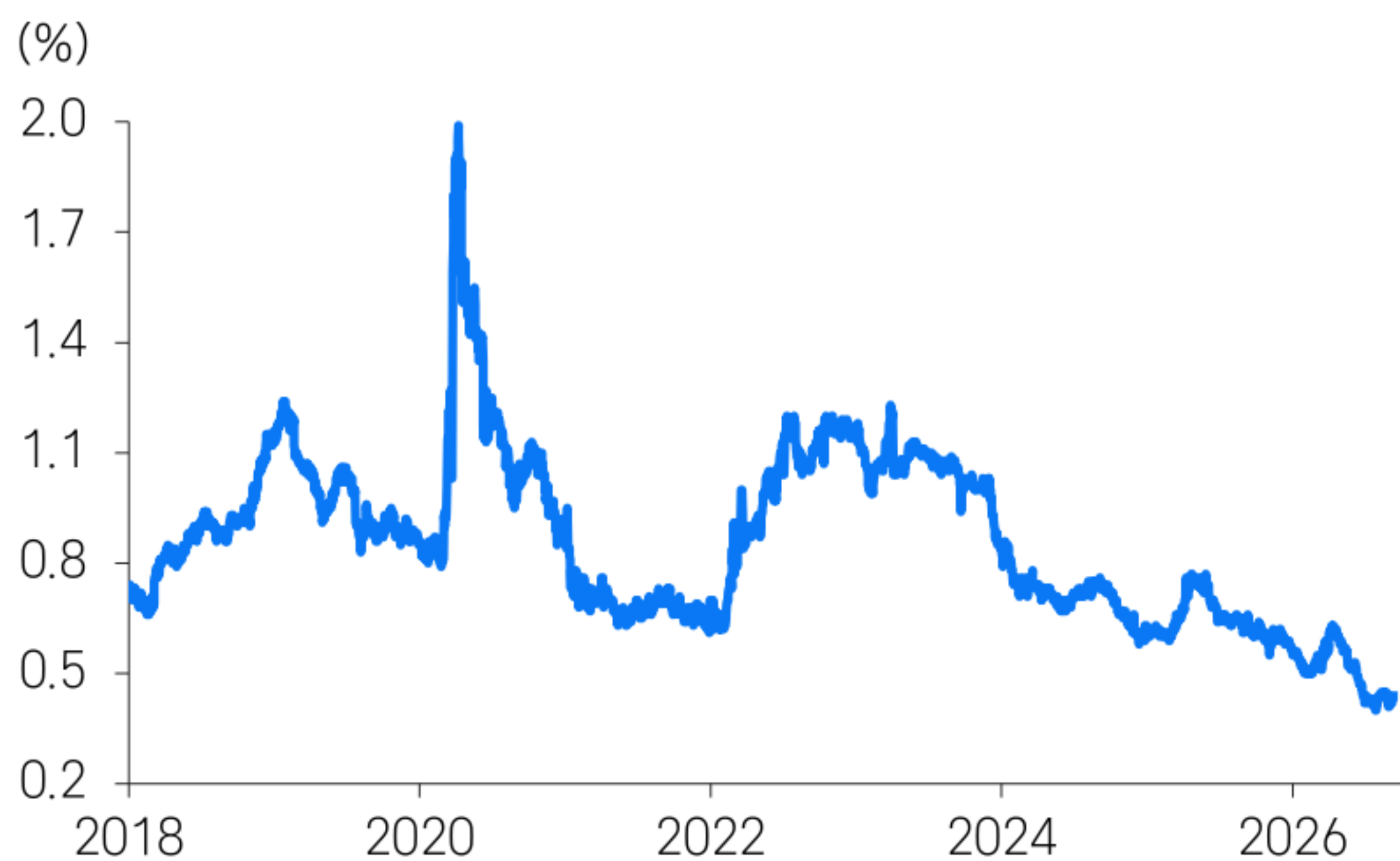
참고: 발표된 기준 금리는 목표 범위의 중간값 기입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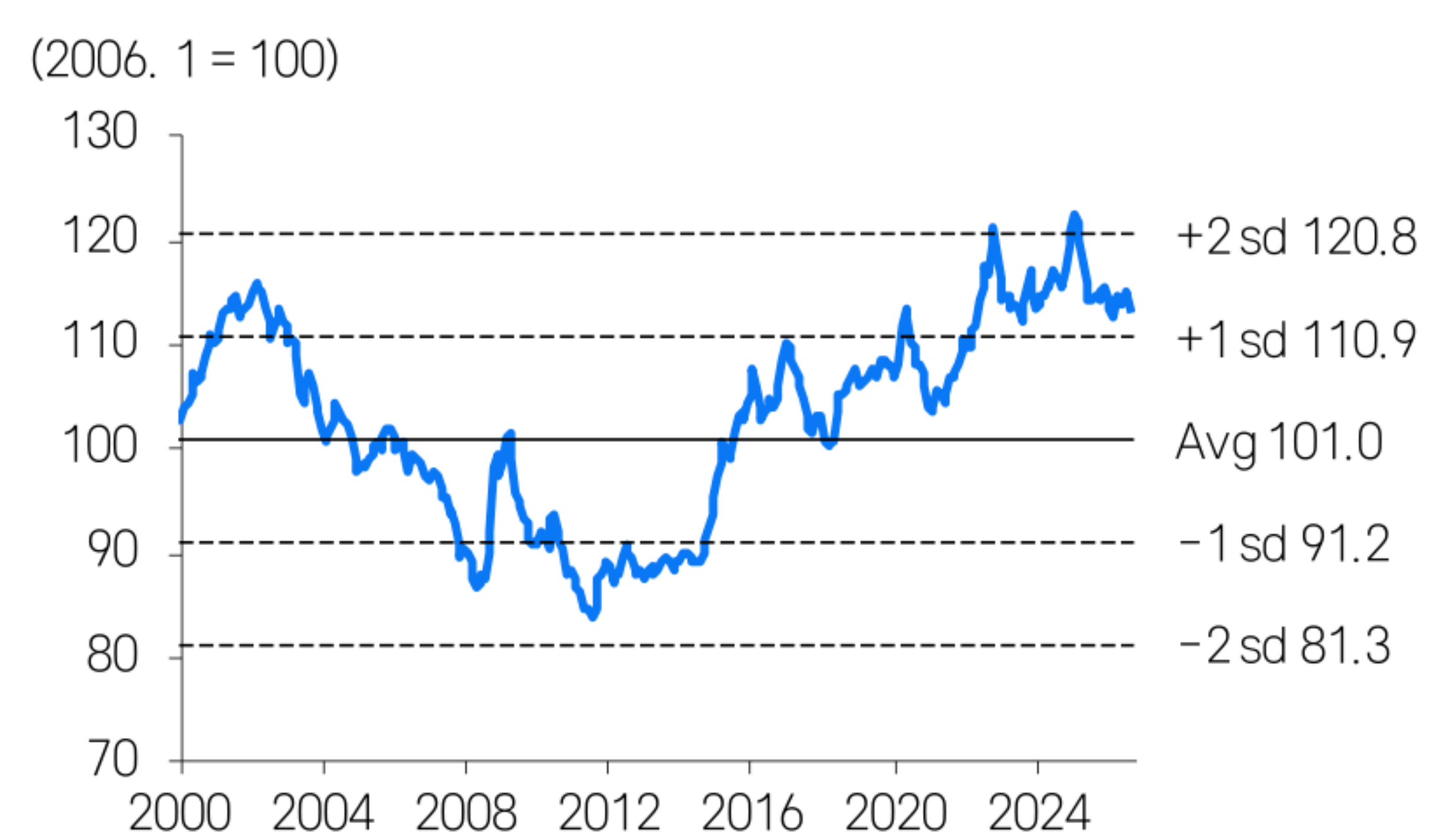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회사채 Baa - Aaa 스프레드 추이



자료: Moody'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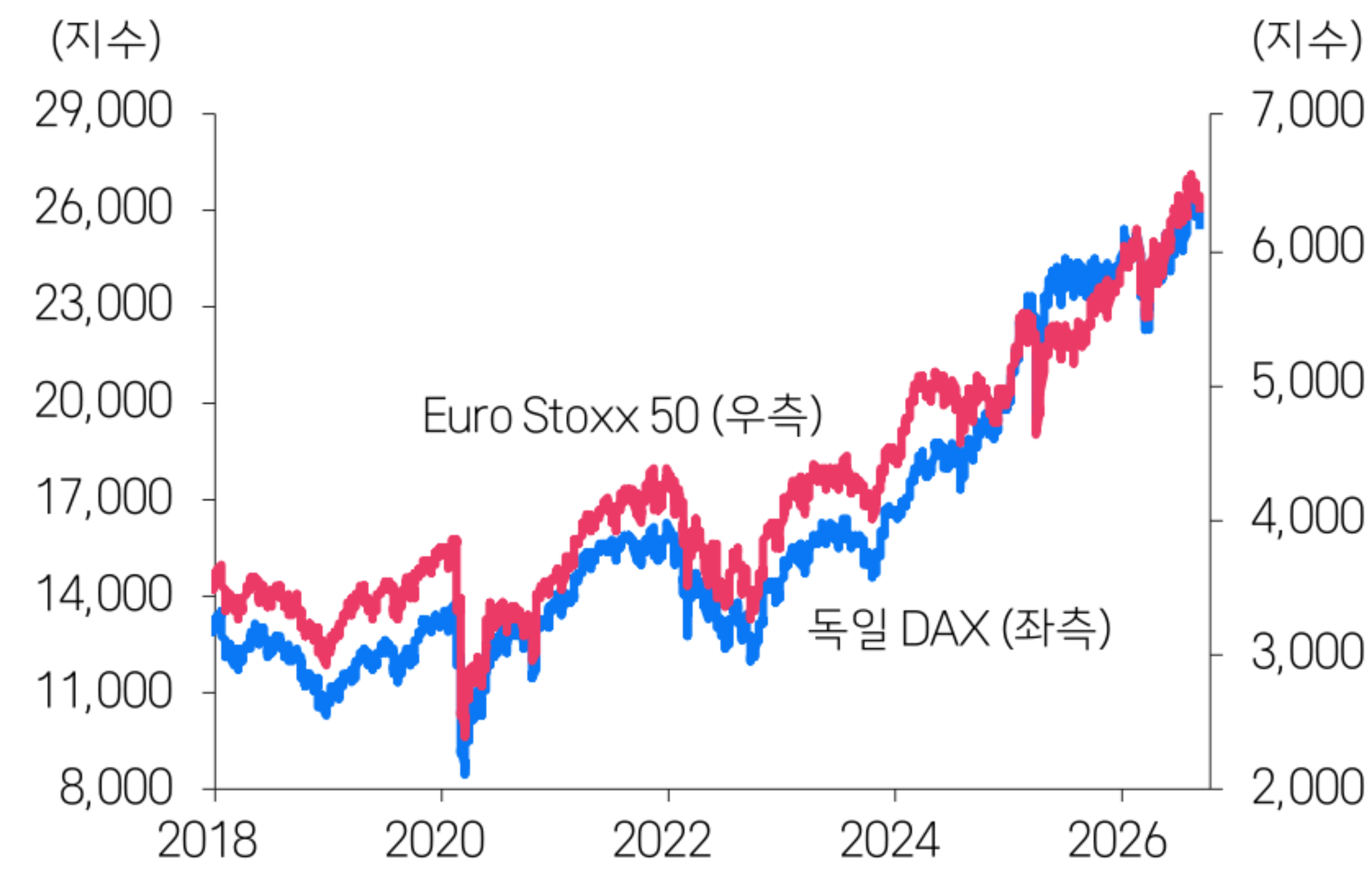
Fed 달러 지수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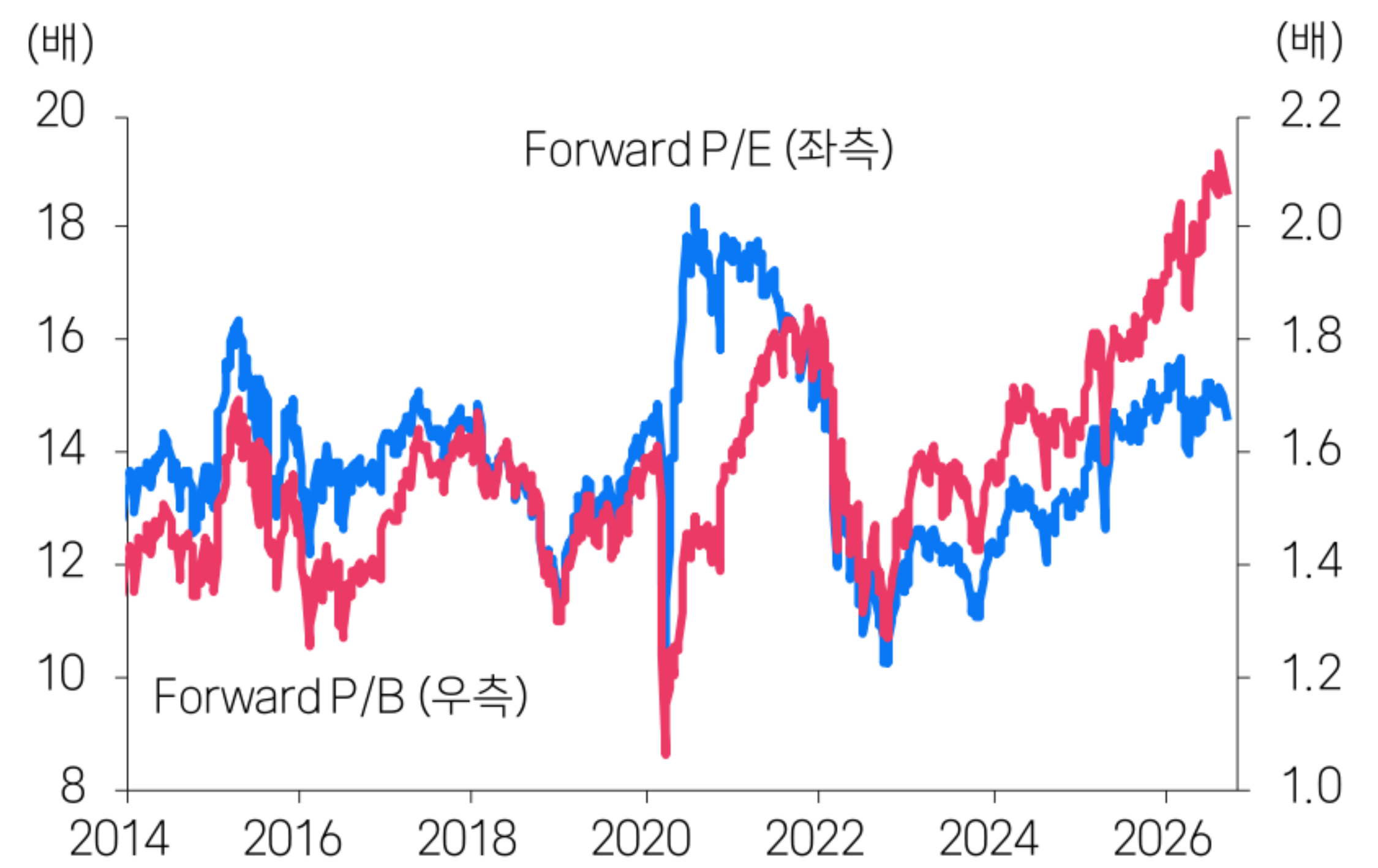
>> 유럽

독일 DAX 지수와 Euro Stox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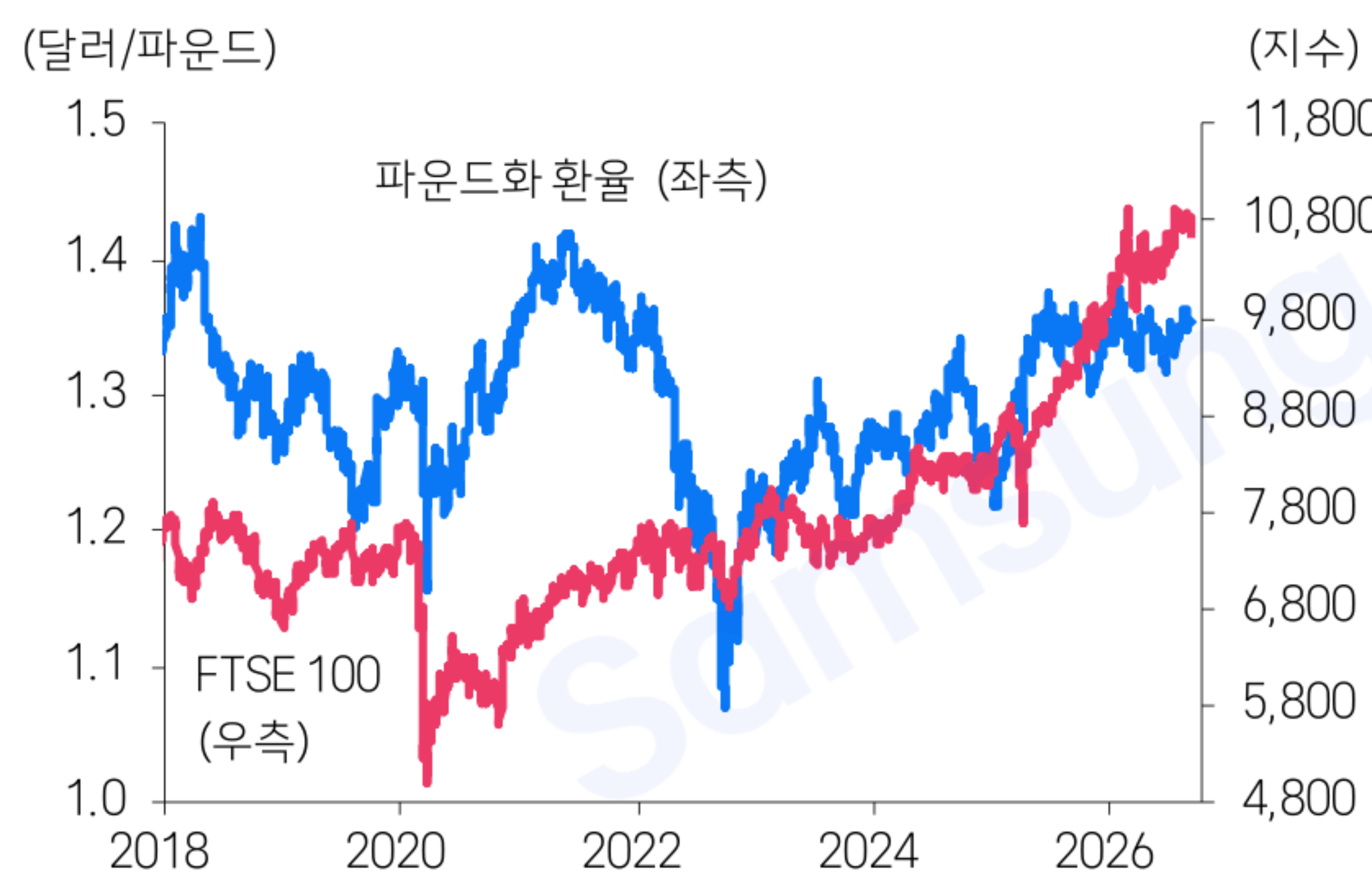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EMU 12개월 forward P/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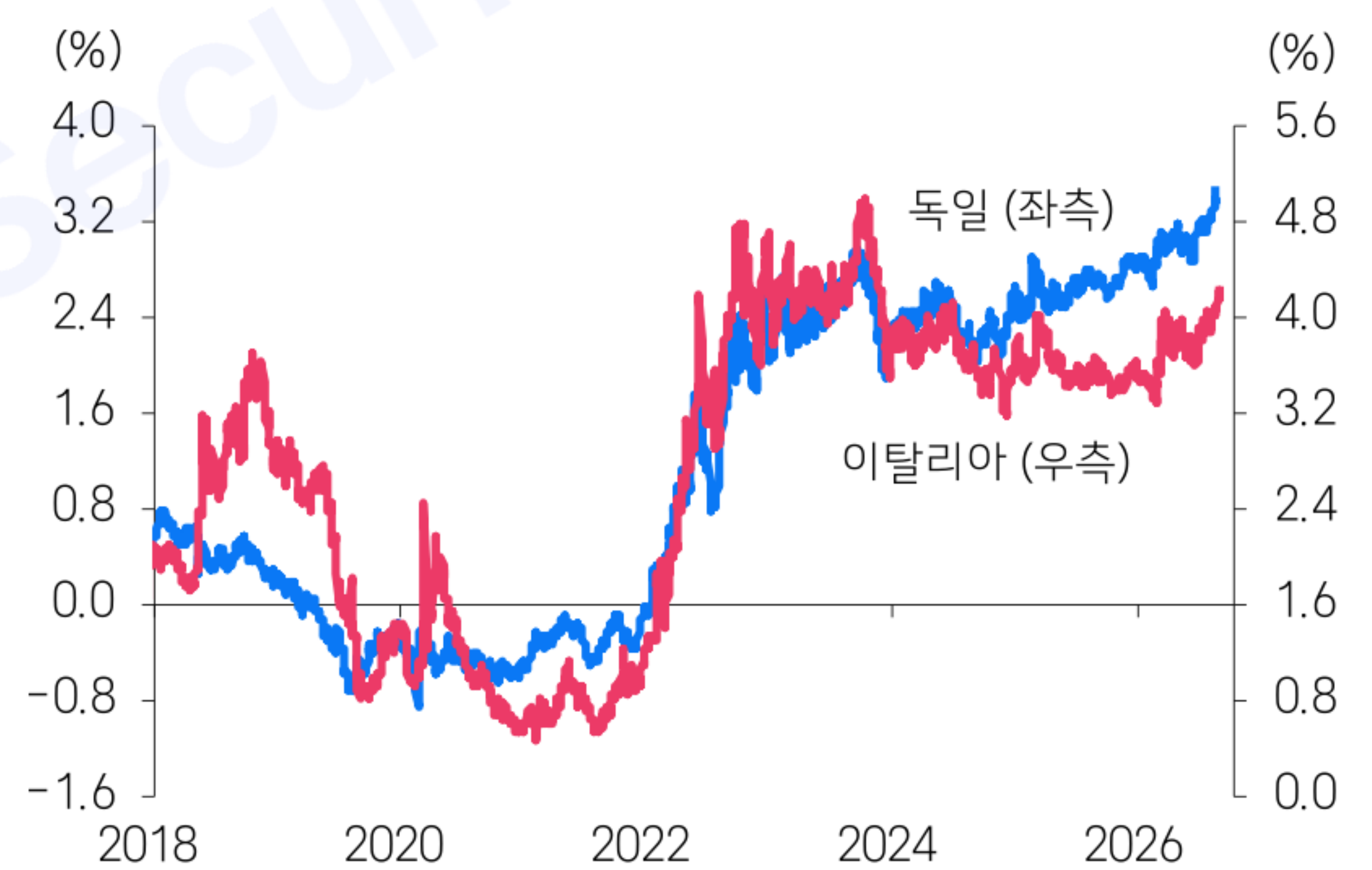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영국 FTSE100과 파운드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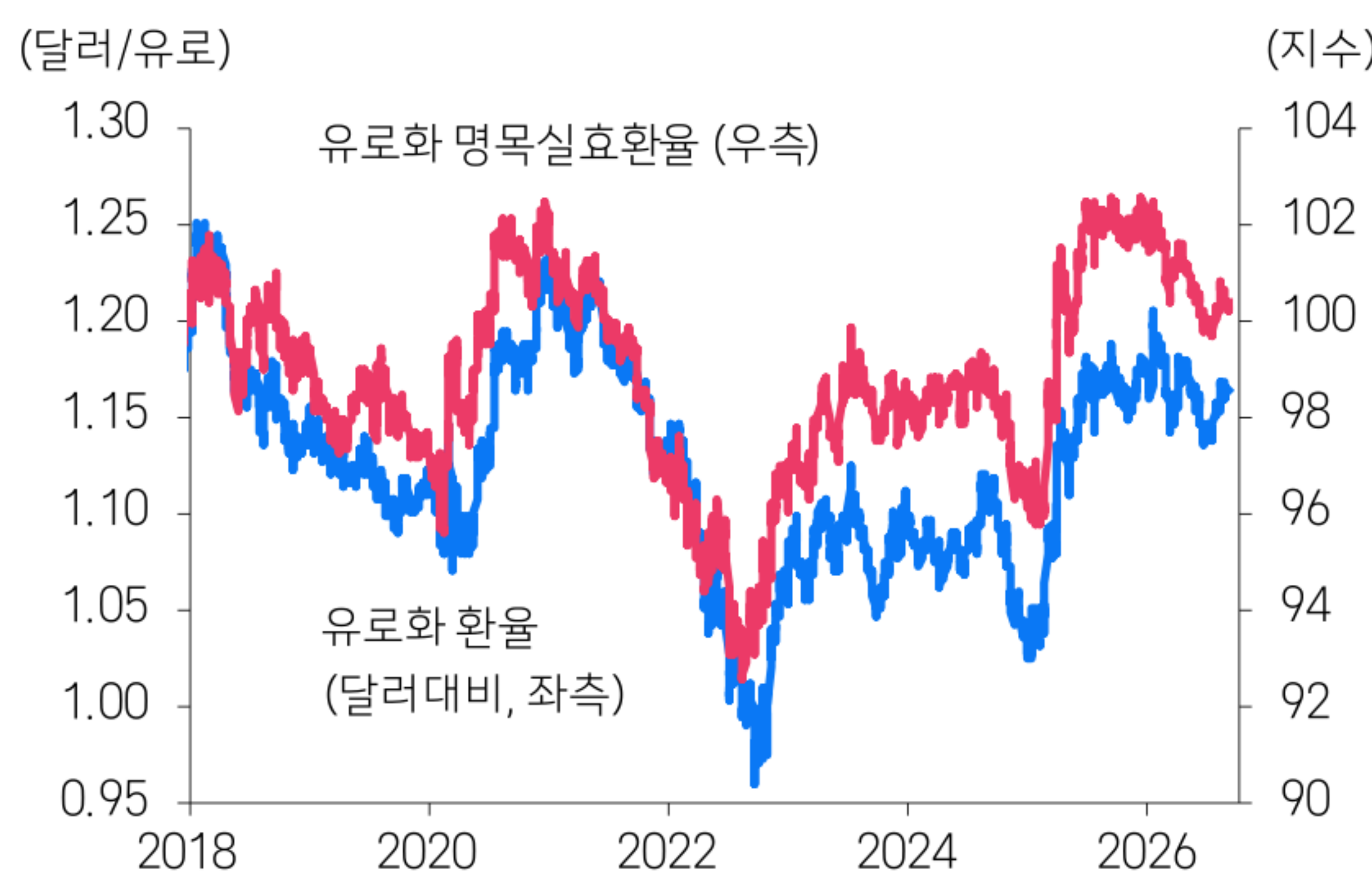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독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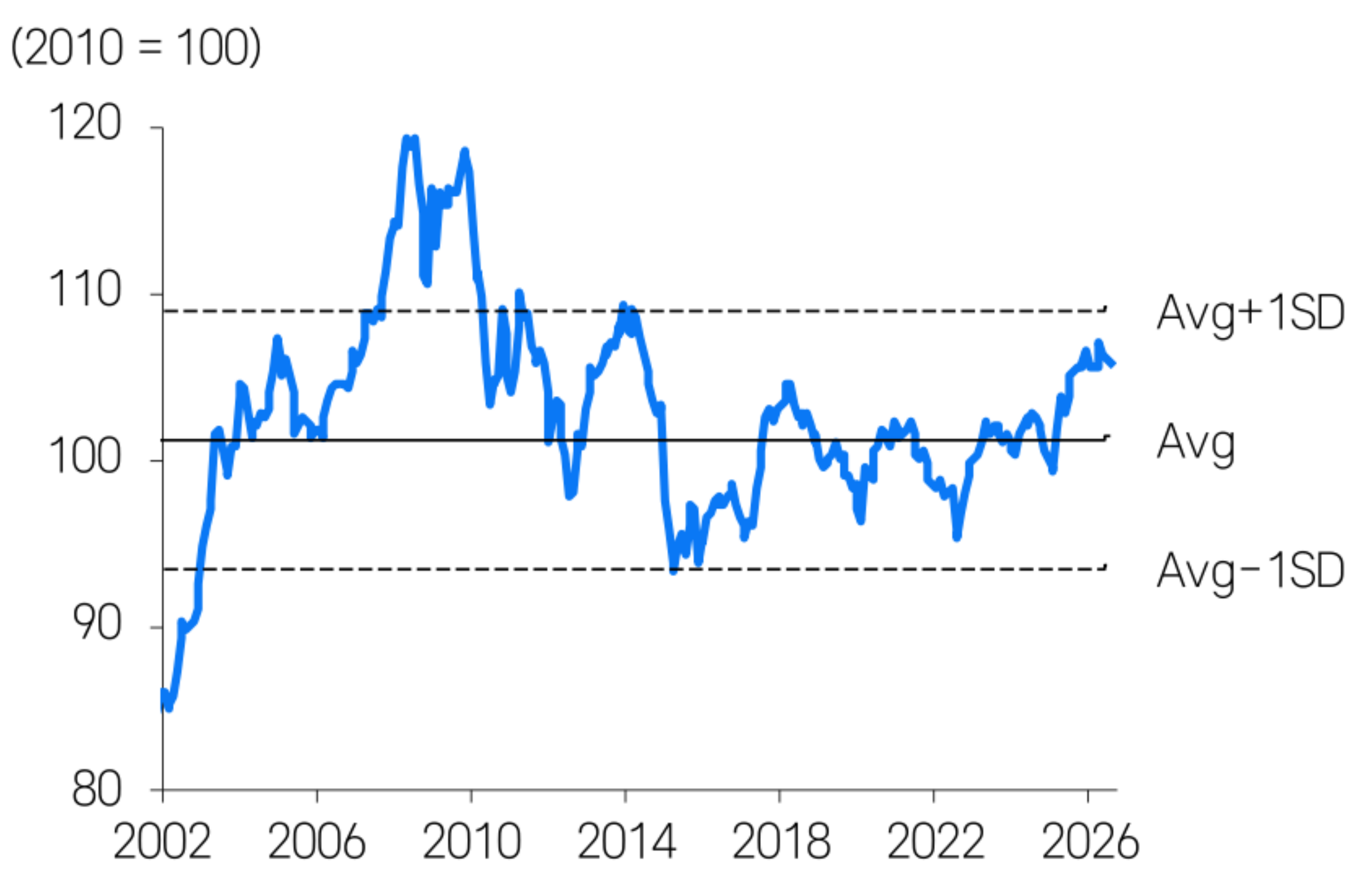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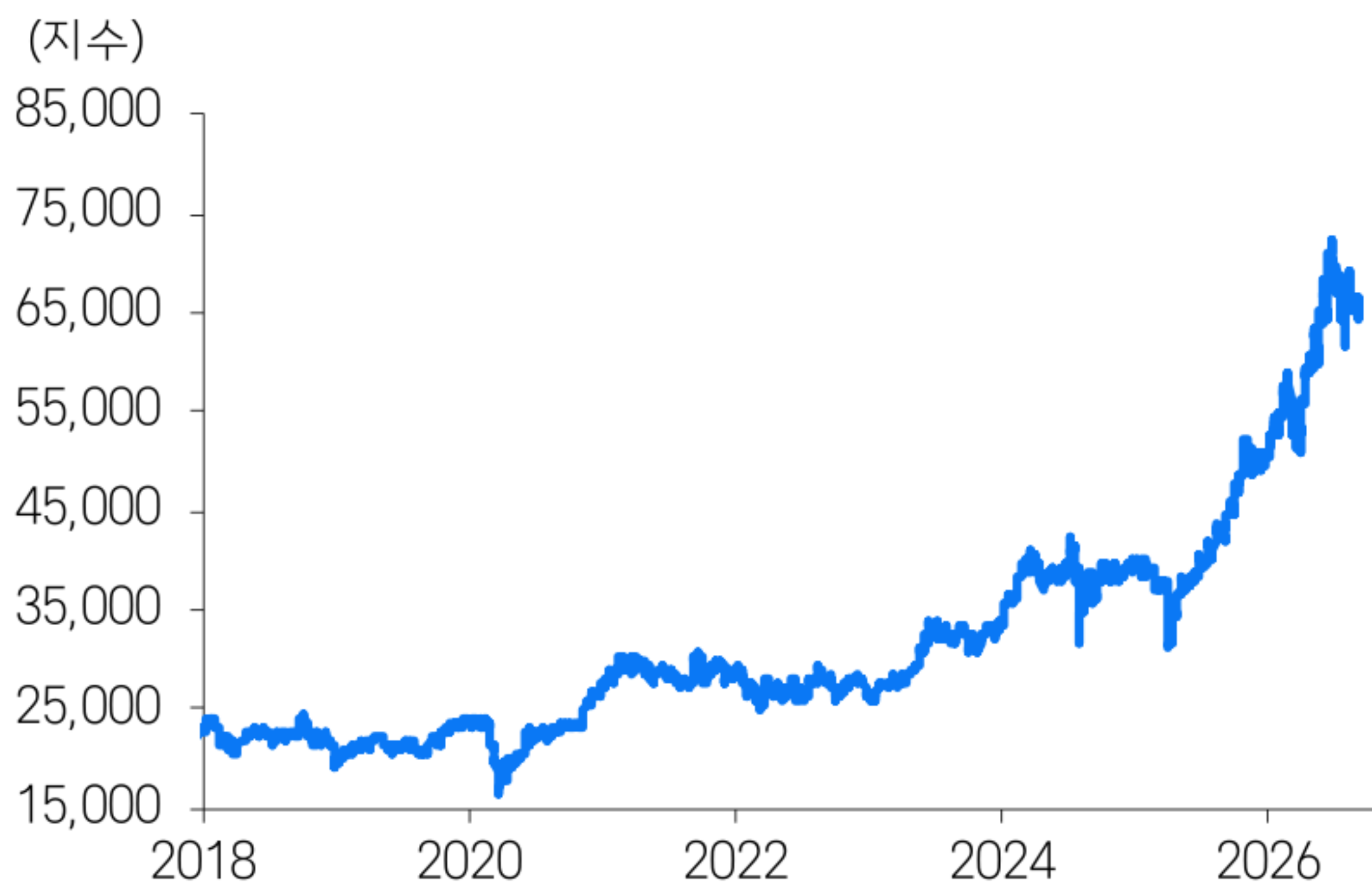
유로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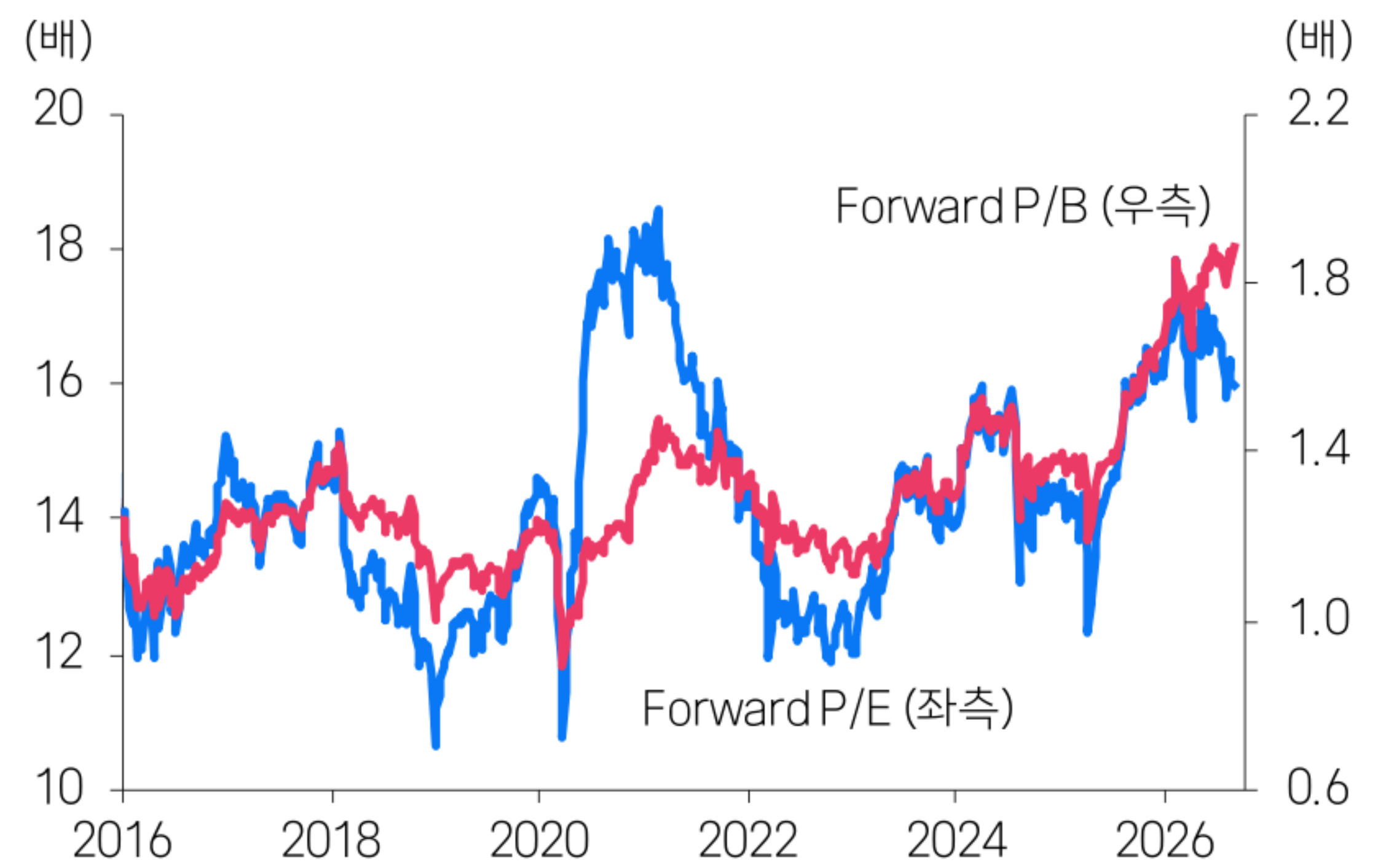
>> 일본

일본 NIKKEI225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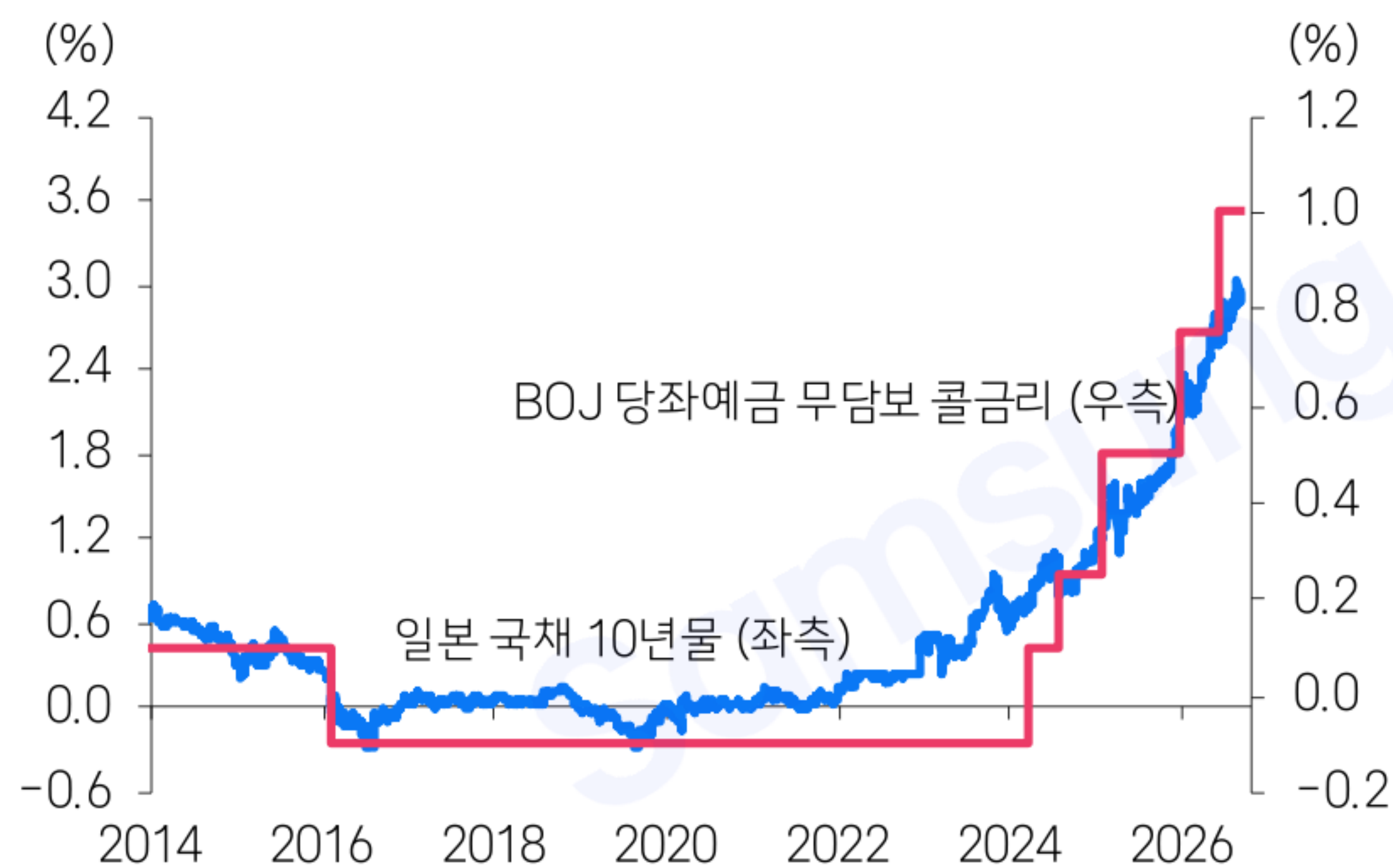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Japan: Forward P/E와 P/B 추이



자료: Refinitiv

BOJ 정책 금리, 일본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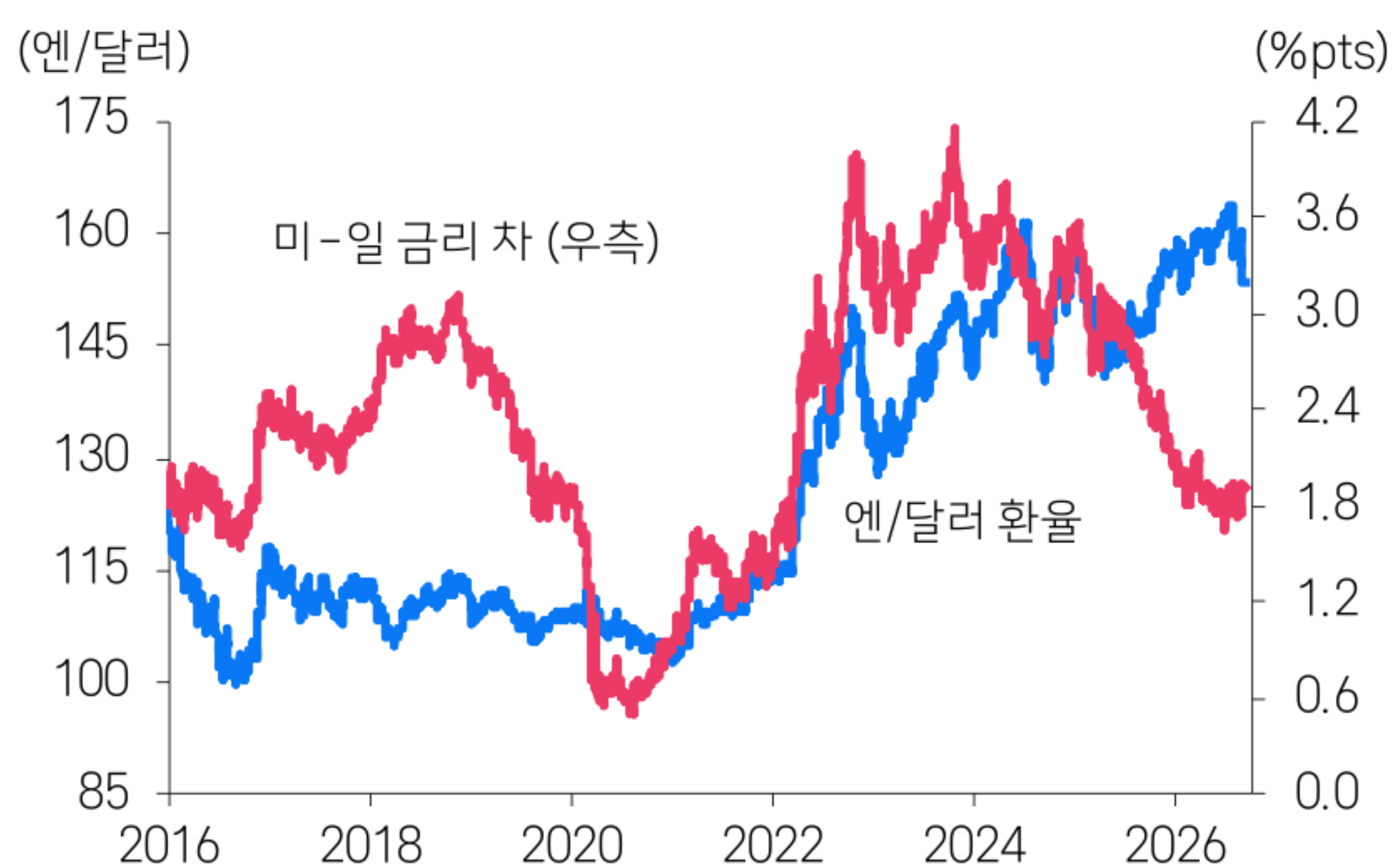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일본 국채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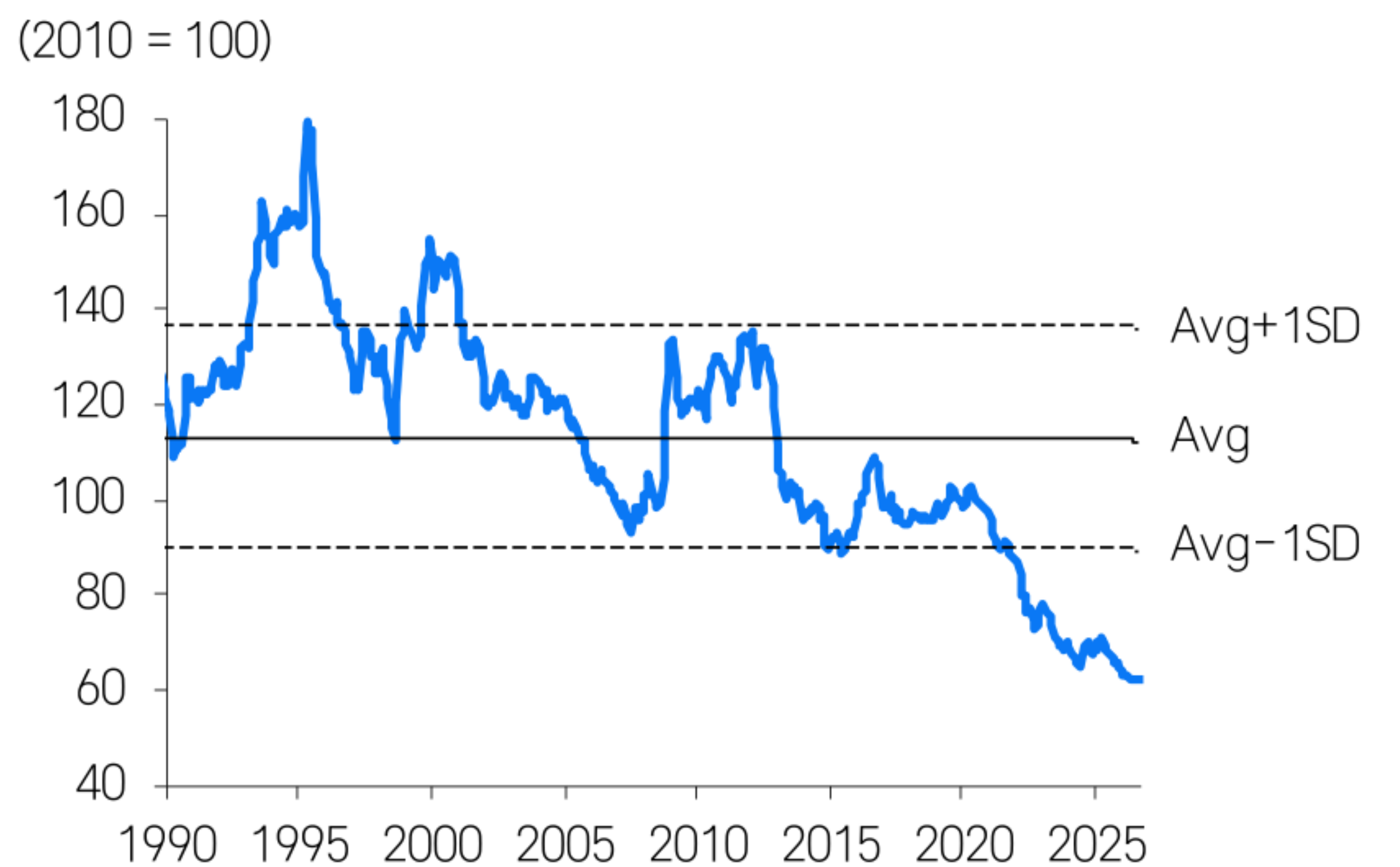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일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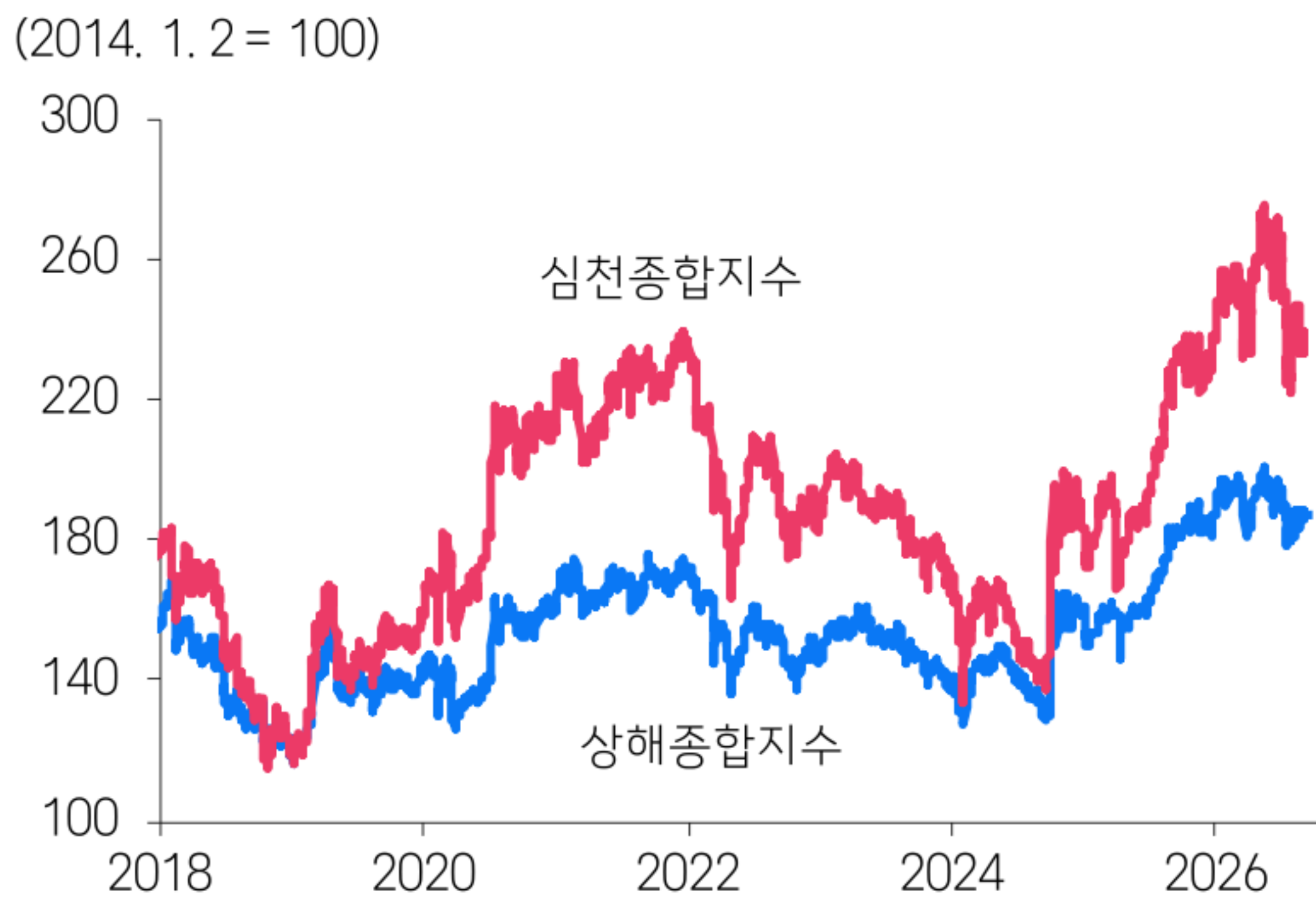
엔화 실질 실효 환율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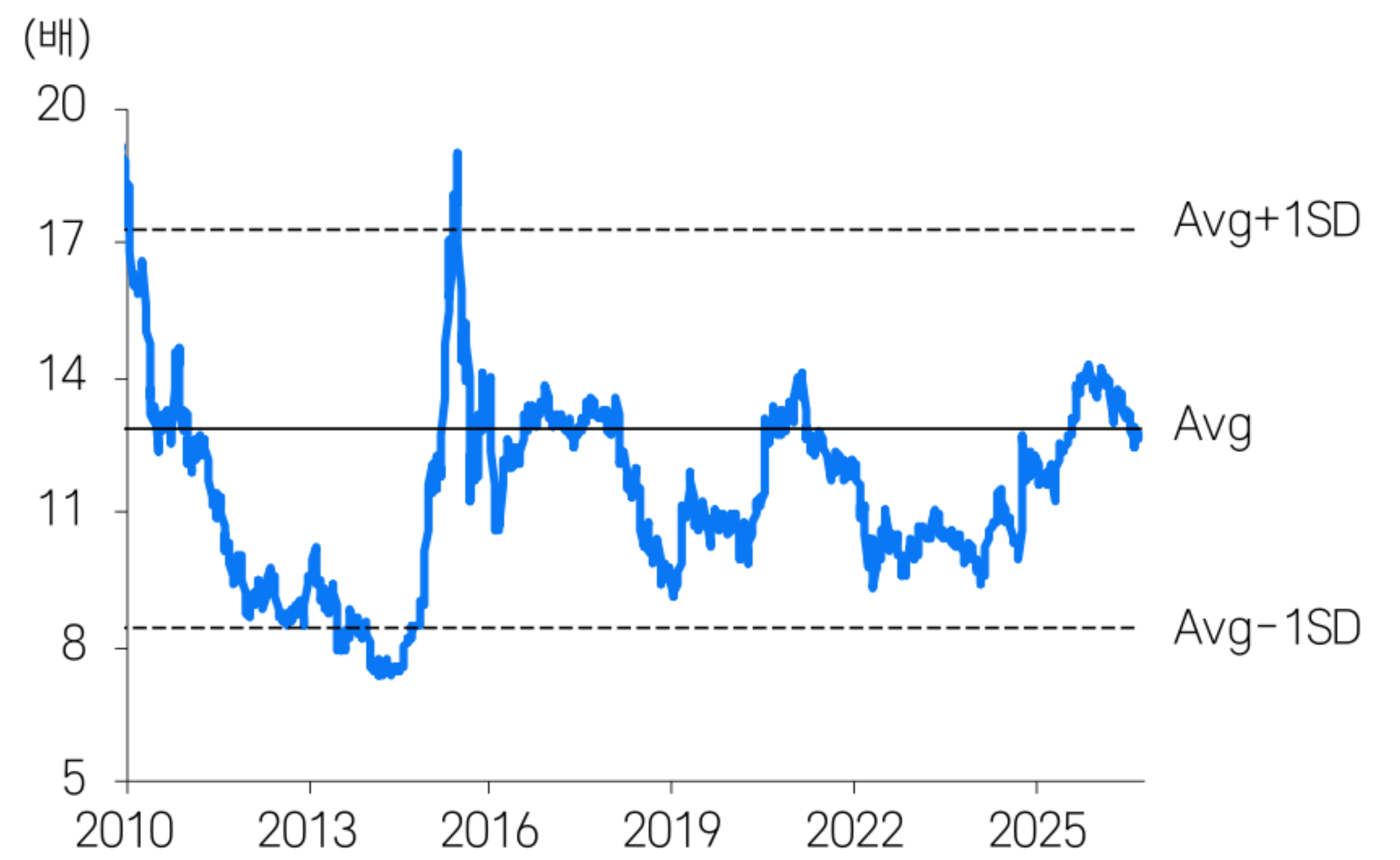
>> 중국

중국 상해 및 심천종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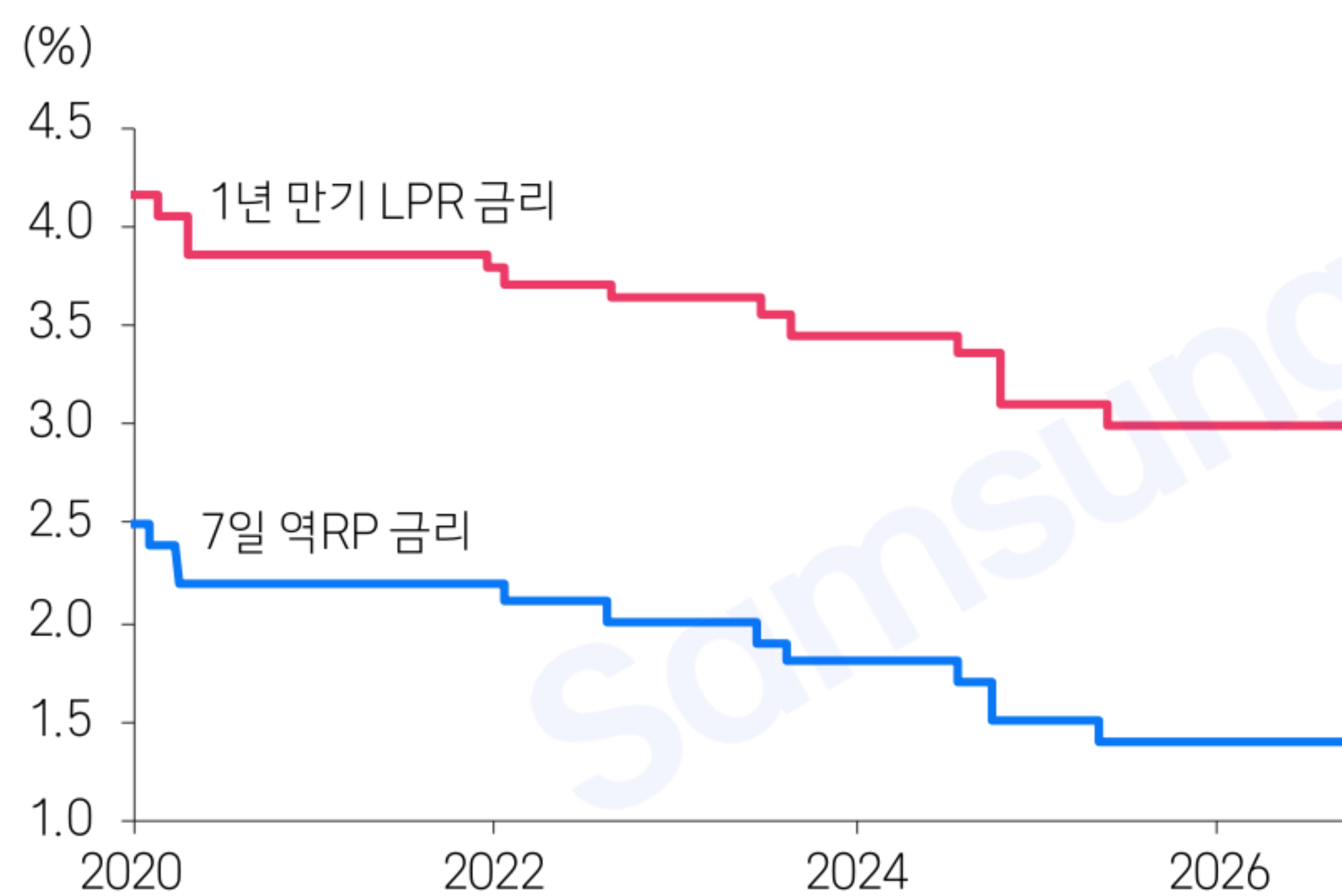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지수 Forward P/E Valu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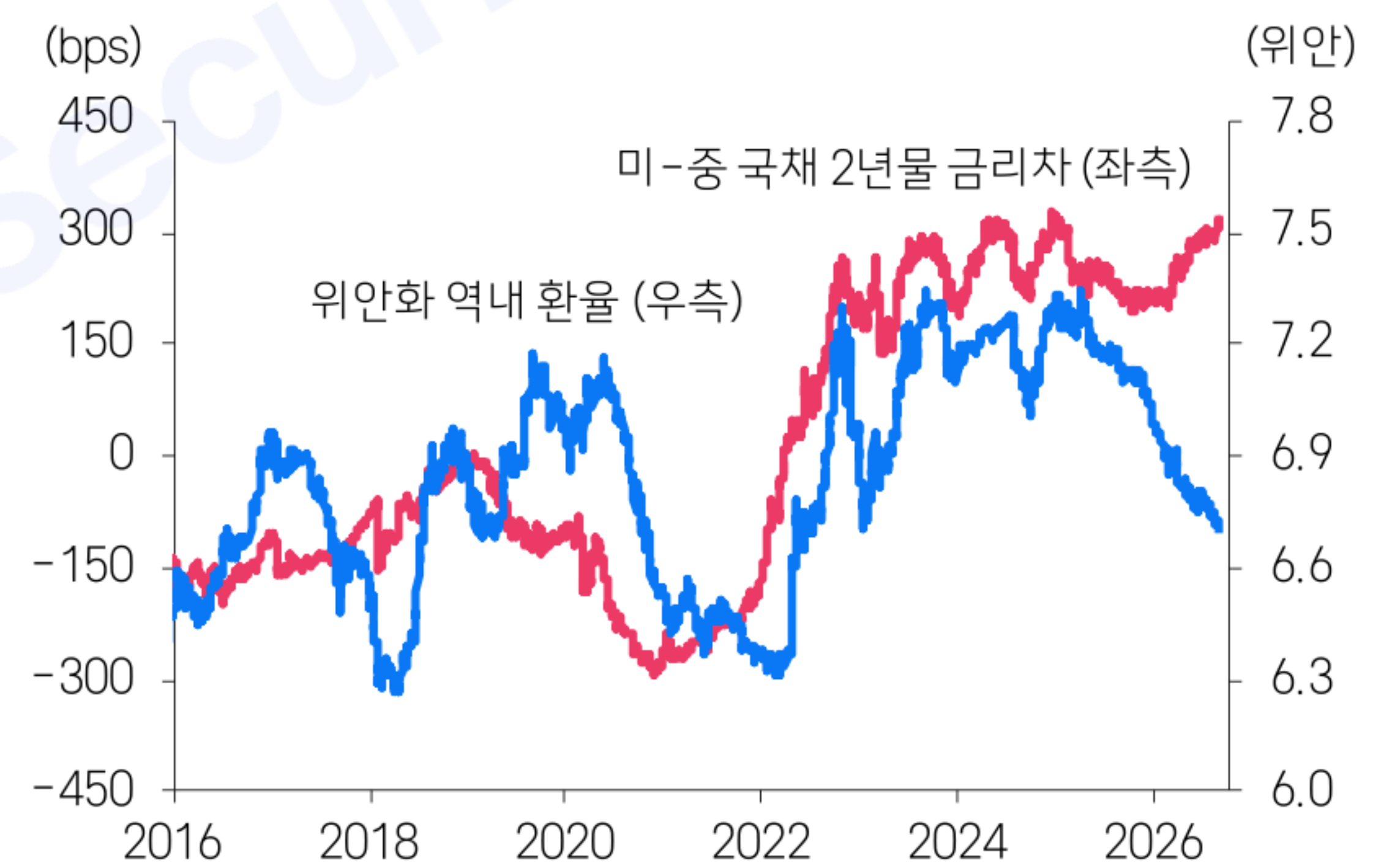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1년 만기 LPR 금리와 7일물 역RP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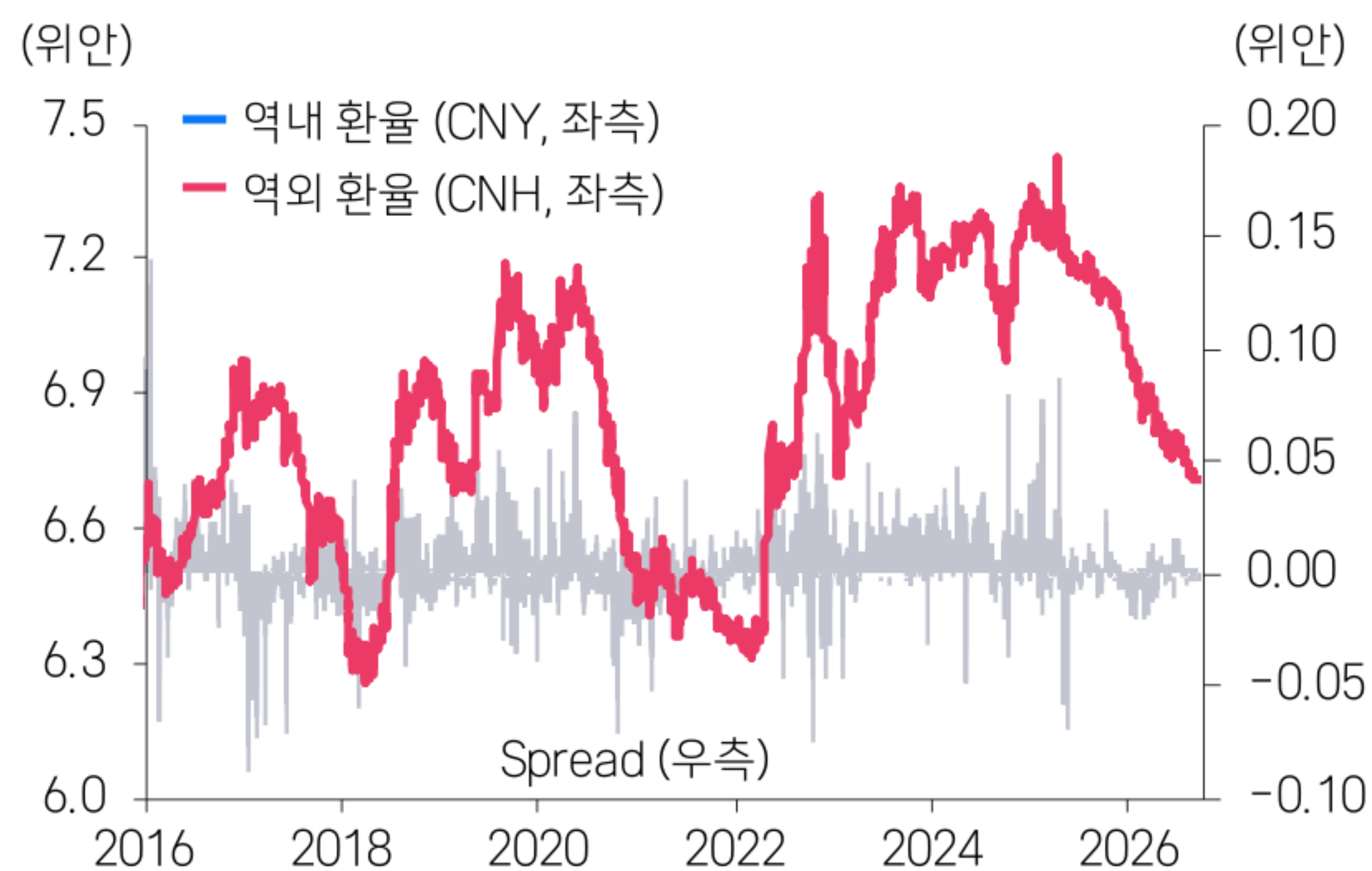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중 금리 차와 위안화 역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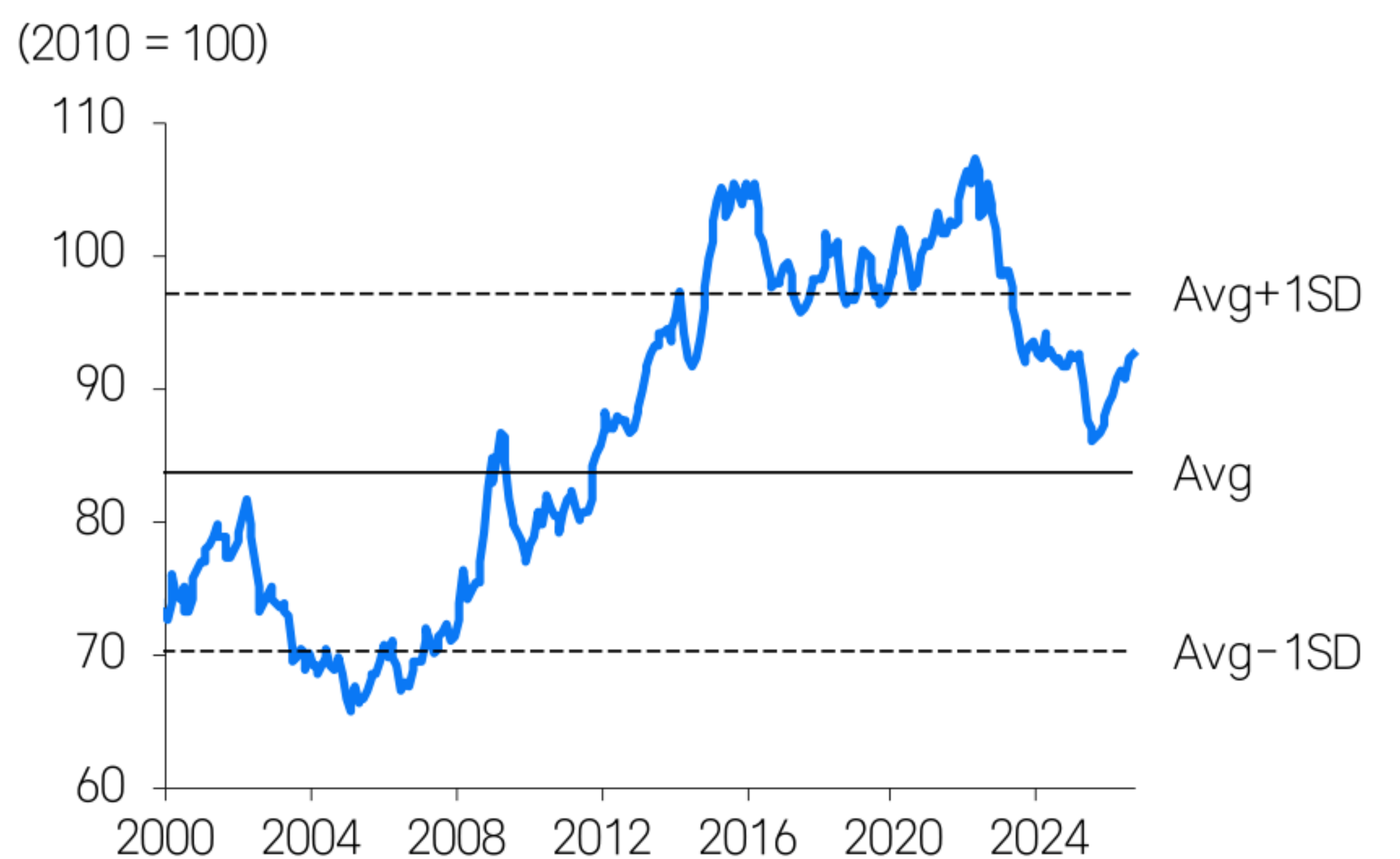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위안화 환율 추이: 역내(CNY) vs. 역외(CNH)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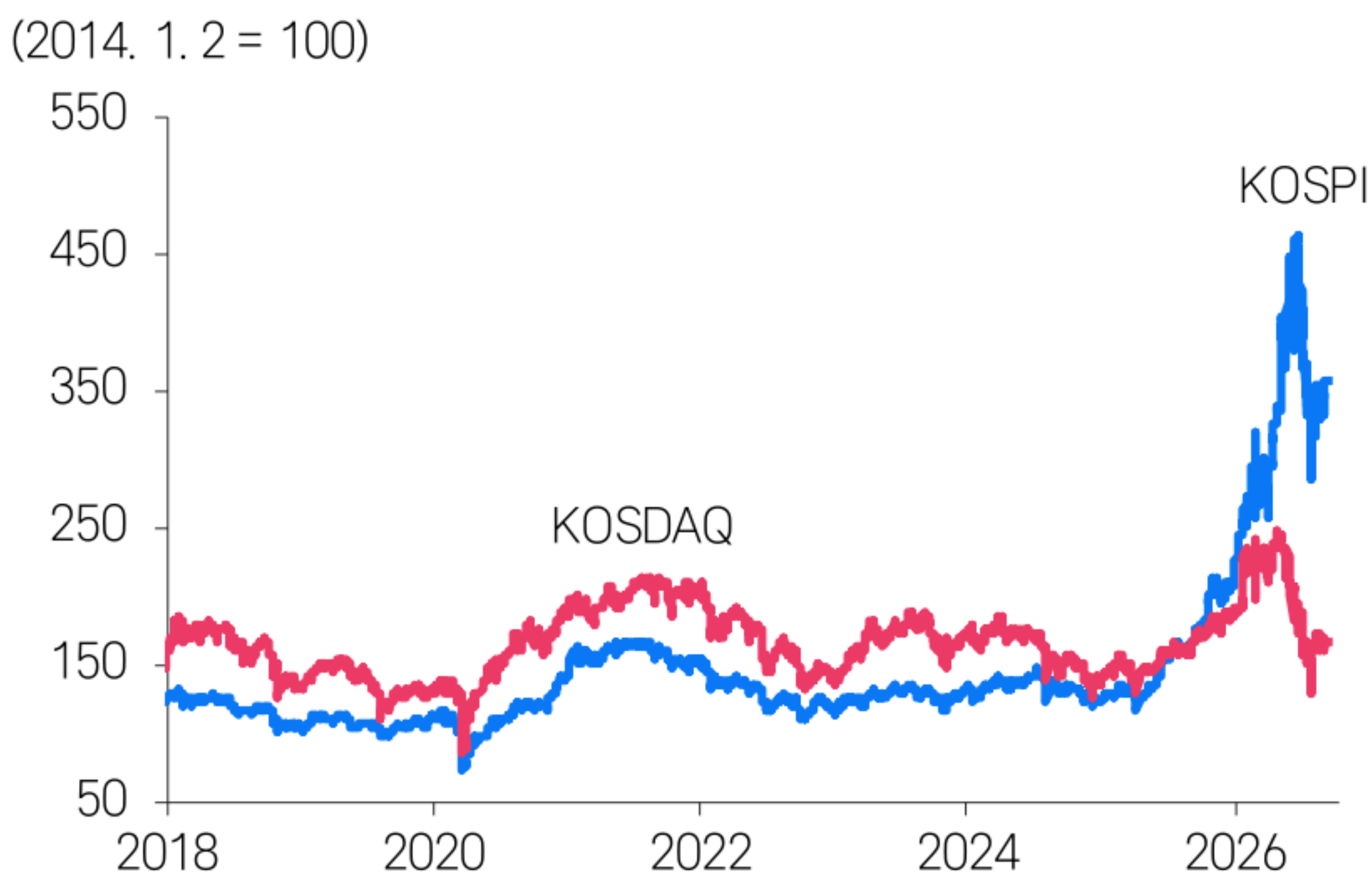
위안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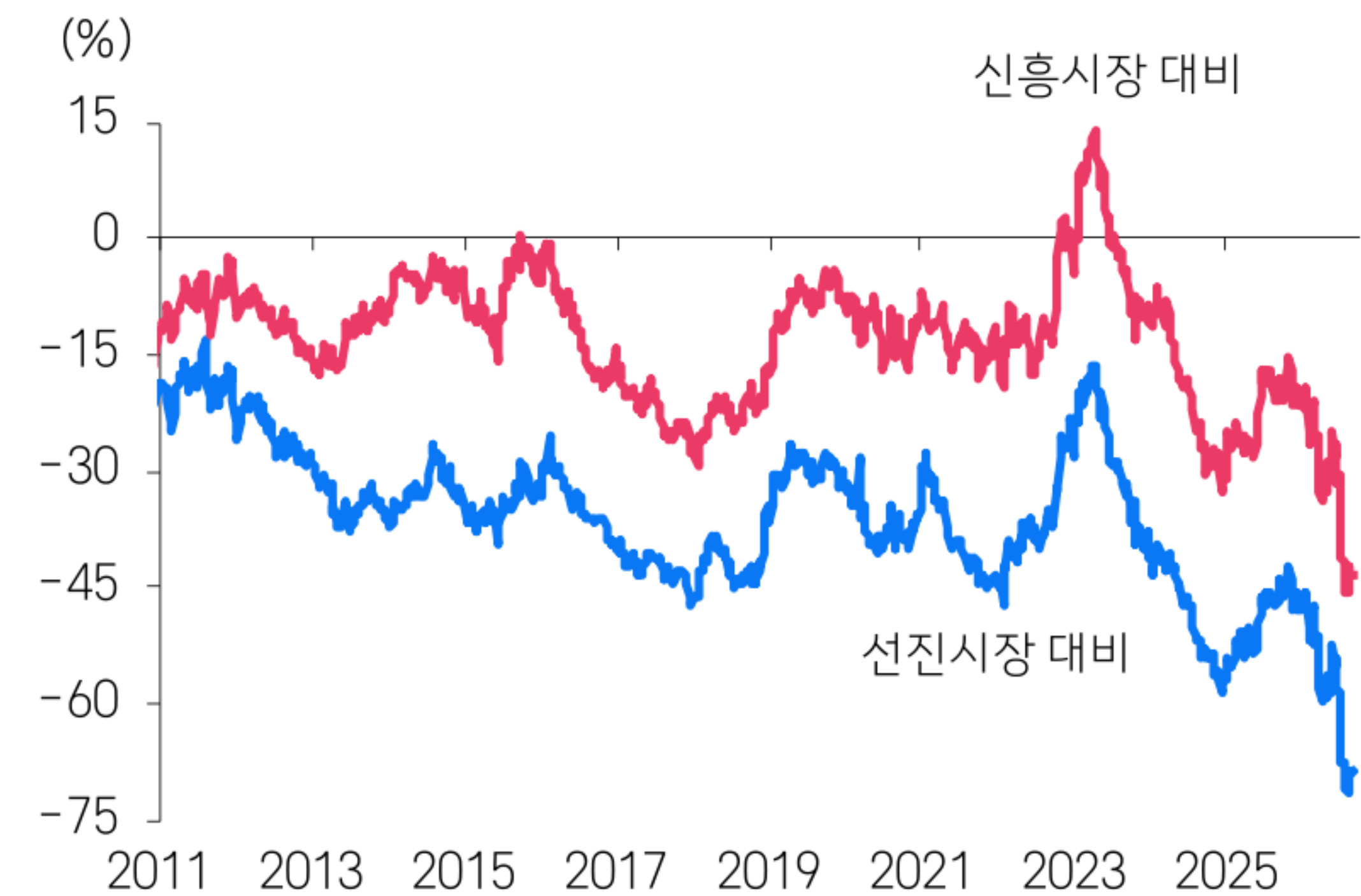
>> 한국

한국 KOSPI와 KOSDAQ 추이



자료: Bloomberg

KOSPI Forward P/E 밸류에이션 할증/할인율 추이



자료: Refinitiv

장단기 금리 차 (국고 10년-국고 3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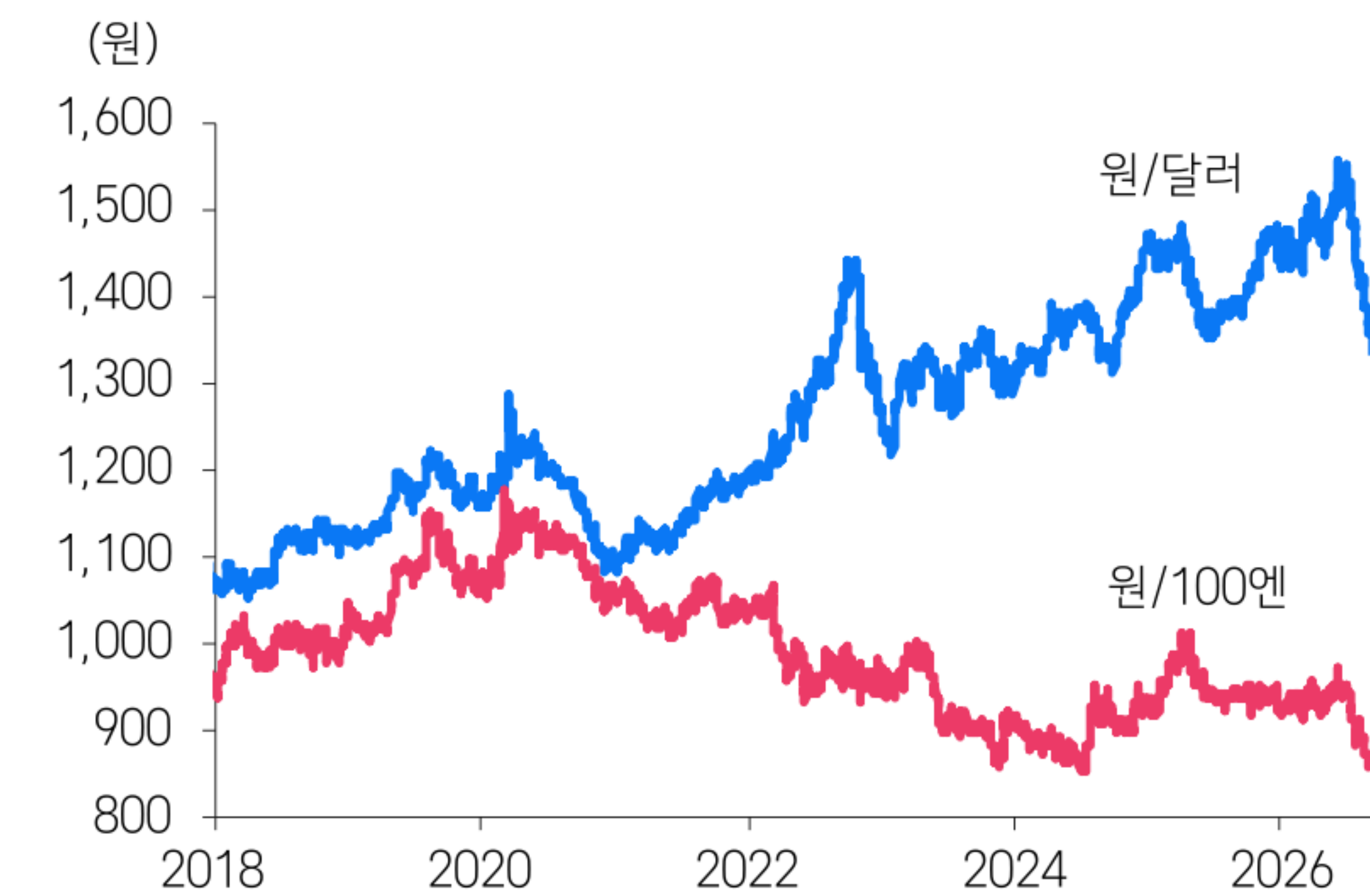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0년 BE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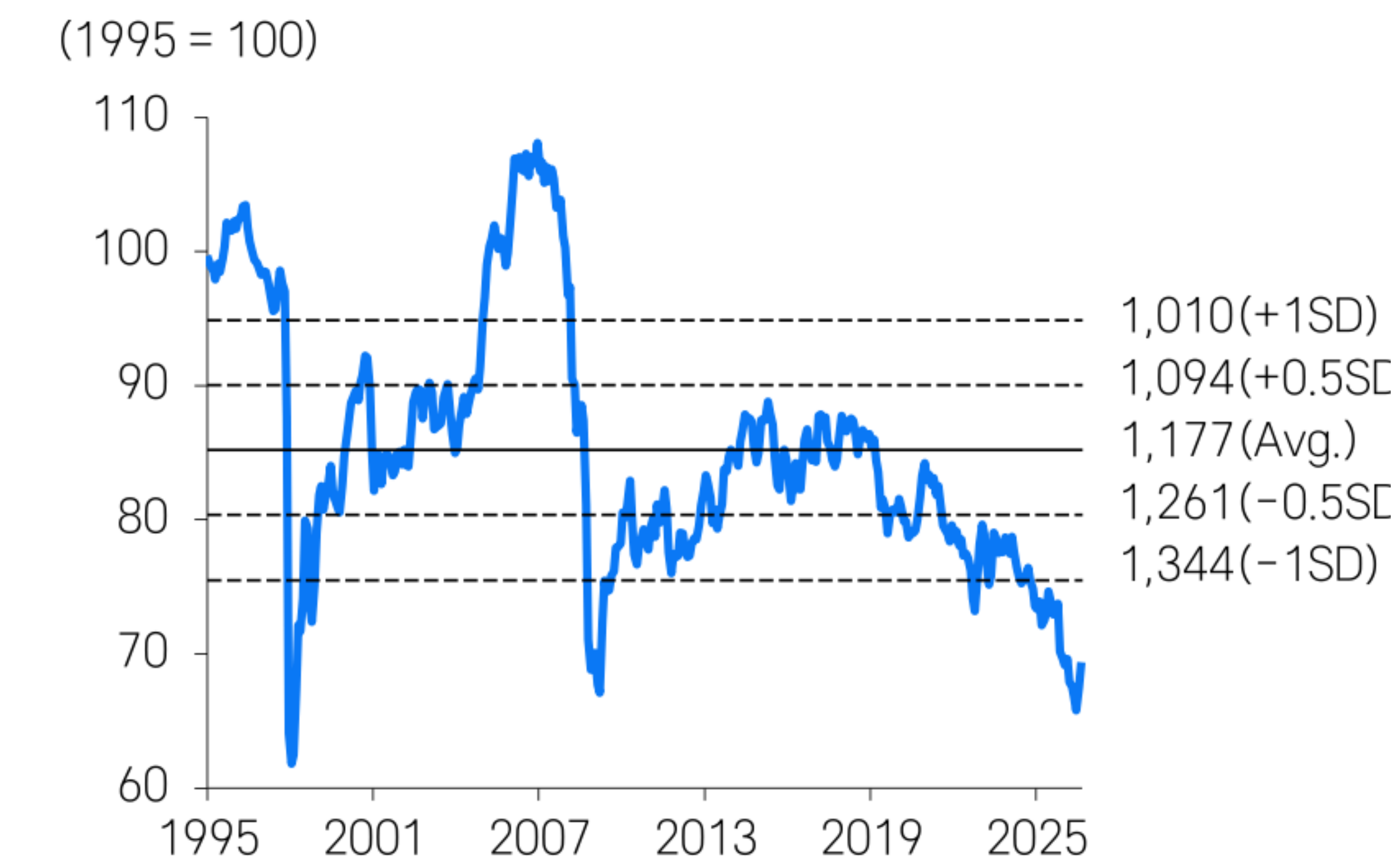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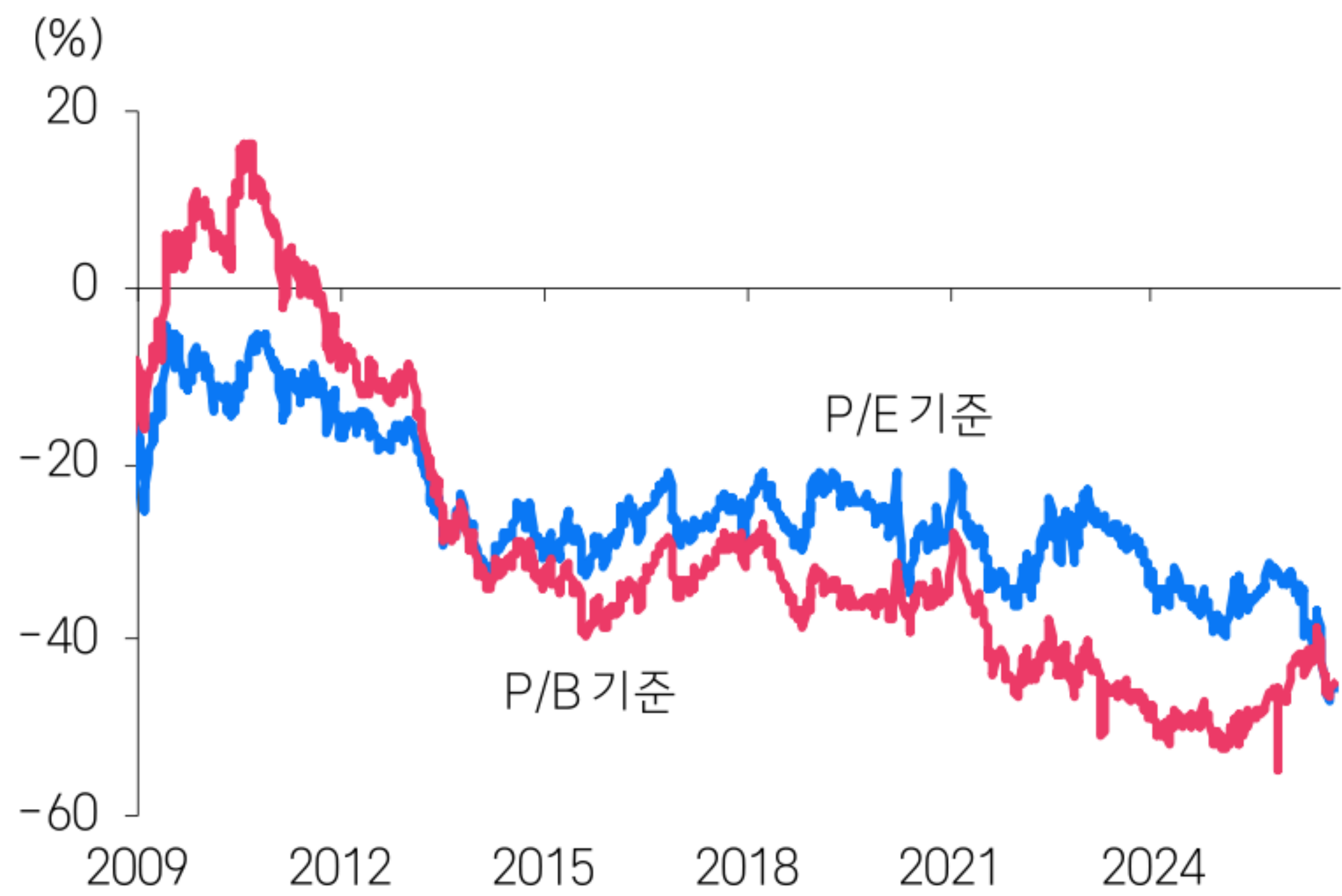
>> 신흥국

선진 시장 대비 신흥 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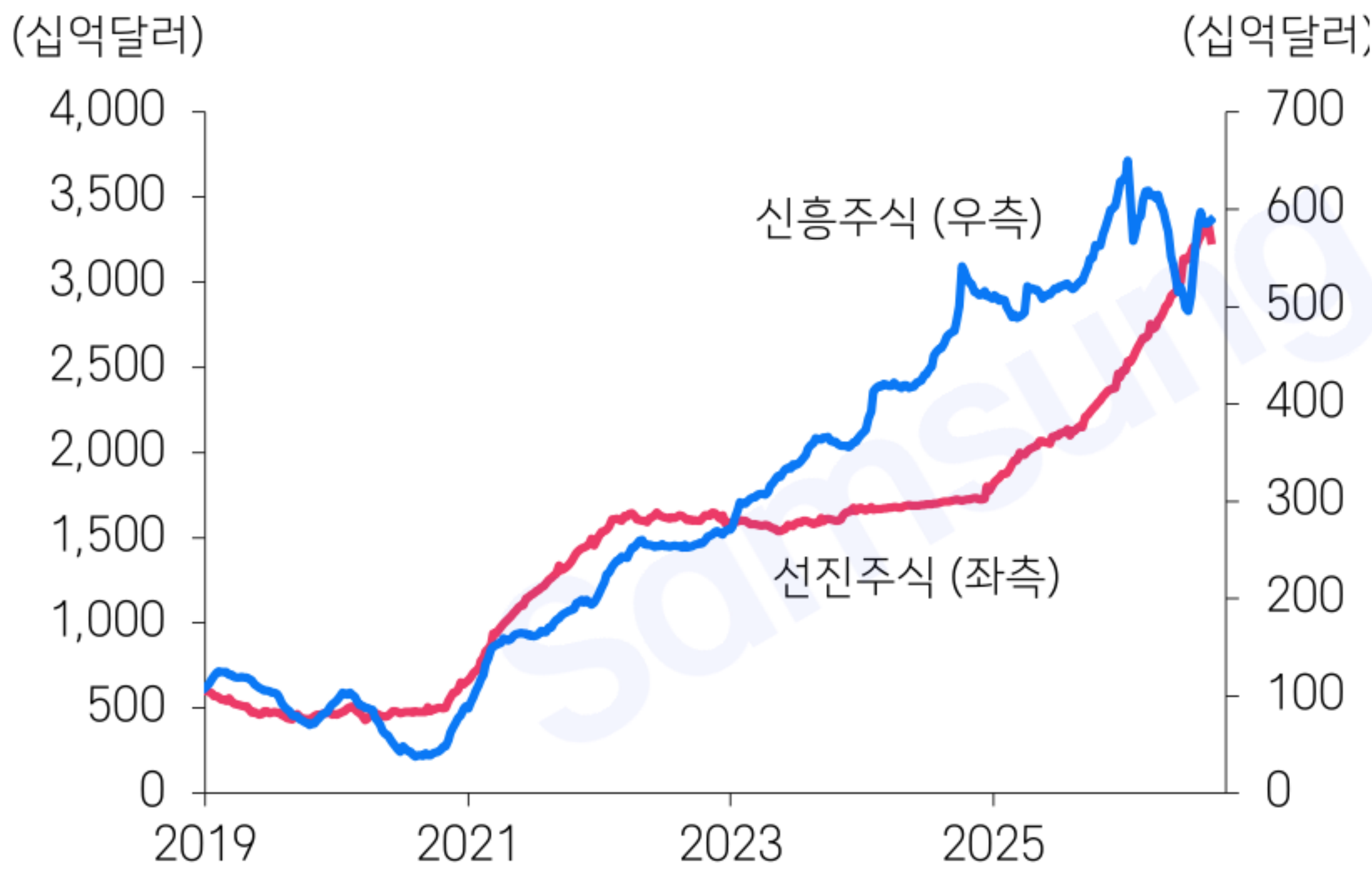
참고: MSCIUSD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 시장 대비 신흥 시장 할증/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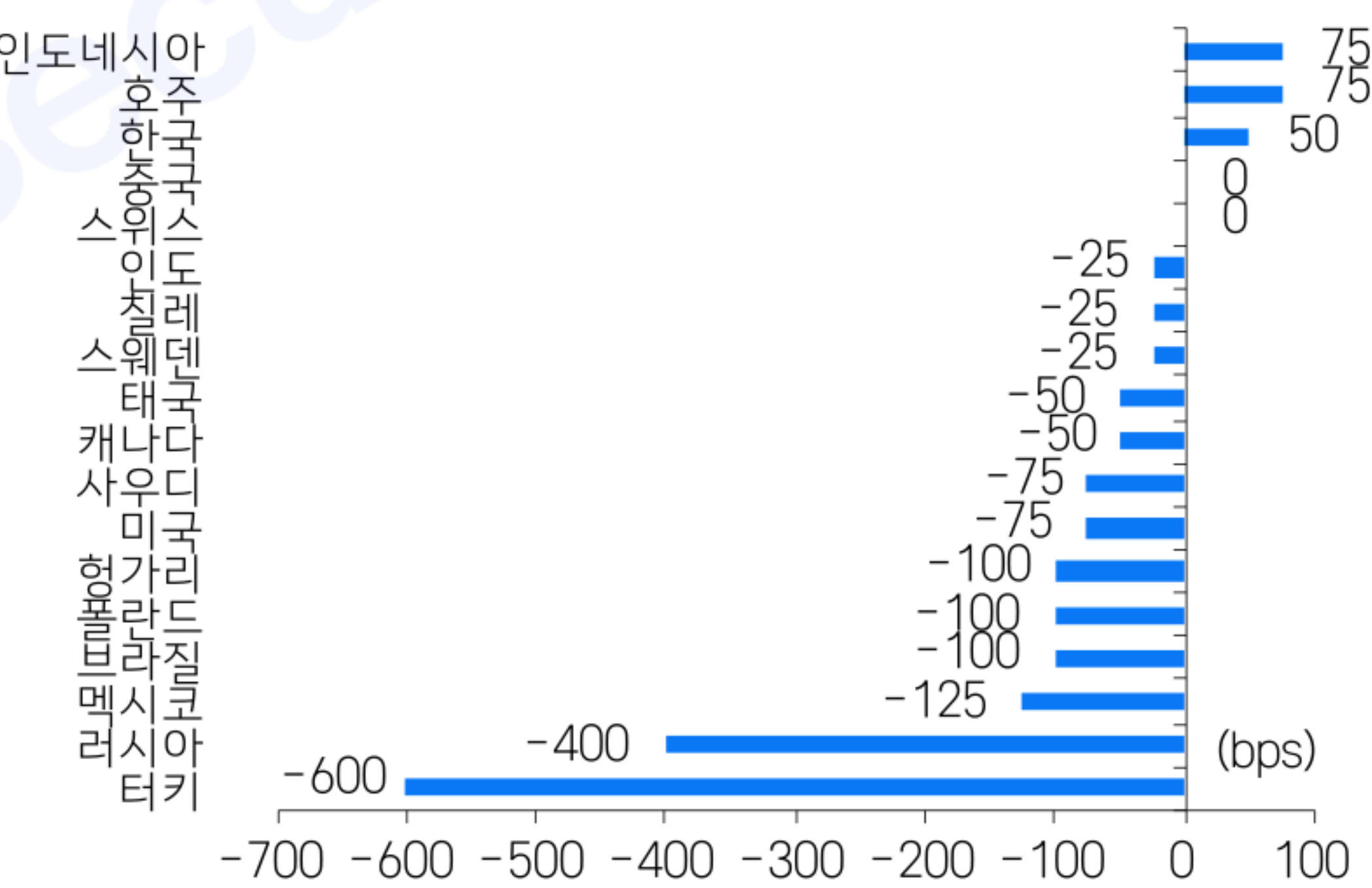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forward P/E 및 P/B.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신흥 시장 주식형 펀드 누적 Fund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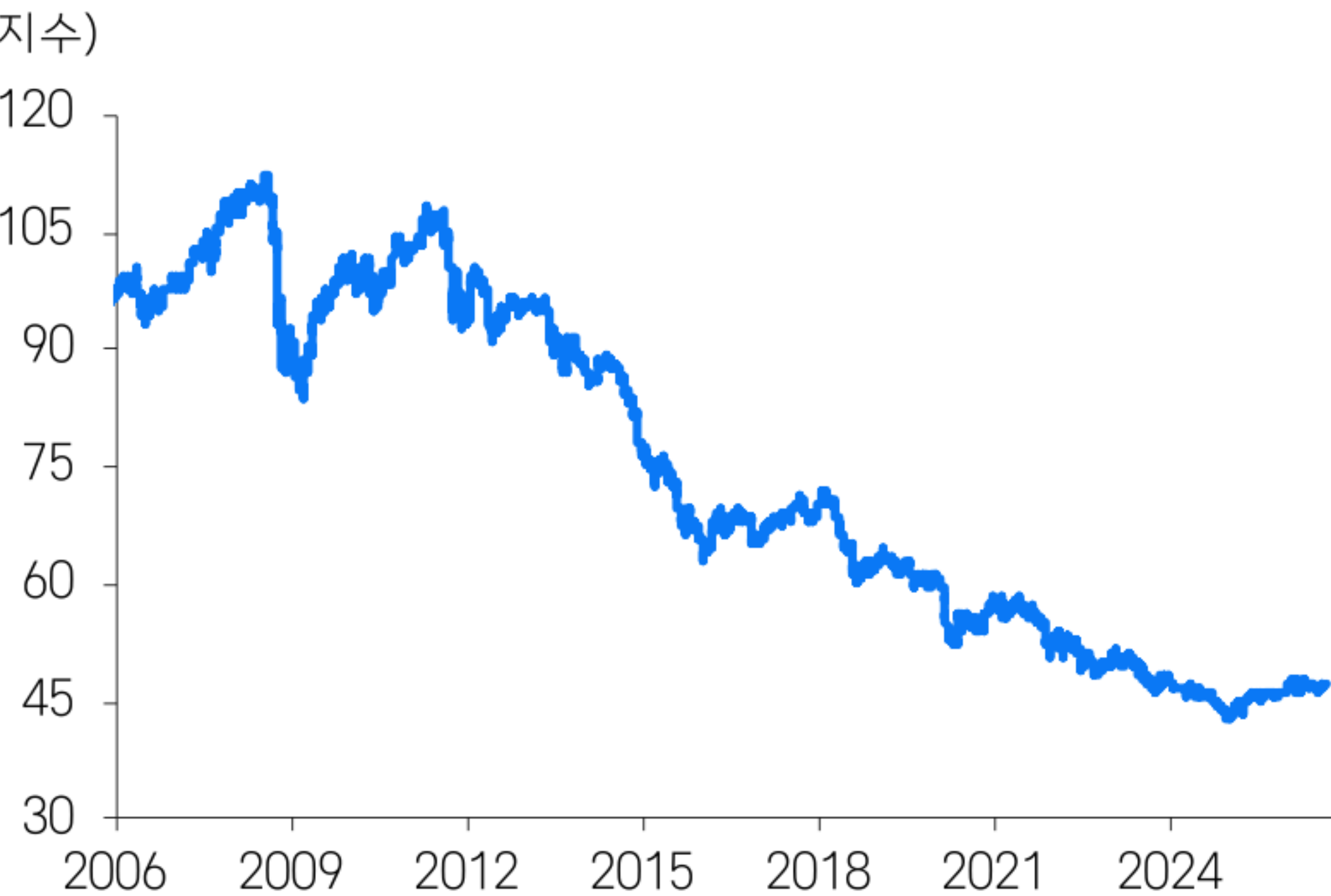
자료: EPFR, 삼성증권

주요국 정책 금리 변화 (12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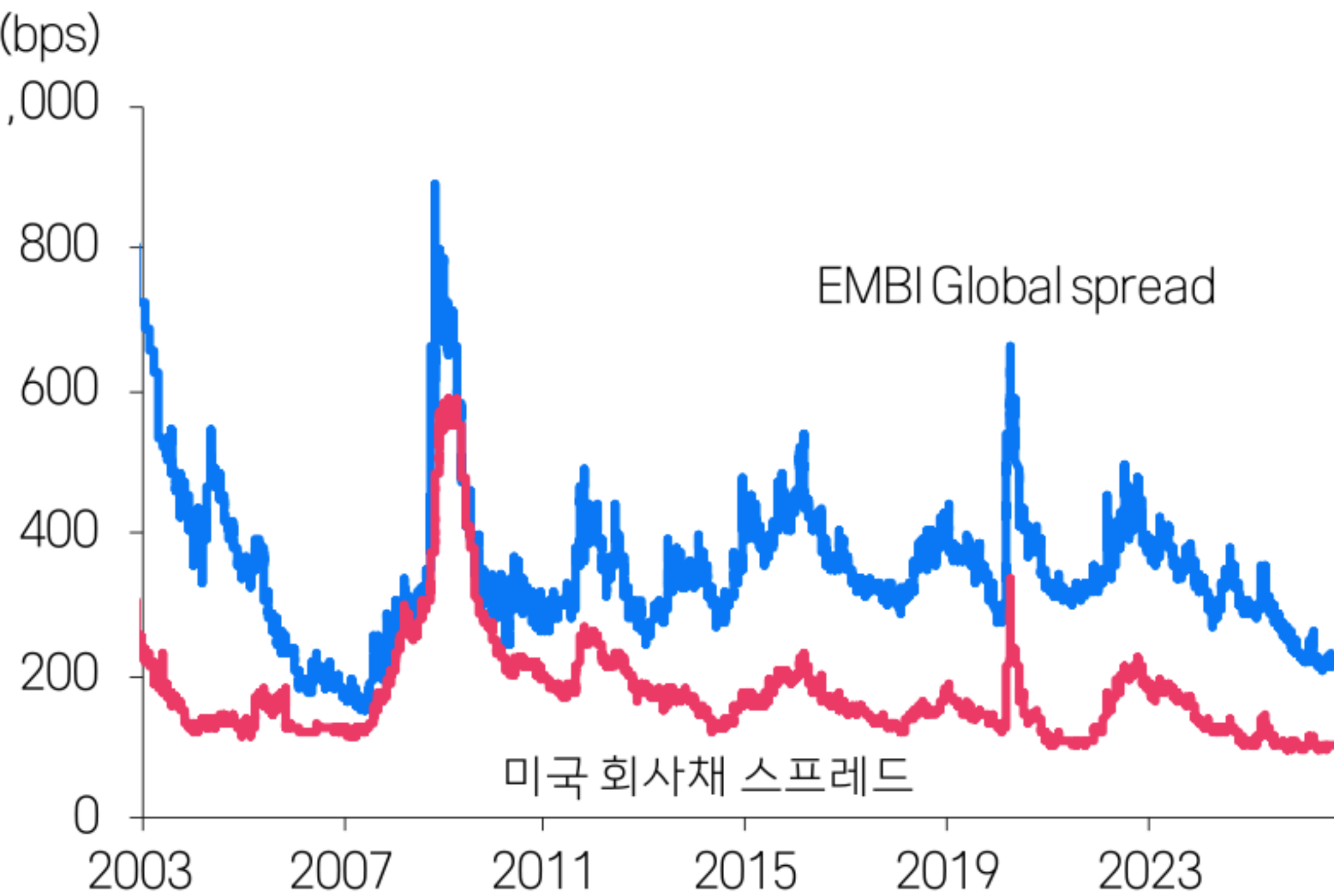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JPMorgan Emerging Currency Index



자료: JPMorg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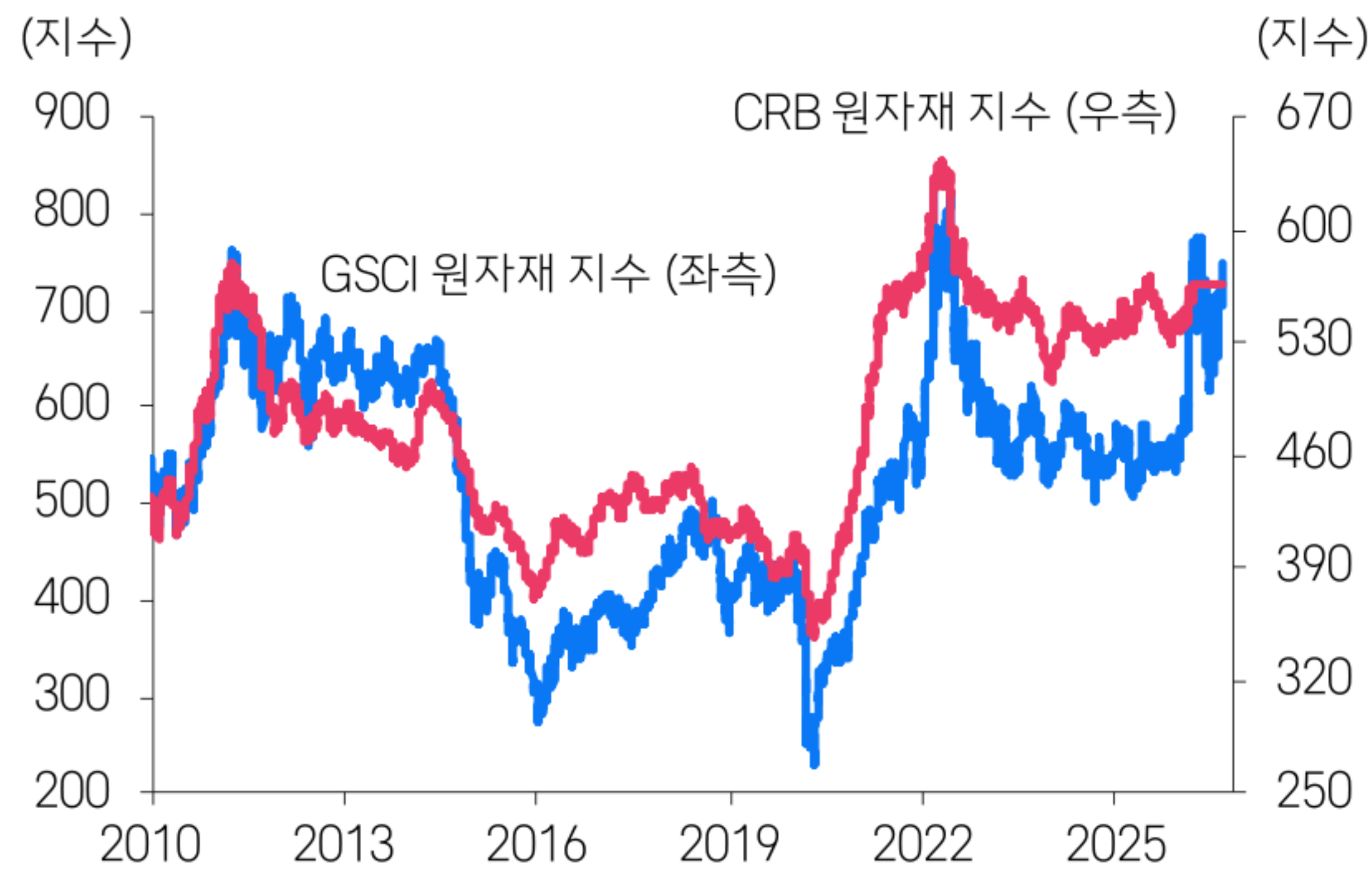
EMBI Spread와 미국 회사채(BBB)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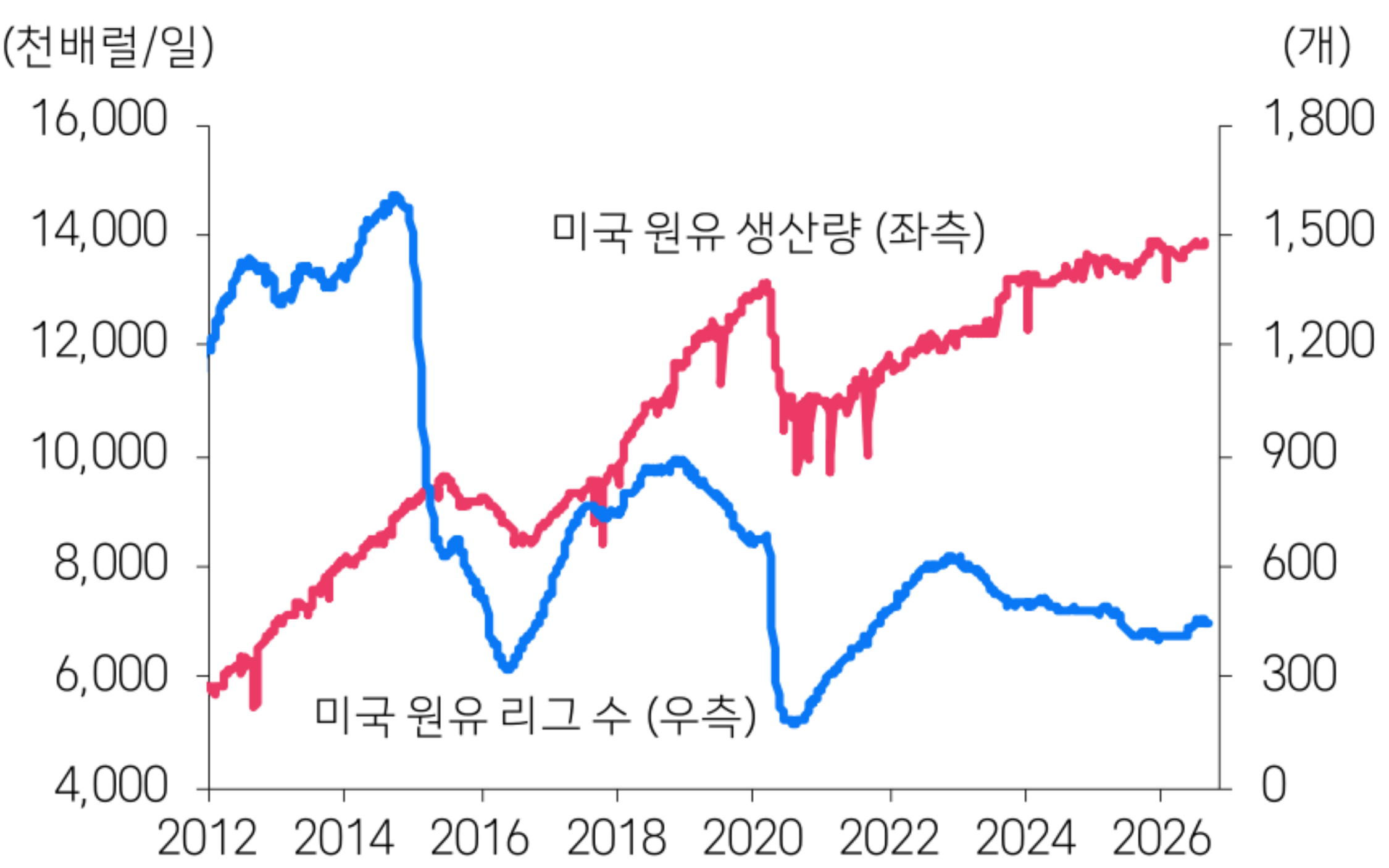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GSCI Commodity Index / CRB Index



자료: Bloomberg

미국 원유 리그 수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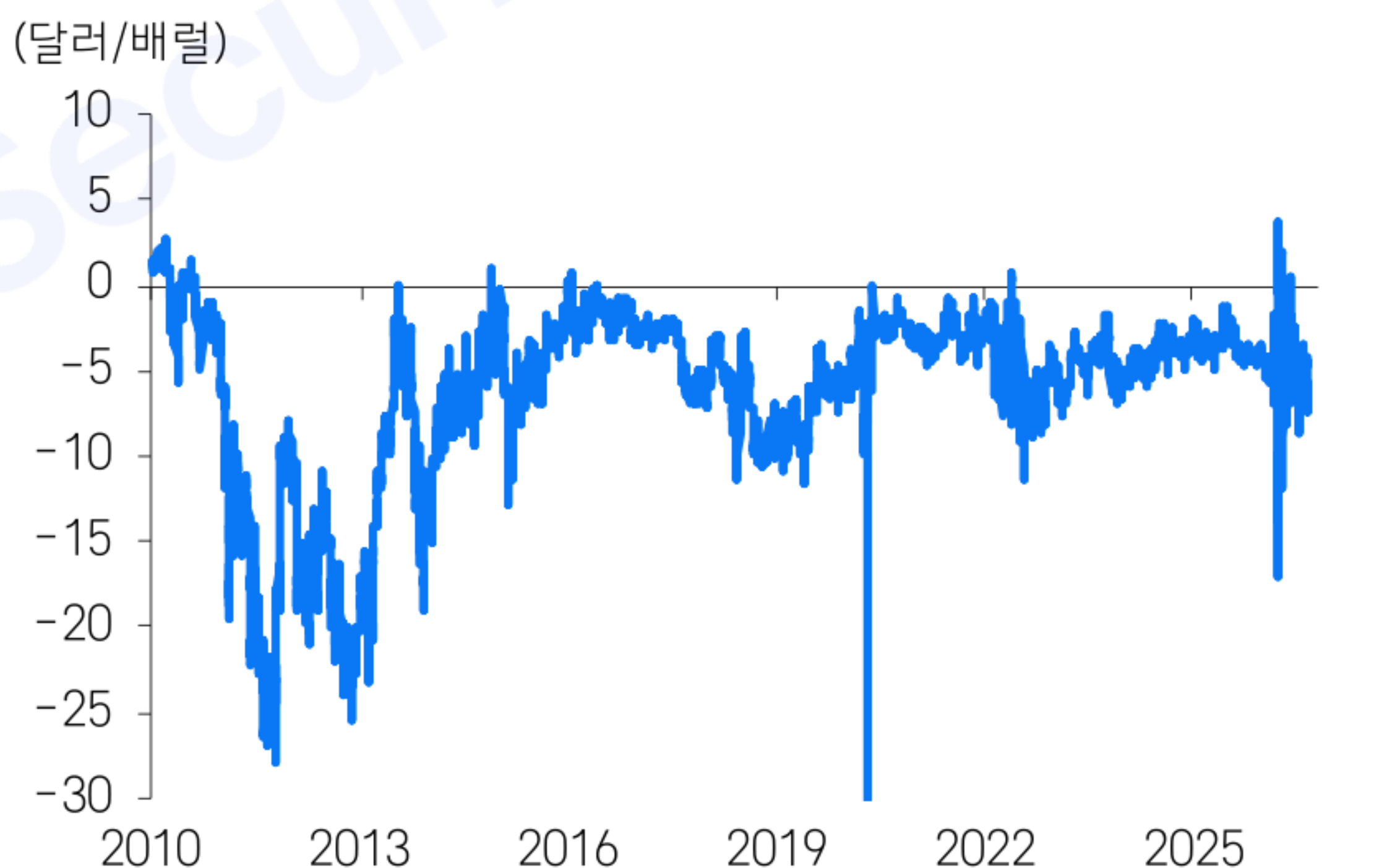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ker Hughes

미국 원유 재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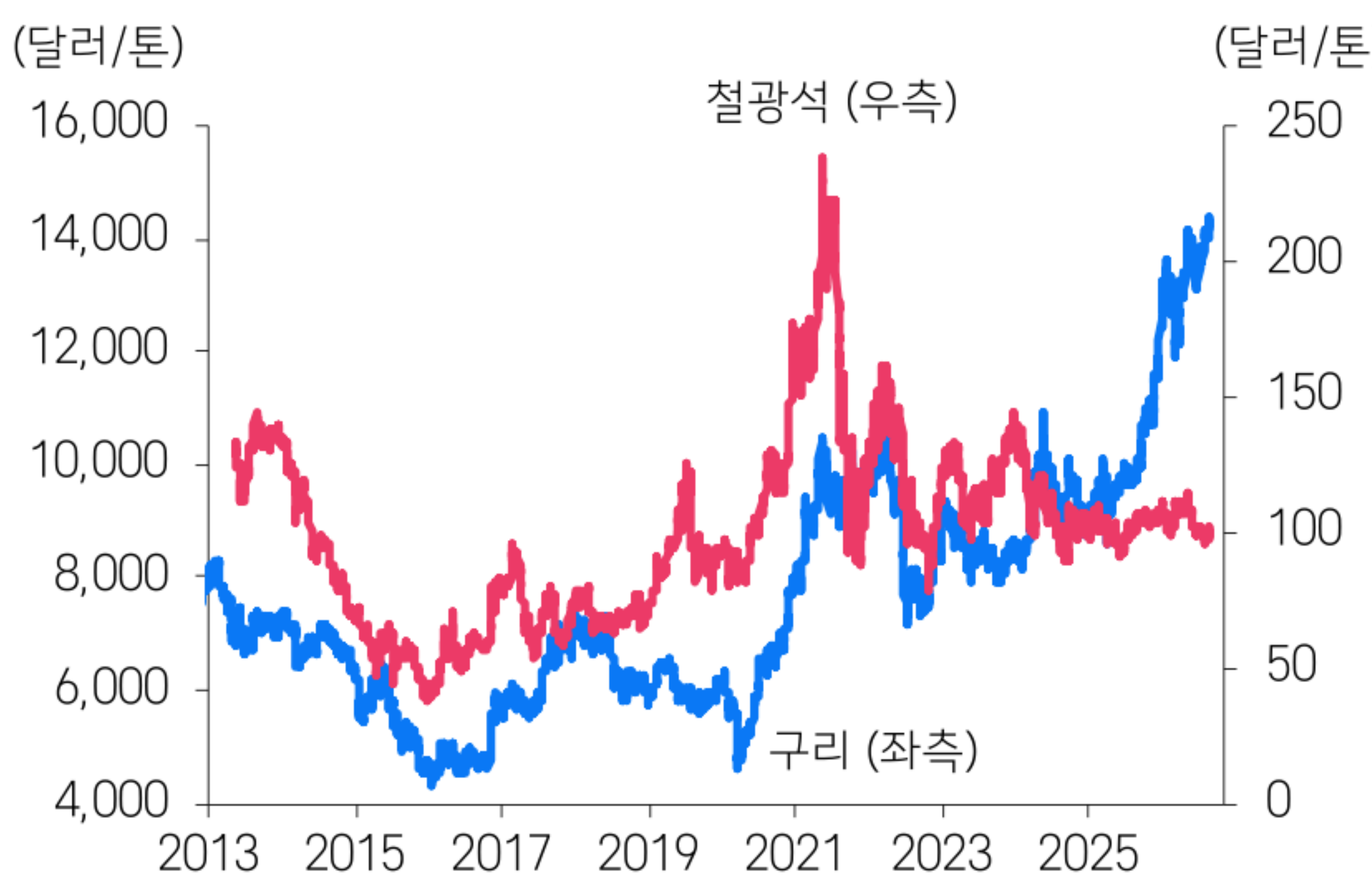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TI/Brent 유가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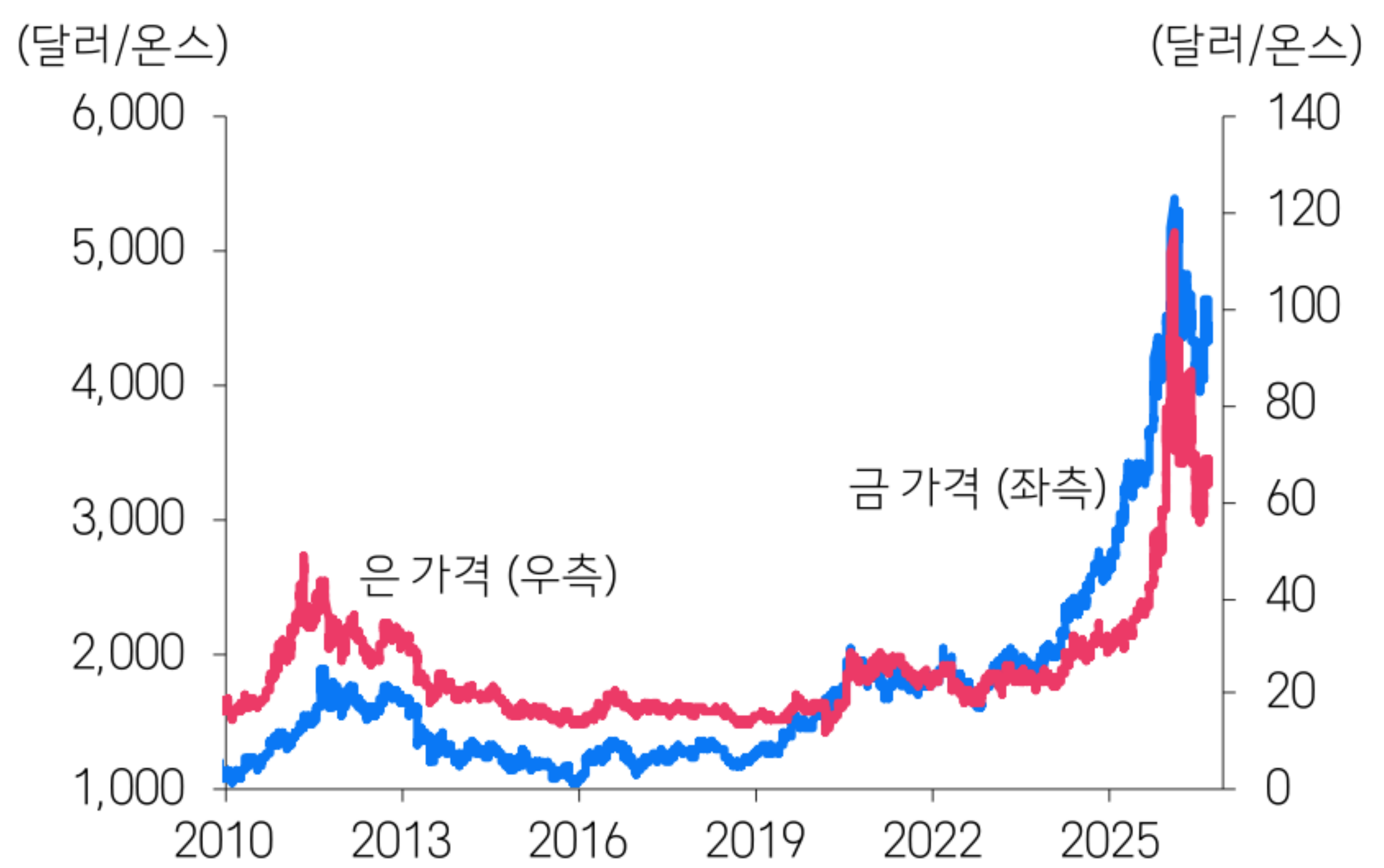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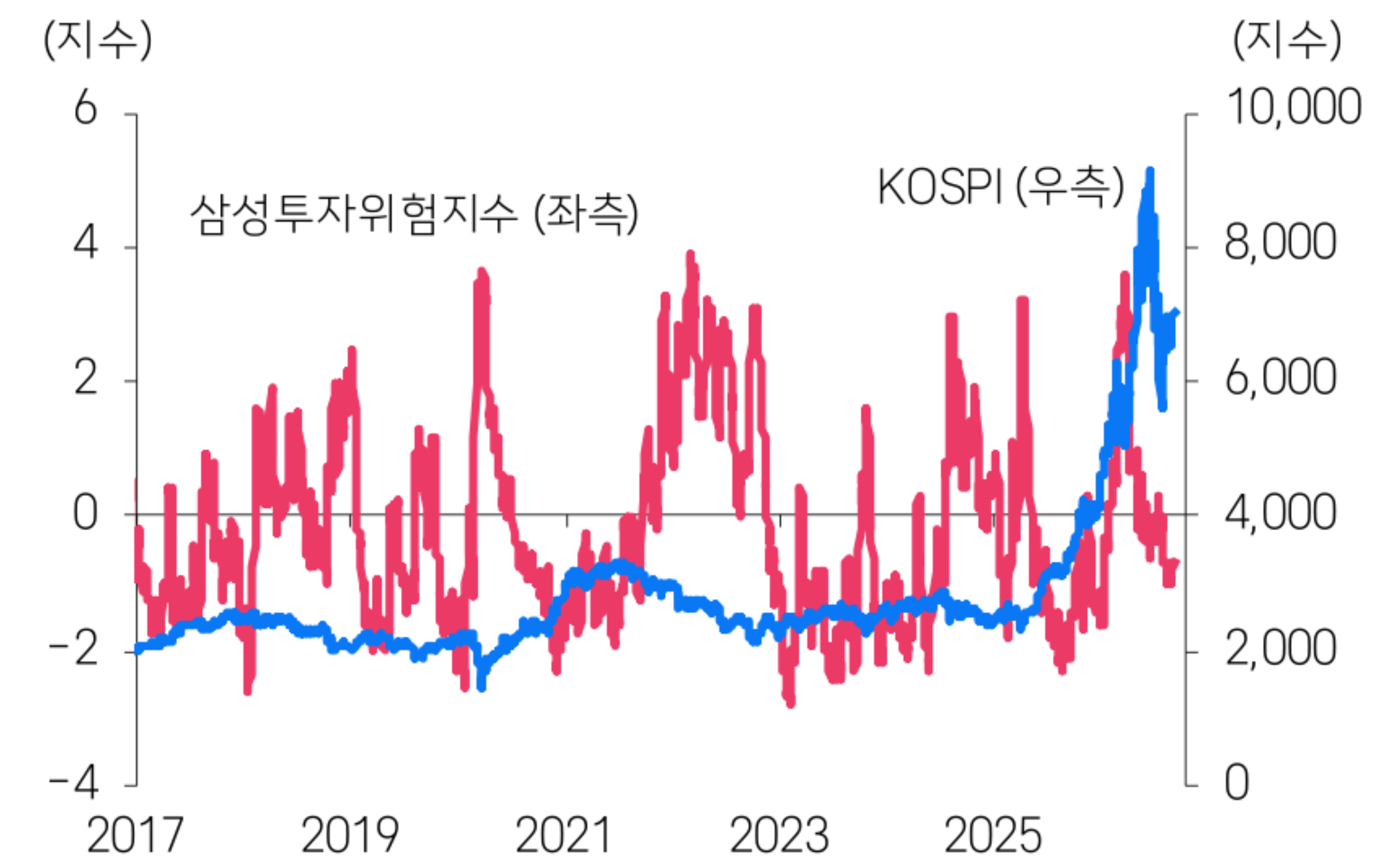
금/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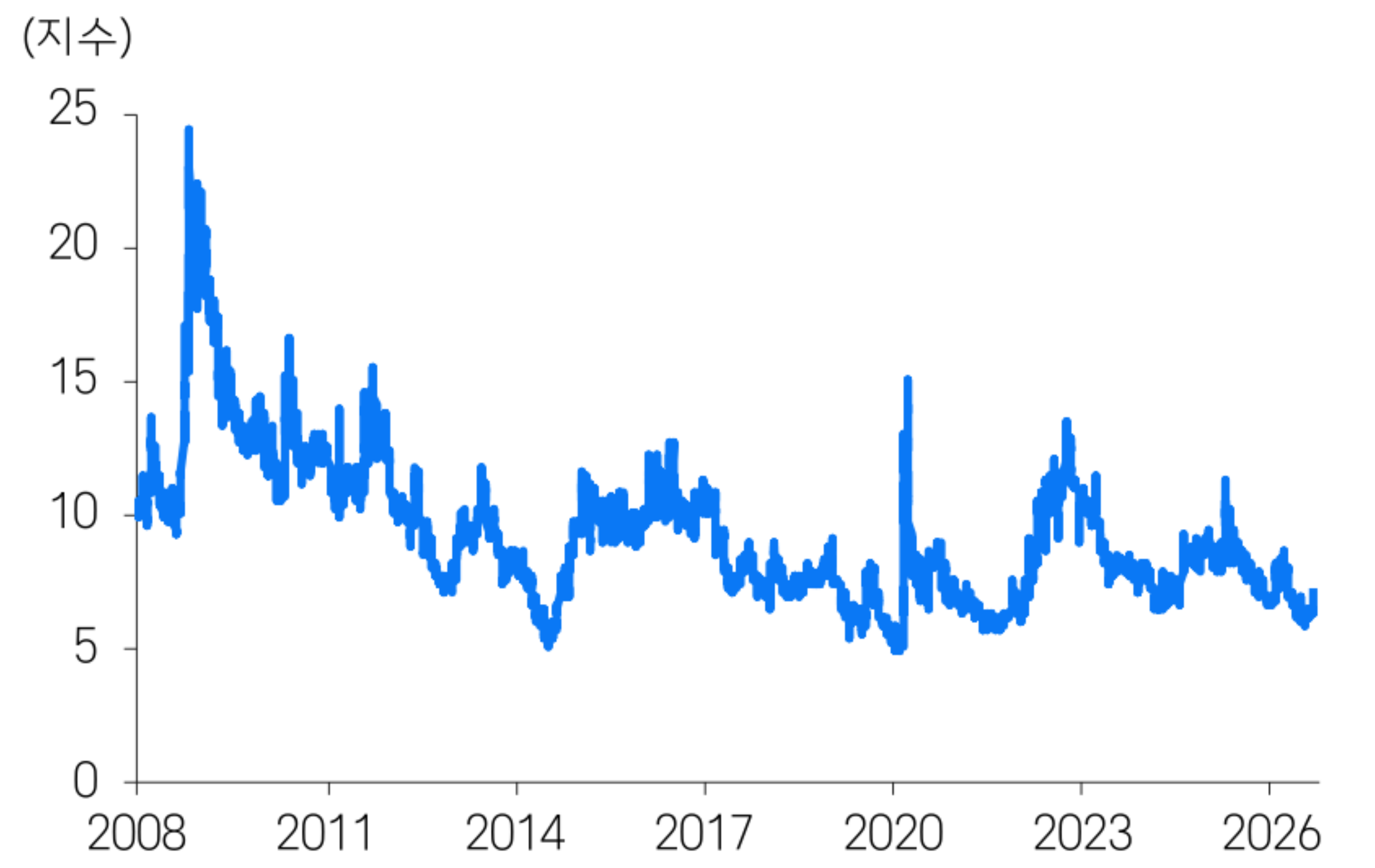
>> 변동성 지표와 CDS Premium

삼성 투자 위험 지수(Samsung Risk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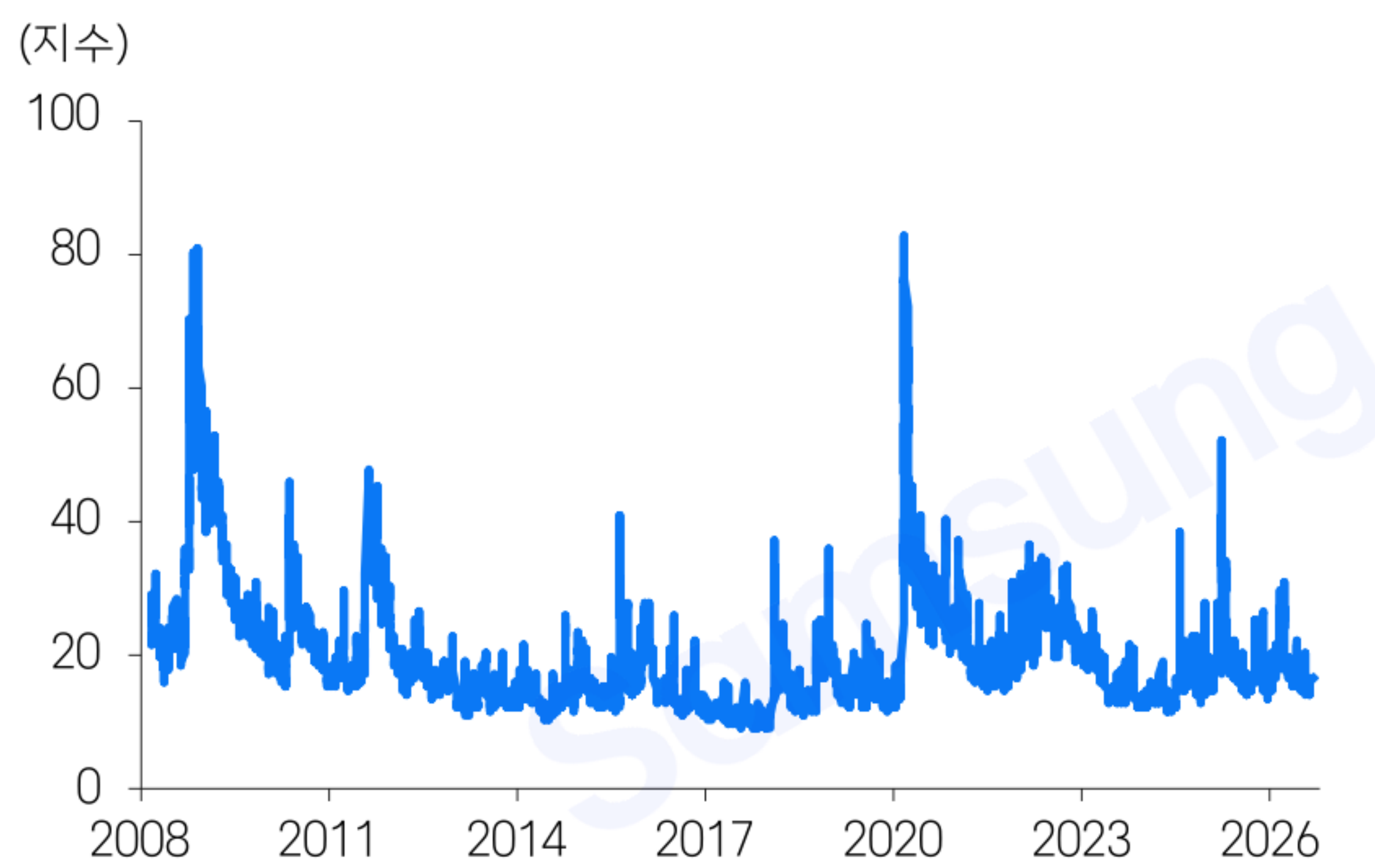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삼성증권

FX Volat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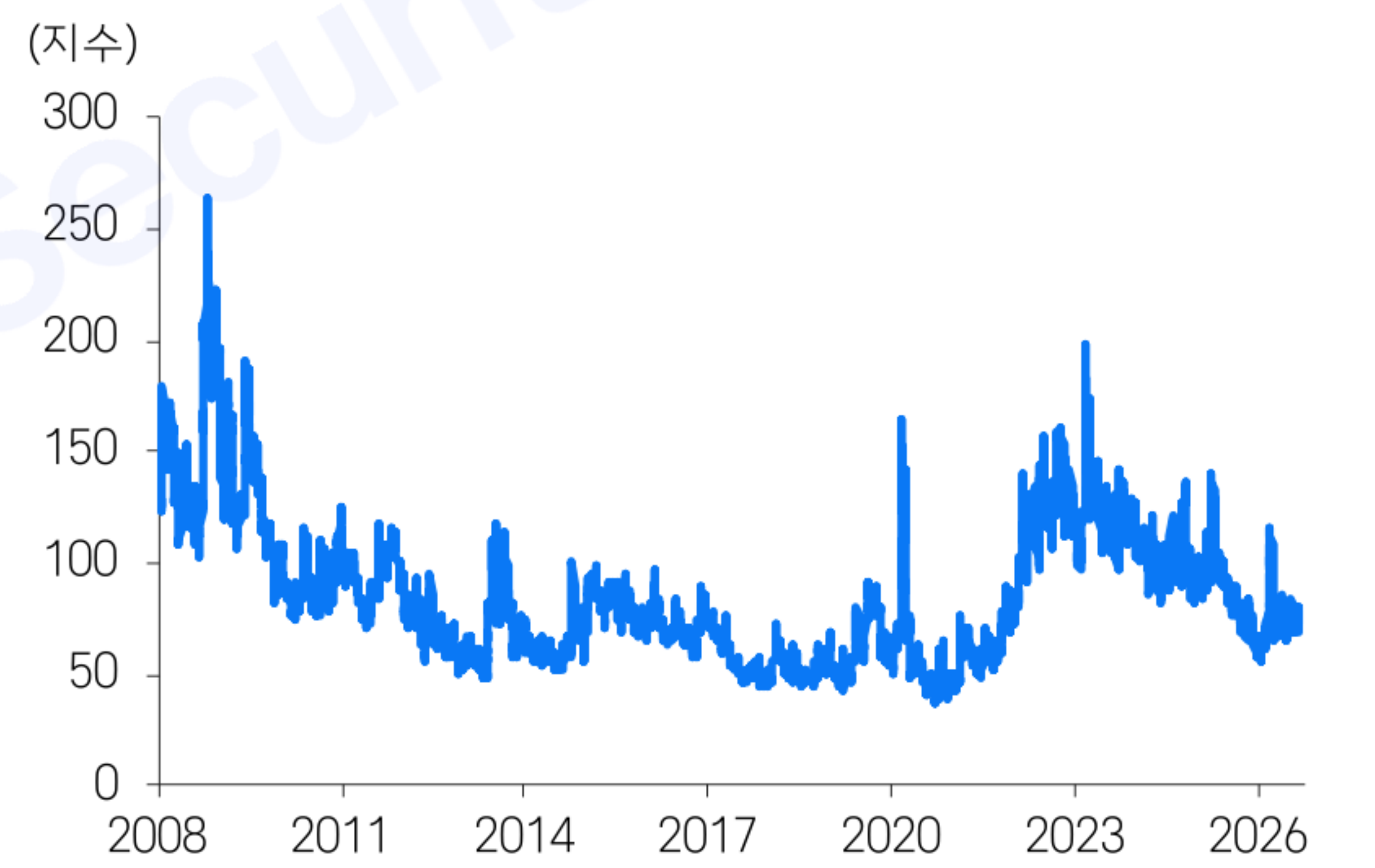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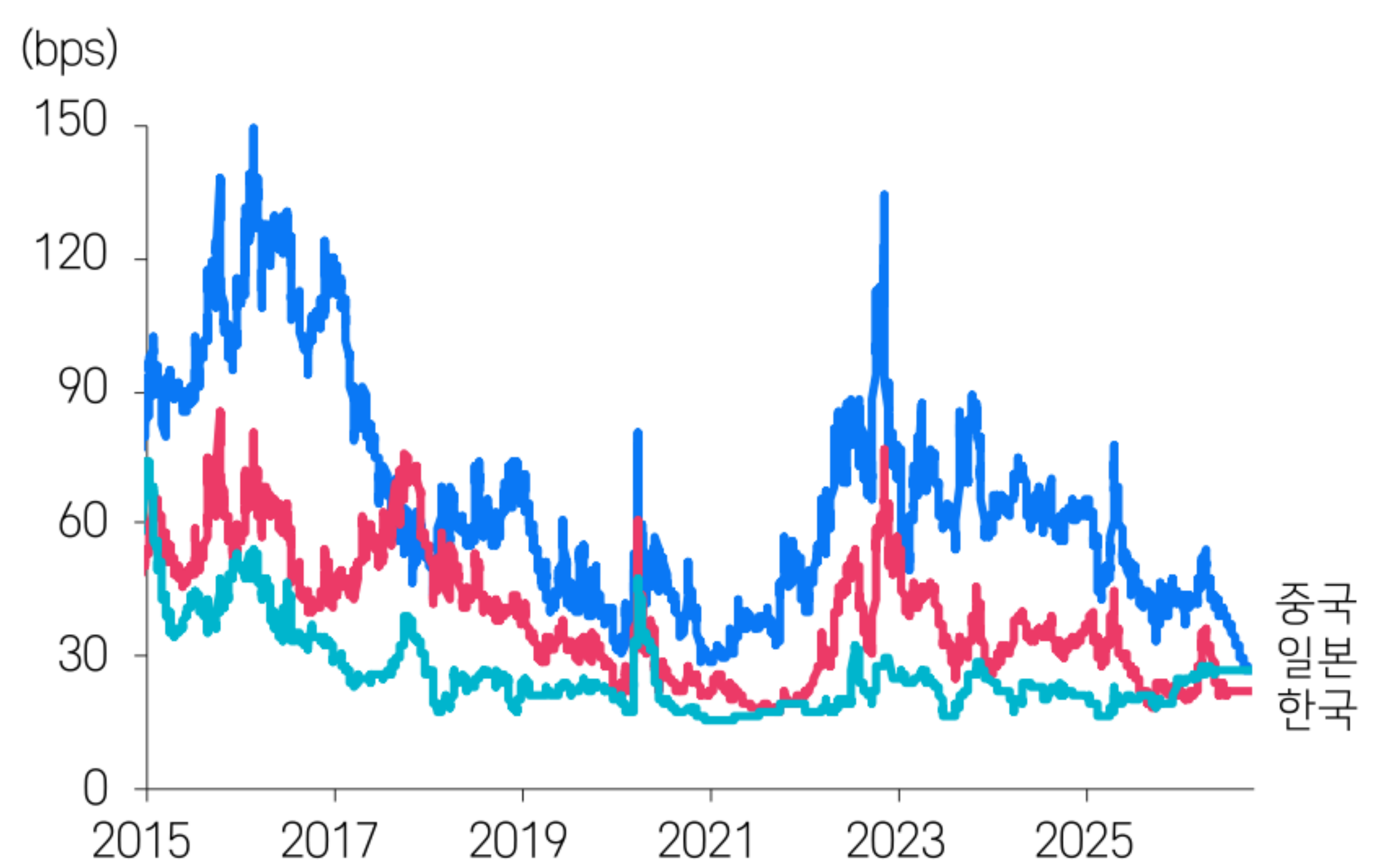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ov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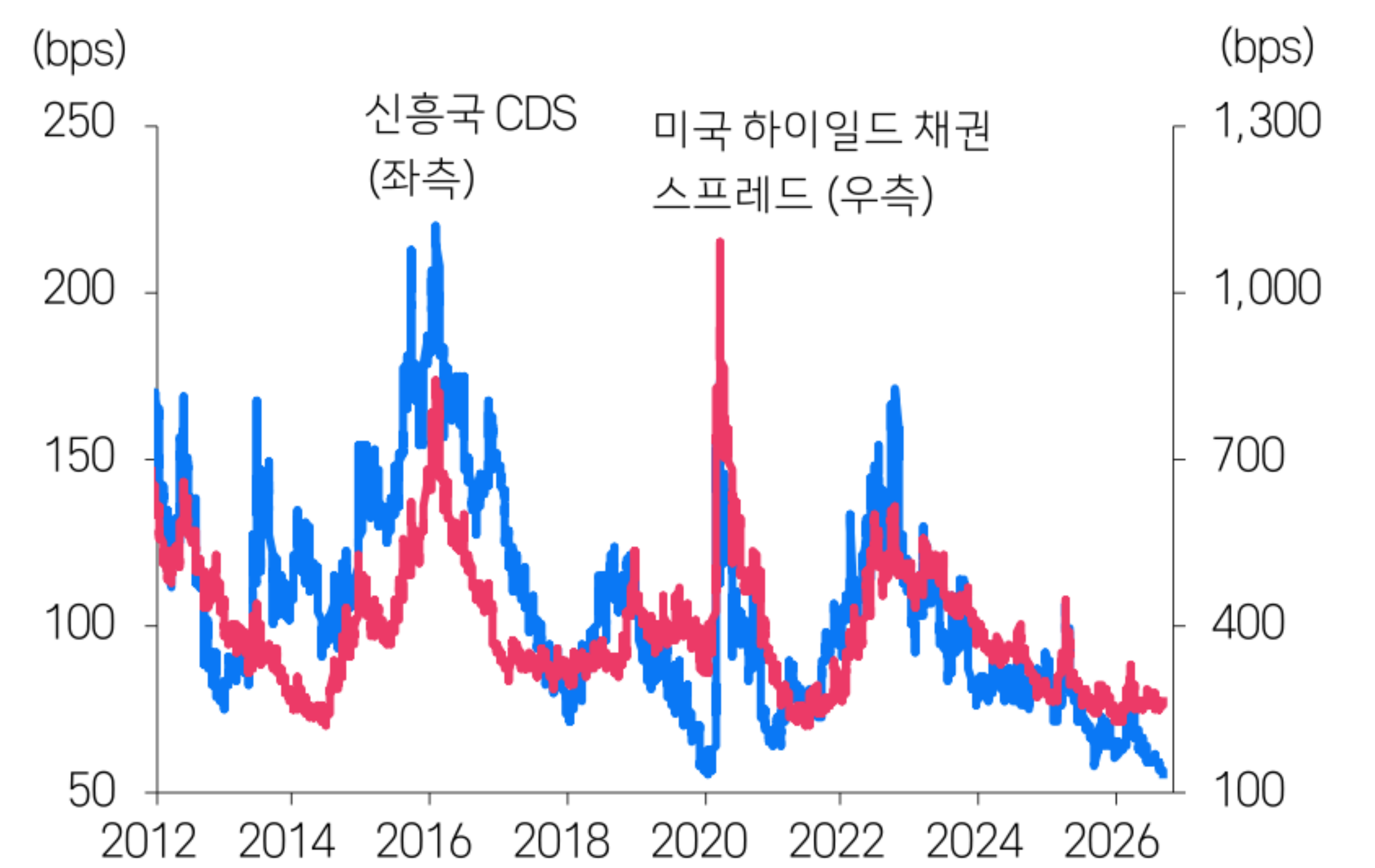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중국, 일본 CDS premium



참고: 5년물 기준
자료: Refinitiv

신흥국 CDS와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참고: S&P Global EM CDX 구성국 중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제외, 각국 CDS를 명목 GDP로 가중 평균하였음.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제외
자료: Refinitiv, Bloomberg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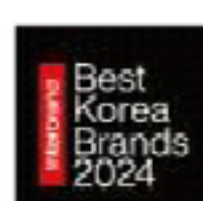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